



중국,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일시 : 2010. 11. 22 ~ 11. 27

● 장소 : 중국 북경, 상해

사단
법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발 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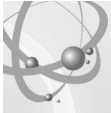
한국과교총에서 치르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학생 과학국제교류행사로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여러분들의 글을 하나로 묶어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화두는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창의성은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때 그 발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국 여행에서 보고 온 내용들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소통하고 알아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필품 중 상당한 양은 중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한 TV프로그램의 중국없이 살아보기는 그 내용이 중국산물품을 전부 제거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루도 살기 어렵다는 것을 재미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동반 성장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과의 교역량은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140억불에 이르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바로 알고 소통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중국은 과학발전을 국가 시책으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學科學(과학을 공부하고), 愛科學(과학을 사랑하고), 崇尚科學(과학을 숭상하고)을 교육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때 과학교육을 중시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과학을 기피하는 경향이어서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과학교육과 관련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초 중국이 서양문명에 내주었던 세계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여 오늘의 G2국가로 부상하는 데는 과학의 힘이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과교총의 학생과학국제교류 행사를 통해 체험한 중국을 과학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중국의 발전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 우리의 발전을 꾀할 때입니다.

2010년 12월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규 석



차 례

▣ 발간사

초등학생

울산 전하초등학교 4학년 김준원	3
경기 용인 서원초등학교 5학년 이기혁	9
경남 사천 동성초등학교 5학년 남재훈	11
경남 사천 동성초등학교 5학년 김지혜	13
대전 산성초등학교 5학년 김예원	16
대전 산청초등학교 5학년 조수민	18
광주 유촌초등학교 5학년 장원준	21
광주 유촌초등학교 5학년 김정인	23
광주 송원초등학교 6학년 박모세	28
서울 경기초등학교 6학년 김재경	30
경남 함양 위성초등학교 6학년 김태연	33
경남 함양 위성초등학교 6학년 한지연	34
대전 도마초등학교 6학년 이도현	36
대전 도마초등학교 6학년 박혜아	37
경북 포항 죽도초등학교 6학년 함윤식	39

중 학 생

경남 진주제일중학교 1학년 심선보	47
서울 숙명여자중학교 1학년 석민경	49
서울 숙명여자중학교 1학년 이도연	53
서울 개포중학교 1학년 이승주	56
충남 천안 새샘중학교 1학년 박진수	58
충남 천안 새샘중학교 1학년 홍정연	60

대구 성서중학교 2학년 김성현	63
대구 성서중학교 2학년 정수영	65
서울 신목중학교 2학년 윤다미	67
서울 신목중학교 2학년 이하선	71
충북 청주 산남중학교 2학년 양수정	74
충북 청주 산남중학교 2학년 강호준	76
충북 청주 서현중학교 2학년 송나미	78
충북 청주 서현중학교 2학년 이석화	79
서울 오남중학교 3학년 김동기	85

고등학생

경기 군포 용호고등학교 1학년 이영익	91
충남 충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박경서	94
충남 충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안지원	98
인천 연수고등학교 2학년 민세호	100
인천 연수고등학교 2학년 이호진	102
경기 용인 수지고등학교 2학년 김상연	104
전남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 2학년 순민하	106
전남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 2학년 선소망	108

지도교사

경남 사천 동성초등학교 교사 정정혜	113
대전 산성초등학교 교사 권남연	115
광주 유촌초등학교 교사 이양자	117
경남 함양 위성초등학교 교사 진은정	121
대전 도마초등학교 교사 정은경	124

경북 포항 죽도초등학교 교사 이민경	125
서울 숙명여자중학교 교사 전형구	127
충남 천안 새샘중학교 교사 천홍림	129
대구 성서중학교 교사 김효연	131
서울 신목중학교 교사 유헌목	133
충북 청주 산남중학교 교사 이정선	135
충북 청주 서현중학교 교사 김종미	137
인천 연수고등학교 교사 권아름	139
경기 용인 수지고등학교 교사 정충애	141
전남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운선	144
충남 충남과학고등학교 교사 김명희	146

시·도과교총 및 관계기관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교육연구사 정대영	151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조정식	154
울산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이영점	156
대전과교총 사무국장 장근수	165

한국과교총

한국과교총 사무총장 엄영주	169
서울 관악고등학교 교장 이연우	176
서울 창동중학교 교감 김경기	180
한국과교총 사무처 과장 이희란	182
한국과교총 사무처 대리 박현정	183

초등학교 학생 소감문



학생과학국제교류를 다녀와서

울산 전하초등학교 4학년 김준원

☉ 1일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 중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볼 걸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 어찌나 기대되던지 오기 며칠 전부터 기분이 들떴다. 비행기는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하였다. 멀미를 할 것 같았지만, 많은 것을 볼 걸 생각하니 금세 나아졌다. 기내식도 먹었는데,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먹을 만 했다. 12시쯤에 중국에서 짐도 챙기고, 이제 중국에서 많은 것을 볼 본격적인 준비가 되었다.

이제 북경공항에 도착했다. 북경, 중국말로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이다. 옛날엔 별로 살기 좋지 않은 도시로 평가받았으나, 2008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더 좋은 도시가 되었다.



맨 먼저, 자금성을 방문했다. 자금성은 과거 명·청의 황제들이 살았던 곳이다. 14년간 100만 명의 사람이 자금성의 공사에 동원됐다. 사용된 건축 자재의 양도 엄청나다. 벽돌 1억만 개와 기와 2억만 개가 사용됐다고 한다니, 공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간다. 게다가 성의 규모가 72만평이나 된다니, 정말 넓다(중국이 넓어서 그런 건가?). 거기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가운데의 문은 황제만 다닐 수 있는 문이고 양옆의 문은 문관/무관들이 다니는 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안에는 특이한 것들이 많다. 항아리 같은 것이 많았는데, 만들어진 시기가 새겨져 있다. 18개는 금칠되어 있다. 동물 모양의 ‘잡상’도 있었다. 이것은 귀신을 쫓고, 이것의 개수에 따라 건물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외, 문턱이 높은 이유는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 강시를 막기 위해서이고, 이화원 외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이유는 범죄자들이 나무에서 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성 관람을 끝낸 뒤, 호텔에 돌아가는 길, 선생님은 “짐 풀어놓은 뒤 바로 6층 세미나실로 오세요.”라고 했다. 나는 이유는 몰랐지만 일단 갔다.

바로 중국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다. 중국은 현재 화성탐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기술이 2.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라톤에서 두 걸음 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뒤쳐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따라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텔은 좋았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에서는 110볼트를 약간 사용하고 있다. 침대는 2개가 있고……. 어쨌든 좋았다. 그런데 일기를 쓰는 동안엔 왜 잠이 올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

☉ 2일

재미있다. 재미있는 체험도 많이 하고 중국음식, 특히 탕수육의 맛은 아직도 입안에 돈다. 역시 중국에 직접 가서 먹는 건 다르다. 조금 매콤하다. 그런데 문제점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오늘은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한다. 이 일기만 쓰고 자야겠다. 물론 중도에 졸겠지만. 이제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먼저, 중국인민대학교 부속 중학교, 소학교를 방문했다. 소학교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를 뜻한다. 학교 자랑을 들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교육수준이 높다. 초등학생이 옴의 법칙($V=IR$)을……; 중국의 모든 학생들이 모두 이런 교육을 받으면 한국을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서 따라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버스에서, 선생님은 2시간 자유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때까지 중국과학기술관을 견학하고 모이라고 하셨다. 나는 현대과학기술관과 고대과학기술관을 보았다. 둘 다 신기했는데, 물론 현대과학기술관이 더 신기하였다. 그리고 고대과학기술관에서는 고대에도 현대만큼은 아니지만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언어! 모든 설명이 중국어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잘 알아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여행에서 가장 좋아한 것, 먹자거리에서 자유시간이 1시간 주어진 것이다. 나는 2명과 함께 다녔다. 나는 양고기 꼬치와 과일 꼬치를 먹었다. 생각보다 적다. 중국음식은 간과 달콤함으로만 조미한다고 했다.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엽기적인 음식 하나가 있었다. 바로

전갈 꼬치!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 이걸 왜 팔까? 나는 절대 모르는 미스터리이다.

그 후 밤에, 호텔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그런데 나는 놀지도 않고 일기를 썼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써야겠다.

☉ 3일

오늘은 북경에 있는 마지막 날! 지금은 기차에 있다. 시속 200km보다 빠르게 달리는데도 9시간 54분……!! 중국은 정말 넓다. 하긴……. 중국의 넓이는 남한의 99배, 남한+북한의 44배이니까……. 이제 오늘 일어난 이야기를 적어야겠다.



먼저, 북경 제 4중학교를 방문했다. 이 학교는 1907년 세워진 공립학교이다. 북경 최고 중학교 중 하나이며, 매년 96% 이상의 학생이 명문대학에 입학한다. 그 중 40%가 북경대학/칭화대학에 입학한다. 그래서 이 학교는 북경에서 가장 유명한 중·고등학교로 꼽히고 있다.

그 후 점심을 먹었다. 역시 푸짐한 중국음식! 이만큼 주문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중국에서는 아직도 차를 많이 마신다. 차는 무료이지만 생수는 유료라고 한다(!). 점심을 먹은 후 1시간의 쇼핑 시간이 있었다. 나는 10위안짜리 휴대폰 고리를 하나 샀다. 좋아 보이는 건 비싸고, 안 좋은 것은 싸고……. 당연한 현상이지만 싫다. 어떤 장롱만한 향아리는 89만 위안이었다. 그런 건 누가 산다고 전시해 놓은 것일까?

그 후 만리장성을 올라갔다. 올라가 보라고 1시간동안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처음엔 경사가 완만했는데 갑자기 경사가 급해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암벽등반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걸은 것은 매우 일부분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것을 다 짓는다면 얼마나 힘들까? 실제로 이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멸망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수나라이다. 그 이유로 신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된 것일까?

마지막으로, 중국항공박물관을 방문했다. 그 곳에서는 다양한 비행기를 전시해 놓았다. 그 외에도 미사일, 레이더, 항공폭탄, 비행사진, 비행복, 낙하산 등이 전시되어 있다. 신기했다.



지금은 기차에 있다. 너무나 아기자기하다. 가방 넣을 틈도 없다. 2층 침대가 있는데, 나는 2층에 누웠다. 이제 잘 시간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상해의 풍경이 보이겠지?

☉ 4일



이제 상해에 도착했다. 상해는 중국의 남부 지방으로, 북경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다. 중국의 과학 기술, 경제, 무역, 금융의 중심지이다.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먼저,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지은 것이다. 이것을 상해에 지은 이유는 일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살았던 곳을 보기도 하였다. 그 후 노신공원을 방문하였다. 그 곳은 임시정부청사와 관련이 깊은 곳이다. 그 안에는 윤봉길 의사가 물 통형 폭탄을 던진 곳이 있다.



그 후, 상하이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중국의 유물들을 전시한 곳이다. 도자기, 서화, 화폐 등이 전시되어 있다. 1층에는 신석기시대, 2층에는 진(秦), 한(韓) 시대, 3층에는 송(宋)대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서커스를 관람하였다. 매우 훌륭하였다. 상하이서커스단은 세계에서 가장 잘 하는 서커스단이다. 어떤 선생님 말씀으로는 북경서커스와 모두 똑같지만 단 한 가지, 구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만 덧붙여졌다고 한다. 신기했다.

상해에서 묵는 호텔은 SAT 호텔이다. 북경에서 묵은 호텔과 별 차이는 없지만, 단 한 가지, 전기 코드가 화장실에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충전하고 싶은데..... 휴대폰에 화장실의 물이 묻을까봐 충전을 못 한다. 어쨌든 오늘의 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다.

☉ 5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호텔에서 놀고 싶어질까? 오늘 밤에 일기도 안 쓰고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 팔이 아프도록 일기를 쓴다. 오늘밤은 아주 짧은 느낌이 든다. 5시 30분도 되기 전에 해가 지고 6시 30분에도 해가 뜨지 않는 겨울인데도 이렇게 짧게 느껴진다. 어쩌나 오늘이나 밤의 길이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짧은 느낌이 들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먼저, 동방명주타워를 보았다. 너무 높아서 한 사진에 담지 못했다. 우리는 350m 지점의 전망대에서 보았다. 거기서 바라본 풍경은 멋있었다. 동방명주타워 주위에도 높은 건물들이 많았다. 상하이는 원래 높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북경은 높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다. 그것이 베이징과 상하이의 차이점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후, 상하이과학기술관을 견학하였다. 전시관은 많지 않았다. 7개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유시간이 3시간이나 주어졌다. 너무 자유시간이 많다. 그래서 나는 아이맥스 영화를 보았다. 30위안을 주고 보았다. 하지만 언어가 맞지 않아서 조금 맘에 들지 않았다.

이제 학생과학국제교류의 마지막 스케줄이다. 바로 북경의 야경을 관람하는 것이다. 평소 상하이는 따뜻했는데, 배 안은 춥다. 그래도 야경을 관람했다. 멋졌다. 상하이의 야경은 끝내줬다.

이제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마지막 밤인 만큼 호텔 349호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일기를 또 쓰지 못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계속 썼다.

☉ 6일

벌써 마지막 날이다. 시간은 참 빠르다. 그리고 보니, 중국에서 참 많은 것을 보았다. 자금성, 북경과학기술관, 만리장성, 동방명주타워, 임시정부청사 등 많은 곳을 방문했다. 벌써 끝난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집에서 쉴 수 있게 되어 기쁘기도 하다.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 중국 사람들의 세 가지 한(恨)은 무엇일까? 바로 중국의 땅을 다 못 밟는 것, 중국의 음식을 다 먹지 못하는 것, 중국 글자를 다 못 배우는 것이다. 중국은 그 만큼 땅도 넓고, 음식도 많고, 글자도 많다. 그러므로 중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이다. 중국과 많은 것을

교류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1월에는 또 3박4일로 과학영재문화탐방으로 상해에 갈 것이다. 전 세계를 탐방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싶다. 앞으로 나는 한국의 과학발전을 이끌어 나갈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것이다.

(한국과학창의력대회 최우수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를 다녀와서

경기 용인 서원초등학교 5학년 이기혁

나는 11월21일부터 11월27일까지 일주일동안 중국 북경과 상하이에 학생 국제과학교류행사를 다녀왔다. 17명의 인솔선생님과 42명의 초, 중, 고학생으로 구성된 각종 과학관련 전국대회 수상자들만 가는 것이어서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가는 여행이었으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비행기에 올랐다.

북경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천안문과 자금성이었는데 천안문광장은 자금성 앞에 있는 광장으로 마오쩌둥의 초상화와 오성의 붉은 기가 인상적이다. 천안문 안으로 세 개의 문을 지나면 자금성이 나오는데 자금성은 중국 명·청대의 궁궐로 황제가 천하를 다스린다는 상징을 여기 저기 숨겨 놓았다. 그 후 인력거를 타고 북경의 옛 부잣집들 골목을 구경하였다.

둘째 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우리나라 영재고에 해당하는 중국인민대부속 중학교, 소학교이다. 중국에서 중학교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와 같은데 이 특별한 중학교는 IMC, IPHO, ICHO 등에서 수상자를 많이 배출했다 한다. 그 옆의 소학교 역시 영재학교인데 지나가면서 보니 음의 법칙($V=IR$)을 배우고 있었다. 초등 4학년에 음의 법칙을 배우고 실험한다 하니 참으로 놀라웠다. 그 후 북경과학기술관을 견학했는데 생명과학, 고대과학, 4D 영화관 등이 우리나라의 과학관 못지않았다.

셋째 날은 우리나라의 서울영재고에 해당하는 북경4중학교를 방문하고, 다음으로 항공 박물관을 갔는데 여러 가지 항공기와 모형, 폭탄, 미사일, 총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특히 의아한 것은 최신형 항공기가 공기역학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였다. 그 후, 만리장성을 올라갔는데 만리장성은 진·명 때까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에서 가장 긴 성벽이다. 저녁을 먹고 상해로 가는 야간 고속열차에 탔다. 침대칸이 비좁았지만 개인용 스크린이 있어 비행기 뺄치는 수준이었다.

상하이에서 첫 번째로 관람한 동방명주 타워는 에펠탑보다 18배 높다고 한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 상하이가 얼마나 넓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상하이 박물관은 중국의 역사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특

히 중국 도자공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는데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다.

다음날은 상하이 과학기술관에서 생명과학 전시물 견학하고, 구형 스크린으로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스카이다이빙 영화를 보았는데 재미있었다. 밤에는 모두 모여 이번 행사 참가에 관한 소감을 서로 발표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제학생과학교류를 참가하면서 중국의 역사, 문화와 과학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중국이 영재교육에 매우 치중한다는 사실에서 8회 연속 IMO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비결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은 부담 없이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어서 기뻐고, 중국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알찬 경험이었다.

(한국과학창의력대회 최우수상 수상)

내 생애 첫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경남 사천 동성초등학교 5학년 남재훈

한국 학생 과학국제교류 해외연수가 있는 첫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갔다. 그곳에는 우리 일행들이 많이 와있었다. 다들 처음만나 적응이 되지 않아 어색했고 첫 해외여행이라 무척이나 설레었다.

9시30분, 우린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다. 기내식이 나와 기대하고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가서 베이징에 도착했다. 처음 본 중국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도착 후 바로 점심을 먹었는데 모든 음식들에 기름이 가득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음료수와 밥으로 겨우 먹었다. 그리고 진나라 때 진시황이 지은 5개의 문을 거쳐 9999개의 방으로 되어있다는 자금성에 갔다. 우리나라의 창덕궁, 경복궁도 멋있고 웅장하지만 자금성은 비교도 안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컸다. 금으로 되어있는 엄청 큰 지붕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기둥들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자금성을 전부 보게 되면 3일은 걸린다고 해서 조금만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다음은 옛 교통수단인 인력거체험을 했다. 조금 덜컹거리기는 했으나 시원하고 경치도 구경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호텔에서 쉬었다.

두 번째 날, 호텔뷔페를 먹고 북경인민대학교 부속중학교를 방문했다. 이곳은 과목에 따라 교실을 옮겨 다니는 것 같았다. 학교역시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 만큼 컸다. 농구장도 6개나 되었다. 정말 대단했다.

그다음 북경 과학기술관에 갔다. 우리나라 과천과학관보다 넓었다. 과학기술도 매우 발전되어 있었다. 4D영화와 옛 농기구들이 인상 깊었다. 중국에서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여행에는 야식을 빼놓을 수 없다. 친구 형들을 불러 같이 라면을 먹었다. 맛이 아주 끝내 주었다.

세 번째 날, 베이징 제 4중학교에 갔다. 베이징에서 유명한 학교인 만큼 시설이 아주 좋았다. 과학실에 많은 과학기구가 있었다. 곧이어 항공박물관에 갔다. 미사일 전투기 여객기 헬리콥터 등 없는 게 없었다. 그리고 오늘

의 하이라이트! 바로 만리장성이었다. 원래 케이블카로 이동해야 하나 운행을 중단해 걸어갔다. 험하고도 가파르지만 경치도 아주 멋있었다. 기회가 되면 불가능하지만 만리장성을 한 바퀴 돌고 싶었다. 선생님들이 길을 잃어 헤매는 에피소드도 있어 더욱 여행이 즐거웠다.

저녁을 먹고 이제 북경으로부터 2000km떨어진 상해를 가기위해 북경 역으로 갔다. 객실이 깨끗하고 좋았는데 4명에서 자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래도 친구들, 형들, 누나들을 불러 함께 게임을 하며 노니 좁은 것을 잊게 되었다. 또 처음으로 기차에서 자보니 즐거웠다.

네 번째 날, 상해 역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홍구공원을 관람했다. 윤봉길 의사의 기념비가 새겨진 곳을 보니 자랑스럽고 그분께 감사했다. 또 상해 임시정부청사도 관람했다. 나라를 찾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마음이 느껴져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상해과학기술관에 갔다. 북경이랑 비슷했으나 서비스가 조금 떨어져서 아쉬웠다. 저녁을 먹고 찬란한 서커스를 보러 갔다. 오토바이 묘기 향아리묘기, 링 안으로 다니기, 모자 던지고 받기, 타이타닉 등 재미있는 게 아주 많았다. 또 향아리묘기에서는 깨질 것 같아서 매우 조마조마했다.

다섯째 날, 480m나 되는 동방명주타워를 감상했다. 그리고 남경로의 광장도 관람했다. 아주 웅장하고 멋있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상해 박물관을 관람했다. 상해의 역사를 알려주는 곳이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외탄야경이다 야경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불빛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다. 정말 잊을 수없는 야경이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같이 아름다웠다. 벌써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다.

마지막 날, 바로 공항으로 이동했다. 가이드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기내식을 먹고 나니 도착했다. 이 여행을 통해 나와 같이 추억을 남긴 형들 누나들을 잊지 못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과학에 더 관심을 가져 이런 기회가 오면 또다시 도전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친구, 형들, 누나들과 함께한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즐거운 중국여행이었다.

(자연관찰탐구대회 최우수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 소감

경남 사천 동성초등학교 5학년 김지혜

이번 중국은 처음가보는 해외라 많이 설렘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로 내가 갈 곳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해보았습니다. 첫째 날, 까다로운 출국 절차를 밟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처음으로 먹어본 중국 음식은 전체적으로 기름지긴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이날은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보았습니다. 특히 자금성은 9999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정말 웅장한 성 이었습니다. 위쪽의 지붕은 다 빨간색, 기둥은 다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지붕 안쪽에는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가이드 설명을 들어보니 빨간색은 행운을 금색은 부유를 또 청록색은 건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설명은 모두 태화전 앞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태화전 양옆에는 학과 거북이의 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더 걸어가 보니 이번엔 어미사자와 새끼사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황손의 번창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금성 구경을 다 끝내고 인력거를 타러 갔습니다. 맨 처음엔 어디에 타야 될지 몰라서 허둥대었는데, 태워주신 아저씨께서 내 카메라로 찍어도 주시고 가는 내내 재미있게 해주셔서 신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은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듣지 못해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날은 몸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항상 아침엔 국과 김치와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바뀐 식단에 적응 하지 못해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점심때 배가 너무 아파서 굶어야 했습니다. 차안에서 한 숨 자고나니 배 아픔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이날은 인민부속소학교와 왕부정가를 방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중국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을 섞어서 벌인 창의력 시험을 하면서 중국 학생들의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수업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왕부정가에서는 무척 독특한 음식들을 봤습니다. 이름하여 전갈꼬지, 해마꼬지, 불가사리 꼬지, 거미꼬지, 또 얼굴과 부리까지 달린 새 구이 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빠는 전갈꼬지를 돈 주고 사먹고는 맛있다고 하더군요. 이날 저녁은 북경오리구이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름이 흘러내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세 째 날은 가장 중요한 날 이였습니다. 중국하면 떠오르는 ‘만리장성’을 갔기 때문입니다. 만리장성을 올라가는 길을 매우 경사였습니다.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짓는 다고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엔 상해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차와는 달리 한 방에 2층 침대가 2개 정도 놓여있어서 숙박이 가능한 곳 이였습니다. 좀 좁긴 했지만, 선생님, 친구들, 오빠들과 같이 게임을 하며 늦게까지 놀다보니 좁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차에서 자고 나보니 상해였습니다.

이 곳 상해에서는 서커스가 가장 신기했습니다. 서커스를 하는 이들은 몸이 무척이나 유연해서 마치 연체동물 같았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의 주제가 배경음악으로 하여 공연을 펼친 두 사람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긴장감과 감동을 동시에 받은 저는 서커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날 저녁은 샤브샤브였는데 육수가 담긴 큰 냄비에 고기를 익혀서 먹었는데, 양고기에서 누린내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밥에다가 가져온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선 같은 방을 쓴 언니와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아침부터 외탄야경을 볼 생각에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외탄야경은 저녁에 보는 거라 앞서서 동방명주타워에 갔었습니다. 이곳을 가기 전에 현지 가이드가 계속 잡상인들에게 절대 눈길을 주지 말라고 얘기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상인들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고 동방명주타워에서 내려오는데, 유독 한 상인만은 계속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동방명주 타워의 모형 탑을 들이밀며 “3만원! 3만원!”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사지 않자 이번엔 가격을 낮추어 “만 5천원! 만 5천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끈질기게 버스까지 따라온 상인은 이젠 “5천원! 5천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 사지 않았고 옆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이것을 5천원 주고 사셨습니다. 차에 가면서 전 감탄사가 연거푸 나왔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외탄야경을 보았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보았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다 유럽풍이었습니다. 저녁에 본 동방명주타워는 다른 것보다 더 반짝이긴 했으나 전 병따개 모양의 가장 높은 건물이 가장 멋있었습니다. 왕관모양의 건물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는 세미나실에서 소감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전 이날도 저녁에 같은 방 언니와 라면을 먹었습니다. 옆방에선 무슨 놀이를 하는지 소리를 많이 질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인천공항에서 선생님들과 친구, 언니들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번 중국 여행은 절대 잊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자연관찰탐구대회 최우수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 기행문

대전 삼성초등학교 5학년 김예원

학생 과학 국제 교류로 인하여 중국으로 가는 여행은 저의 처음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설레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간다고 하였을 때 엄청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5박6일의 장기간 여행으로 부모님을 못 뵈어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왔을 때 저희가 생각한 중국의 후진국모습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발전한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점심식사를 하였을 때 느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불편한 음식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처럼 물을 마시지 않고 차 문화가 발달하여서 차를 먹는데 북경에서는 채스민차를 먹고 상하이에서는 녹차를 먹었습니다. 중국에서 물대신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금성을 관람하였을 때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예전의 중국사람 들은 자금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하면서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력거도 처음 타보았는데 처음엔 사람이 끌기 때문에 추운날씨에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셔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타다보니 길거리 풍경도 보고 편안하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저의 룸메이트는 고 1의 언니이었는데 나이차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놀 때에는 저희와 똑같이 놀고 공부할 때는 집중을 가하여 공부하는 모습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룸메이트가 대화를 같이 나간 파트너와 안 돼도 더 많은 것을 소통할 수 있어서 룸메이트를 바꾸는 것도 좋은 생각 이였습니다.

두 번 제날 중국 인 민대 부속중학교와 부속소학교를 갔을 때 한국보다 학교시설이 안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 저는 중국학교를 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학교시설, 아이들의 영어실력,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저희 또한 웃음꽃이 폈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아서 수많은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상을 휩쓸며 참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을 둘러보며 과학관이나 박물관을 많이 관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관이

기억에 남는데 각종 여러 가지 체험과 배울 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달에서 중력으로 인하여 사람이 걸을 때나 떨어 떨어 떨어 볼 때의 반응을 보는 비슷한 체험을 하였는데 재미있었고 정말 달에 가면 그만큼 떨어 떨어 떨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리장성을 관람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습니 다. 만리장성을 올라갈 때 경사가 심하여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성을 어떻게 쌓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 째날 밤에 북경에서 상하이로 이동할 때 기차에서 잠을 청했는데 기차에도 이런 잠자는 곳이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씻을 수도 있었고, TV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발전한 모습을 보며 한국도 이렇게 빨리 발전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보며 놀라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었으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노신공원을 관람하면서 윤봉길의사의 업적을 들으며 감동하였습니다. 저도 커서 한국을 빛낼 사람이 되어 한국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기념품도 사고 외탄야경과 서커스를 관람하며 중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으며 기념품을 살 때에는 공항 면세점에서도 샀지만 관람하면서 자유 시간에 언니나 친구들이랑 걸어 다니면서 샀는데 기념품을 사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사니 뿌듯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창문을 통해 보이는 중국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동생 언니오빠들은 이번 국제 교류뿐만 아니라 전에 한 국제 교류에도 참가한 대단한 실력들의 언니 오빠들이었습니다. 언니오빠들을 보며 본받아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국제 교류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중국에 다양한 문화, 신기한 과학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보람 있는 여행 이였고 중국의 아름다운 야경, 즐거운 기차 여행, 중국의 학교관람으로 인하여 놀라운 중국의 발전과 아름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 국제 교류가 더 발전해서 더욱더 보람 있고 깨달음을 알 수 있는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기행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연관찰탐구대회 금상 수상)

중국을 다녀와서

대전 삼성초등학교 5학년 조수민

중국에는 많은 문화와 배울 점 그리고 재밌는 볼거리가 많았다. 중국은 나의 생각 보다 더 많이 발전되어 있었다. 박물관은 정말 컸다. 그리고 신기한 모양이 세워져 있는 것들도 있었다. 축구공 같이 생긴 게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했다. 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 땅도 크며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예로 들자면 중국에는 우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학삼(?)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한다. 박물관에는 재밌고 신기한 게 많았다.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핸드백을 집고, 쇼를 하였다. 어떻게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정말 봐도 봐도 신기하였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인간처럼 생긴 로봇들이 많아 질 것 같다.

윤봉길 의사의 노신공원을 갔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국은 모든 나라의 문화를 중요히 여기는 것 같았다. 또, 중국은 아이디어가 뛰어난 나라 같았다. 장난감인데 진짜로 숨 쉬는 것 같은 고양이 장난감을 보니 저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박물관에 두 개의 원을 붙여 만든 우주 가상체험을 보니까 저걸 만들 생각을 한 사람이 존경스러웠다. 한 가지가 더 있다 꼭 달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드는 가상 체험도 하였다. 내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고 너무 가볍게 느껴져 신기하였다. 꼭 사람을 물에서 들었을 때 몸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신기하게도 중국은 빈부차이가 심하다고 했다. 80%는 가난하게 살고, 20%는 부자처럼 사는 것을 보아 빈부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린 상하이에서 서커스를 보았다. 그중 제일 기억나는 것은 스릴레이싱이었다. 난 두꺼운 철사로 만든 동그라미 원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금했던 것은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지구는 중력이 있어서 떨어진다. 그런데 이 서커스는 마치 마술이라도 하는 양 동그란 본체에서 그냥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듯 평범하고 편안하게 타고 있었다. 서커스에서 스릴레이싱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어떤 언니 오빠가 공중에 매달려서 연기를 하는 것이었다. 줄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었다. 과연 그 줄은 얼마나

튼튼하기에 사람이 매달렸는데도 끊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은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하는 의문점이 들었다.

아정은 빛이 여러 색으로 섞이면서 점점 더 예쁜 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빛이 그런 신비스러운 색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난 감탄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간 동방명주 타워에는 식당도 있고, 체험기구도 있었다. 또, 가끔씩은 그 안에서 불꽃을 쏜다고 하였다. 설마 세상에 또 그런 높고, 아찔하며, 신기한 타워가 또 있을까. 아찔한 높이로 보이는 곳에서 단 한 장으로 보이는 유리로 만들어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줄 생각을 했을까? 나 역시 그 곳을 올라갔는데, 맨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조금씩 적응되어 재밌었고, 그 밑에 받쳐주는 것 같은 게 있어서 훨씬 편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기억나는 만리장성을 길고 무서웠다. 정말 옛날 사람들은 이 많은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왜 이런 길을 만들었을까? 계단은 완전 직선으로 뻗어있었다. 그 덕에 우리는 올라가기가 훨씬 힘들었다. 온갖 걱정이 다 들었다. 이러다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대로 미끄러진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 경치가 보이는 성 같은 데에 올라와 있었다. 내가 감탄을 하는 사이에 예원이와 언니가 왔고, 나와 잘 맞는 언니는 선생님들께서 보이기에 “선생님!” 하고 소리쳤다. 선생님을 기다리면 조잘조잘 떠들고 있었는데, 아까까진 보였던 선생님들께서 안 보이기 시작했다. 나랑 언니는 조금 더 걸다가 다시 그 성(?)으로 도착했다. 그리고 넷이서 함께 내려오고 있었다. 내려오는데 미끄러질까봐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1명도 미끄러지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이 만리장성을 세운 사람들은 아픈 곳 없이 지을 수 있었을까? 왜 이런 길을 지었을까? 라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학교에는 과학에 관한 것들이 많았다. 종이를 이어서 최대한 끊어지지 않고 길게 만드는 것이었다. 중국인 아이들 반과 한국아이들 반을 섞어서 2팀을 만들었다. 대회(경기)를 시작하는데 만들고 길이를 재는 도중에 1팀의 종이가 끊겨져 버렸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도 그 팀의 길이는 한 4~5m 정도나 되었다. 무엇보다 교실은 반이 따로 나누어진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냥 칸막이만 해놓은 것 같았다. 왜 중국은 교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음에는 창고? 전시회? 같은 데를 갔는데 초등학교생이 만든 거라면 하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잘한 솜씨였다. 과학의 원리

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건을 보면서 정말 친구들은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느꼈다. 꼭 학교가 과학의 세계 같았다. 꼭 마술 같으면서도 과학의 원리로 만드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다.

중국여행은 아마 나에게 해외에서의 2번째로 소중한 여행으로 남을 것 같다. 많이 다녀서 힘들고 교통이 어려웠던 중국이었지만 많은 추억과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갈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자연관찰탐구대회 금상 수상)

한국학생과학국제교류 중국 견학 소감

광주 유촌초등학교 5학년 장원준

나는 한국학생과학탐구 올림픽 초등 자연관찰 탐구대회 분야에서 금상이라는 성적으로 중국을 견학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부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보겠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에서 7시 20분에 도착하였다. 광주 송원초등학교 6학년인 모세 형과 같이 가게 되었는데 아침부터 모세 형은 비행기 티켓을 공항의자에 놔두고 와서 매우 복잡하였다. 그 때부터 나는 형의 성격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 도착하고 가장 처음에 간 곳이 중국 식당이었다. 나는 정말로 중국음식에 입맛에 맞지 않았다. 너무 기름지고 많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없이 비행기 안에서 주는 기내식에서 빵이 있었는데 그 빵으로 점심을 마쳤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서는 천안문과 자금성을 관람하고 베이징 뒷골목의 문화체험을 위한 인력거 관람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인력거 아저씨가 내 핸드폰보다 더 좋은 아이폰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중국인민대 부속중학교, 소학교를 갔는데 나는 중국 학교에서 여러 중국학생을 만날 수 있었고, 영어로 대화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이 중국인민대는 중국에서 가장 명문대학교라고 중국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과학기술관에서 여러 과학정보를 알고 체험도 하고 왕부정가에서 여러 길거리 음식을 접하게 되었다. 또, 그다음 날에는 북경 제 4중학교도 가고 항공박물관, 만리장성도 관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하이까지 가는데 예는 야간열차를 타는 아주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다. 기차에는 아주 좁은 방에 침대가 4개나 있었고 1등급실에서 취침할 수 있었다. 이때, 기차에서는 약 새벽 2시까지는 형, 누나들과 마피아 게임을 하고 새벽 3시까지는 선생님께서 주무시는 와중에 과자를 먹으며 웃고 떠들며 놀았다. 정말 너무 재미있었다. 아마도, 이 시간에 형들과 누나, 동생들을 사귀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상하이에 약 7시 30분에 도착하고 바로 호텔로 이동해서 아침식사를 하고 윤봉길 의사가 물통폭탄을 던졌던 러신 공원도 가고 옛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청사도 견학할 수 있게 되었다. 상하이 박물관에서는 여러 중국문화와 상하이문화에 관해 알 수 있고 여러 중국의 예술품과 유물을 관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왕부정가와 같은 청왕묘 옛거리도 가며 여러 물

건들도 구경할 수 있었으며 저녁에는 상하이 서커스 관람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래, 작년까지는 한국 국제 교류단이 4박 5일이었지만 5박 6일로 바뀌어 또 한밤을 잘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참 행운아 인 것 같았다. 나는 이번 국제교류단에서 많은 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형들과 누나들과 사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해외의 과학 기술과 학교의 모습을 알 수 있었고, 중국의 문화, 역사, 문화재들을 직접 분수 있고 체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가 느낀 점은, 중국이 아주 못살고 더럽고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 했었는데 이번 교류 단을 통해서 중국은 정말 깨끗하고 매우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 되었다. 곳 곳 마다 경찰이 서 있었고, 정말 한 번도 거지들을 보지 못했고, 소란스럽지도 않고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고 아주 평화로운 나라라고도 생각되었다. 또한, 중국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중국의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도 매우 놀라웠다. 중국 학교에서 본 학생이 내가 호텔에서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깜짝 놀랐다. 그리고 틈틈이 운동도 하는 모습도 보아 건강에도 아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하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은 상하이에서였는데 그 마지막 날이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 상하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도시이고 그곳의 명물인 동방명주타워에 가서 상하이의 전망을 볼 있었다. 상하이는 세계의 경제도시라고 할 만큼 발전했고 건물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의 63빌딩처럼 아주 높고 아주 다양한 구조로 건물이 지어져있어서 매우 인상 깊었다. 상하이에서도 상하이 과학기술관을 견학하고 저녁에는 가장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었다. 유람선을 타고 상하이의 야경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야경은 정말 머릿속에 잊히지 않을 만큼 매우 멋있었다. 모든 건물들이 조명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정말 중국은 넓고 멋진 나라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은 가고 내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모두 헤어질 시간이 돌아왔다. 전국 곳곳에서 떨어져 살아서 다음에는 거의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서운 하지만 요즘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화, 문자 그리고 화상통화를 하고 이메일로 통신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나는 모두와 함께 내년에도 다시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기회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자연관찰탐구대회 금상 수상)

새롭고 유익한 경험, 중국 견학

광주 유촌초등학교 5학년 김정인

3학년 때쯤 홍콩과 심천에 가보긴 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에 오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르는 나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였다. 항상 여행은 가족들과 함께 가왔기에 더욱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군데 견학도 하면서 이 크고 넓은 나라에 대해서 뭔가 더 알게 되고 새롭게 유익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언니 오빠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있었다.

11월 22일 월요일, 중국에서의 첫 번째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전날 묵었던 숙소를 빠져나와 인천국제공항에 집합했다. 그리고 함께 단체 사진도 찍고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과 인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학생과 학교 국제교류단'의 발대식을 마쳤다. 그리고 출국 수속을 밟은 후에 9시 45분쯤에 우릴 중국으로 태워다 줄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곳의 음식, 그곳의 환경, 그곳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친구를 못 사귄다봐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1시간이 조금 넘게 지났을까, 북경에 도착했다.

북경은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일컬어지는 3천년 역사의 고도이며 중국의 수도라고 한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온 만리장성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거리들이 무궁무진한 북경에 기대를 많이 하였다.

그렇게 중국 땅을 밟아보고 입국 수속을 마친 후에 시내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했다.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같은 5학년 지혜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천안문과 자금성을 관람하러 갔다.

자금성은 중국어로 “쯔진청”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며 전체 넓이가 22만 평이나 된다고 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포함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금성을 관람하러 와 있었다. 그때서야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지, 넓게는 중국이며 좁게는 자금성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이곳의 부분들, 중요한 공간들만 걸어서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

‘자금성’에서 산 황제들은 이곳에서 살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들은 이곳을 다 둘러보거나 했을까. 9백 99칸에서 한 밤씩 다 자보기는 했을까. 자금성의 웅장한 크기와 그 섬세함에 감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약 30여 분 간 버스를 타고 가서 인력거를 타보았다. 그리고 북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꾸밈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았다. 화려하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었기에 좋았다. 그리고 또 기름진 중국식의 저녁 식사를 하고 세미나실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 신준호 교육과학관님을 모셔 특강을 받았다. 그 분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과학과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 존경스러웠다.

특강이 끝나고 각자 방으로 가서 휴식을 가졌는데, 나의 룸메이트는 고등학교 2학년 ‘순민하’ 언니였다. 언니가 날 잘 챙겨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11월 23일 화요일, 중국 여행 두 번째 날, 아침 일찍 모닝콜로 힘들게 여차여차 일어나서 호텔 조식을 먹고 8시쯤에 버스에 탑승하였다. 그래서 30여 분 간 버스를 타고 중국 인민대학교 부속 소학교와 중학교를 갔다.



중국 인민대학교 부속 소학교에는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중 하나이다. 그곳에서 중국 어린이들과 어울려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는 게임도 해 보고 중국 어린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둘러보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중국 어린이들과 함께 한 게임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주고 그것을 이용하여 최대한 길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게임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일회용종이접시, A4 백지, 클립, 견출지, 이쑤시개, 연필, 고무줄이었다. 어떤 중국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원준, 새로 사귄 친구 지혜, 6학년 언니랑 한 팀이었는데, 우리가 더 길게 만들어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으로 인형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게임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중국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둘러보는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 어린이들이 직접 교실을 꾸미고 딱딱한 틀과 형식을 벗어난, 짹 짹 막힌 교과서와 공식을 벗어난 수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도 이러한 교육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특유의 향이 강한 느끼한 점심 식사를 하고나서 중국과학기술관을 견학하였다. 중국과학기술관에서는 우리가 과학의 원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서 신나고 재미있게 흥미로운 활동들을 많이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중국과학기술관의 현대과학기술실에서 '생물과 환경보호관'이 기억에 남고, 그곳에서 본 4D 영화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과학기술관을 만들어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시간 정도 관람을 한 후에 또 30여분을 버스를 타고 달려 왕부정가를 관람했다. 불거리, 먹을거리 등이 풍성했다. 저녁식사는 태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 이곳에서도 불거리와 먹을거리가 풍성하였다. 그나마 향이 덜했고 또한 식사하는 도중에 태가족들의 무용과 악기 연주를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사간담회를 가졌고 우리는 호텔에 가서 휴식을 취했다. 그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껴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1월 24일, 중국 여행 3일째다. 호텔에서 조식 식사를 하고 어김없이 아침 일찍 버스에 탑승하여 북경 제4중학교를 방문하였다. 북경 4중학교는 우수한 교학장비가 완비되어 있고 도서관에는 10만 여권의 장서를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과학, 바둑, 미술, 수영, 기악 등 30여개의 클럽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것 또한 참 부러운 일이다.



약 30여분을 또 버스를 타고 달려 중국항공박물관을 견학하러 갔다. 중국항공박물관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공전시관이라고 한다. 나는 비행기나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항공폭탄 같은 무기나 항공 기술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많은 종류의 비행기와 엄청난 스케일의 비행기들을 보고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점심식사를 하고 만리장성을 관람하러 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내가 직접 발을 디뎌본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사람도 많았다. 만리장성은 세계 8대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1만2천7백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이라는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모습은 크고



웅장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할 만큼 오싹하기도 하다. 그 거대한 명성을 만들기 위해 만리장성에 쌓던 사람들이 일을 하다 죽으면 그 자리에 묻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리장성을 올라가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시체를 묻은 곳을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저녁식사는 썸으면 기름밖에 안 나오는 북경오리를 먹고 상하이로 가는 기차에 탔다. 10시간 이상 기차 침대칸에서 선생님, 장원준 그리고 모세 오빠랑 같이 지내야 한다니 끔찍했지만 의외로 즐거운 면도 있었다. 그리고 그 좁아터진 침대칸에서 열댓 명이 모여서 마피아게임도 했는데 색다른 느낌이었다. 날 가르치려고 했던 그 언니오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그 게임을 알고 있었다. 언니랑 오빠들은 참 똑똑했다!

11월 25일 목요일, 그렇게 시끄럽게 하룻밤을 보내고 중국 여행 4번째 날에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먼저 호텔 조식을 먹고 노신공원을 관람한 후에 상하이과학기술관을 관람하였다.

상하이과학기술관은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은 나선형 비대칭의 거대한 유리구 모양이었다. 그곳에서도 흥미로운 체험이 많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우리가 자판기를 고장 낸 것이다. 소망이 언니, 지혜, 민하 언니랑 같이 다니다가 소망이 언니하고 민하 언니가 반 친구들 선물을 사가야 된대서 맛있고 싸면서 중국 느낌도 나는 (중국어가 적혀있으니까!) 자판기 젤리를 사기로 했는데 자판기가 소망이 언니의 5위안을 먹고 안 뱉어서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손짓 발짓 섞어가며 소망이 언니와 민하 언니는 44개의 젤리봉지를 샀다. 솔직히, 자판기를 고장 내 놓고 44개의 젤리 봉지를 사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이없었을 수도 있다! 아니, 보통 사람이면 분명 어이없어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상하이과학기술관에서 자판기 소동을 벌이고 청왕묘 옛거리를 갔다가 저녁식사를 하고 상하이서커스를 관람했다. 1시간 30여분동안 이어진 서커스였는데 잠깐씩 줄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신들린 기예와 유연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소망이 언니와 지혜네 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잤다.

11월 26일 금요일, 사실상 '여행'으로서는 마지막 날이다. 동방명주타워를 관람하고, 남경로 시청광장, 임시정부청사와 상하이박물관을 견학하고 외탄

야경을 관람하였고 학생소감발표회를 했다.

동방명주타워는 방송 관제탑인데, 그 높이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파리 에펠탑의 18배인 4백 68m라고 한다. 이 수신탑은 모두 크고 작은 11개의 구로 이루어졌고 황포강은 옥쟁반을 상징하여 크고 작은 진주가 옥쟁반에 떨어지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 이라고 한다. 여기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 층에 오른 모습은 정말 멋졌다. 특히 바닥이 유리로 된 전망 층은 아찔하면서도 내 발 밑에 상하이가 있다니 레고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과학상상화 속에서 보던 미래 도시 같았다!

또 그날 기억에 남은 것은 외탄야경이었다. 밤의 상하이는 더 아름다웠다. 건물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울 뿐더러, 화려한 조명과 빛이 더해져서 정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학생소감발표회를 힘들게 마치고 오늘도 밤에 소망이 언니랑 민하 언니랑 지혜랑 같이 라면을 먹기로 했다. 그래서 커피포트와 컵라면을 들고 소망이 언니와 지혜네 방으로 가는데 지혜가 화장실에 간했다. 그래서 카운터에 사람을 불러다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 지혜 댄에서는 무서웠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웃긴 상황이었기에 모두가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웃으면서 넘기고 그 다음날 우리는 드디어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중국 특유의 향과 냄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이번 중국 여행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더 앞선 과학기술을 가진 중국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과 중국 어린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들의 교육 방식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고, 상하이와 베이징에서의 중국과학기술관도 매우 즐겁고 신나게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자연관찰탐구대회 금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 중국 탐방 기행문

광주 송원초등학교 6학년 박모세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광주에 사는 나는 버스를 타고 그 전날에 인천공항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다. 광주에서 자연관찰탐구대회를 하던 다른 동생들과 지도 선생님도 함께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모두 처음 본 사람들이라서 서먹서먹했었다, 하지만 금방 친해져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루를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가서 다른 과학국제교류에 참가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났다. 웬지 모르겠지만 평범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중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간 곳은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 이었다. 너무 많이 걸어서 발바닥이 아플 정도였지만,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서 옛날 중국의 건축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느꼈다. 자금성에서 나와서 인력거도 체험했는데, 골목길을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었다.

중국의 과학관과 박물관도 볼만 했다. 특히 북경 과학기술관에서는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분야별로 나누어 다양한 시각자료로 알려주어서 글은 읽지 못하여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항공박물관에서는 실제 크기의 비행기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우리가 잠을 자는 호텔에서도, 북경에서 상하이로 가는 기차 안에서도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생, 형, 누나들과 즐겁게 게임도 하고, 위성을 통해 나오는 우리나라의 방송을 보면서 편하게 잠도 잤다.

동방명주 건물에 올라갔을 때는 아찔하면서 신기하였다.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사람들의 힘과 지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과학관이나 박물관보다도 중국의 학교였다. 물론 다른 곳들도 재미있었지만, 학교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수준 낮게 말하던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과학교육을 받는 것을 보고 가까운 미래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쩌면 더 높은 과학 기술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이 미래의 인재 양성에 매우 힘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도록 기여하고 싶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이번 과학 국제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껴서 좋았고, 좋은 형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기뻐다. 경상도 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 경상도 사투리를 배워서 돌아오니 가족들이 나만 보면 웃었다. 그럴 때 마다 더욱 친구들과 형들이 생각났다. 중국을 돌아보고 탐방한 것도 좋았지만 미래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예비과학자들을 만난 것이 더 큰 보람이었다. 나 역시도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발달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한국과학창의력대회 최우수상 수상)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서울 경기초등학교 6학년 김재경

물건에 붙은 'Made in China' 라벨을 보면 거부감이 들었고 중국제라면 사용하기가 싫었다. 중국인들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그들의 문제점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2010년의 중국은 그 어떤 나라도 알보지 못할 만큼 환골탈태해 있었다. 큰 도로를 가득 메운 외제차와 발전한 과학기술은 부러울 정도였다. 나중에 가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그들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는 순간이었다. 국토 크기와 자원 량도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데,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큰 코 다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가장 먼저 우리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중국의 훌륭한 학교들이 아닐 수 없다. 학교의 훌륭한 시설과 교육 체계를 엄마게 보여드리고 중국 유학을 생각해보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런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은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존재들이다. 그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96배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와 주변 국가들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넘쳐나는 천연 자원을 만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다시 말해서, 작은 영토와 적은 자원으로 승부해야 하는 우리가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문화는 일본과 융합되고 서양에 물들며 점점 색깔과 개성이 흐려졌다.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별다른 것을 느낄 수 없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다. 그나마 많이 온다는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도 문화 체험보다는 주로 쇼핑을 위한 여행을 온다고 한다. 이런 점들 때문인지 중국의 자금성과 만리장성은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자금성을 거닐며 몇 개의 문을 지났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리장성에서 걸은 계단 수도 마찬가지이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곳, 화려한 고대 문화와 과학 기술을 이룩했던 곳, 그렇게 중국의 과거는 화려하다 못해 찬란하다. 그런 사실로 인해 중국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이 이루었던 그 문화를 그리워하는 듯 보였다. 나는 그런 중국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우월주의자들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중국 땅 곳곳에 면면히 존재하는 그때 그 화려한 역사는 인력거 위에서 바라본 북경의 전통 가옥들에도 묻어나 있었다. 한 채 당 50

억 원 이상을 호가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낡고 허름한 가옥들이었지만, 거주자들은 그런 집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안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왜 그런지 금방 알 것 같았다. 집 안에는 수 십 년, 수 백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옛 것들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말하자면 민속촌에 살고 있는 셈인데 그들이 왜 자랑스러워하지 않겠는가.

중국 여행을 다녀와서 세계 3대 음식 중 하나인 중국 음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독특하고 특이한 음식 문화는 나름대로 많은 문화들을 체험했다고 자부하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기름기가 찰찰 흐르는 고기 요리와 이름도 모를 자극적인 향신료를 대량으로 첨가한 두부 요리까지 뭐 하나 담백하고 삼삼한 한국 음식과 비슷한 것이 없었다. 자장면 비슷한 음식을 찾아 먹어 보았는데, 소스 맛은 하나도 나지 않고 밋밋한 밀가루 맛만 나서 실망하기도 했고, 생선도 무엇인지 몰라 선불리 먹어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중국 음식이 생각했던 만큼 내 입맛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들이 잔뜩 있어서인지, 아니면 룸메이트와 먹었던 컵라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음식이 꽤 괜찮게 느껴졌다. 딱 하나, 생수를 주지 않는다는 점만 빼고 말이다. 자극적인 중국 음식은 물 없이는 먹을 수가 없는데, 주는 음료라고는 기껏해야 차나 탄산음료가 전부이다. 하지만 그들의 차 문화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느끼한 고기 요리가 밥상의 주를 이루는 중국인들은 그 더부룩함을 달래기 위해 차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란귀인 차, 재스민 차도 익숙해졌다.

내가 중국에 오자마자 가장 많이 놀란 건 길거리가 외제차들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후진국이고 낡은 판잣집들로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하이의 동방명주 타워와 외탄 야경은 그 생각을 뒤엎어 주었다. 중국은 이미 눈부시게 발전해 있었고, 누구든 중국을 방문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뜨는 해'인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다.

태어나서 기차 여행을 몇 번 다녀오지 않은 나로서는 중국 기차에서의 하룻밤이 너무나 즐거웠다. 물론 샤워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몹시 괴롭기는 했지만 말이다. 중국인들이 쓰던 칸의 세면대에는 아무도 없고 우리가 쓰던 칸에는 한국인들이 줄줄이 서 있는, 양국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진풍경도 볼 수 있었다. 객실 내 침대는 보기와 다르게 안락했다. 게다가 텔레비전까지 바로 볼 수 있어서 두 배로 좋았다. 중국에 와서 그 날 밤 가장 잘 잔 것 같았다. 아마도 피로가 쌓여서였을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기차여행의 묘미 중 하나이다.

이 여행이 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마도 평생 친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들은 '과학'이라는 같은 관심꺼리를 공유하는 셈 아닌가. 서로 통하는 점들을 찾으며 친해지고, 어쩌면 지루했었을 수도 있었던 여행을 멋지게 장식해 준 것도 그 친구들이었다. 한국에서 그들은 단지 맞서 싸워야 할 '경쟁자'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서 느낀 '동료'라는 느낌은 참 오랜만이였다.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그렇기에 이번 여행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학생과학국제교류'를 다녀와서 중국의 과학기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여행의 성과가 없는 셈이다. 베이징, 상하이의 과학기술관은 그 동안 중국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그곳은 살아 숨 쉬는 듯이 생생한 모형들과 재미있는 체험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내가 가장 좋아한 체험은 기구를 타고 사람 입 모형 속으로 들어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보는 체험이다.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려 3번도 더 탄 것 같다. 그 외에도 지진체험, 운동 체험 등 여러 재미있는 체험들도 있었다. 하지만 박물관에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은 화성 탐사선과 인공위성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자타공인 IT 강국에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나로호 발사에 실패했는데, 아직 선진국 대열에는 진입도 하지 못한 중국이 벌써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할 수밖에 없었다. 신준호 주중 한국대사관 교육과학관님께서 알려주신 이 충격적인 사실이 전에 보았던 중국의 학교들과 겹쳐지며 나를 불안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학교들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교육받으면, 그 인재들은 중국의 과학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겠지. 그 과학이 이 풍부한 자원과 합쳐지면 중국은 상대도 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거야.'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건너 왔을 때까지도 이어졌다.

지금 벌써 중국을 다녀온 지도 수개월이 지났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가물가물할 정도이다. 하지만 딱 한 마디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으로는 신준호 교육과학관님께서 해주셨던 말이었던 것 같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과학탐구실험대회 최우수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 소감

경남 함양 위성초등학교 6학년 김태연

나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학생과학국제교류행사로 중국에 다녀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나또한 그저 중국이란 나라가 우습게만 보였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말 조사시찰단(신사유람단)의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라도 더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중국에 도착해서 떠나기 전 마음가짐은 다 사라지고 대륙사람들의 거대한 스케일에 입이 떡 버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곳은 상하이의 동방명주타워였다. 이 타워는 대략 117m정도의 전망대에선 상하이를 거의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타워에서 보이는 상하이 푸둥지구의 전경은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절대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이 동방명주타워의 전망대는 특이하게도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전망대에 가려진 밑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3cm인 특수유리라 총알까지 막을 수 있지만 나 같은 고소공포증 환자에게는 역시 조금은 무서운 것 같다. 동방명주타워의 외형은 매우 특이하게 생겼다. 총 11개의 구 형태와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전망대인 맨 위의 3개의 구는 루비처럼 멋있게 반짝였다. 낮에는 색이 조금 투박해서 반짝이고 하진 않았지만 밤에 동방명주타워 근처를 지나갈 때는 루비처럼 반짝여서 매우 인상적이었고 중국의 미래가 타워의 불빛처럼 밝게 빛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대한 인구에 걸 맞는 큰 시장이 있고 더군다나 기초과학, 우주과학, 군사과학 등의 분야는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편안한 의사 같은 직업보다 내 꿈대로 화학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수상)

영원히 잊지 못할 5박 6일의 추억

경남 함양 위성초등학교 6학년 한지연

“싫어 나 안갈 꺼야.”

“안 돼, 가기 싫다고 안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싫어 아프단 말이야.”

중국으로 떠나기 하루전날 밤 난 엄마에게 짜증이라는 짜증은 다 부렸다. 중국에 가기 싫었기 때문이다. 2010년 여름 빨간 펜에서 중국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정말 힘들고 아팠던 안 좋은 기억 때문이었다. 가기 싫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또 아프기 시작 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하지만 함양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당장 인천으로 오시는 건 무리였다. 그래서 아침 6시 쯤 인천공항의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교류활동에 참여 하게 되었다.

금색, 파란색의 단복은 확실히 눈에 띄었다. 여권과 표를 받고 짐을 붙였다. 이젠 가기 싫어도 안갈 수 없다.

‘에이 몰라! 그냥 가는 거지 뭐 별 수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올라탔다. 약 1시간 40분? 비행기에서 내내~~ 잠만 잤다. 눈을 뜨니 중국에 도착해 있었다. 이제 중국에 왔으니 불평안하고 즐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버스에 올라탔던 기억이 난다.

5박 6일 동안 다녀오고 나서 ‘이 교류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후회했겠지’라는 생각에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서 중국 여러 곳을 봤는데 난 기차에서 잠을 잤던 것과 야경을 본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KTX는 타보았지만 10시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기차를 타 본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기차가 조금 더 넓었더라면 더 좋았을 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상해에서는 야경을 봤는데 한강에서 유람선 탔을 때와 느낌이 달랐다. 상해는 야경이 더 멋졌다. 건물들 하나하나가 특이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강물은 정말 더러웠다. 꼭 색이 장국 같았다ㅋㅋ. 그 외에 과학기술관, 서커스, 만리장성, 왕부정가가 기억에 제일 남는다. 또 마피아 게임을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정말 재미있었다. 피곤했는데 게임을 계속하다보니 잠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좋았던 기억도있지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바로 ‘밥!’ 저번 여름

보단 덜했지만 난 샤브샤브만 빼고 음식을 입에도 대지 못했다. 냄새만 맡아도 바로 올라 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밤마다 라면, 햇반을 먹었다. 그래서 굶어죽지는 않았다ㅎㅎㅎ. 또 북한이 연평도에 미사일을 쏘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못가면 어찌지?’ 하는 걱정이 있었다. 이렇게 힘든 점도 있었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시험을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동안 놀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 잘 되지도 않았다ㅎㅎ. 이 교류활동을 하면서 좋은 친구, 언니, 오빠, 동생들을 사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고,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것을 보고, 느끼고 직접 체험했던 좋은 경험이었던 이 ‘학생과학국제교류’행사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 소감

대전 도마초등학교 6학년 이도현

새벽 3시 경에 일어나 인천공항에 도착해 중국으로 떠날 때 무척 설레었다. 처음 중국에 도착해서 먹었던 점심은 입에 맞지 않았다. 국제 교류 내 음식 때문에 고생했던 것 같지만 그것도 추억으로 남는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 장소는 자금성, 만리장성,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관, 중국 인민 대학 부속 중학교, 인력거 투어 등이었다.

자금성은 약 72만평 정도로 아주 넓었다. 22일 날 매우 추워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자금성의 풍경은 멋있었다.

황제의 화원인 어화원도 보고, 408개나 되는 방화수를 채워 넣었다는 항아리도 보았다.

인력거도 타보았다. 인력거 투어도 무척이나 재미있었다. 직접 사람이 끄는 건 줄 알았는데 자전거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다. 인력거를 타고 황제가 선사했다고 하는 집을 방문했다.방문했던 집의 특징은 사방이 모두 막혀있는 구조로 되어있었다.



북쪽에 있는 방은 주인이 쓰고, 서쪽과 동쪽은 딸과 아들이 산다고 한다. 이곳이 약100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가로 50억 원이라고 한다. 사방이 모두 막혀있는 것을 보아 외부에 자신을 드러내놓는 것을 싫어하는 중국인의 습성을 알 수 있었다. 인력거 투어를 마치고 왕부정 거리도 갔었다.

우리나라 임시 정부가 있던 상해에서는 임시정부 청사 전시관, 상해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 가볼 수 있었다. 윤봉길 기념관은 노신공원에 위치해 있었고 '매헌'이라는 정자를 보았다. 이 정자는 윤봉길의사의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의거 장소에 건립한 것이라고 한다. 임시정부와 기념관을 관람하면서 다시 한 번 애국 열사 분들께 고마움을 느꼈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수상)

이웃나라 중국을 다녀와서

대전 도마초등학교 6학년 박혜아

지난 11월 22일 저희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중국이라는 이웃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음식에 적응이 되지 않아 배를 채우지 못해 친구가 싸온 컵라면을 빼앗아 먹곤 했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전 적응이 빨리 되어 음식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5박 6일 동안 다니면서 보니 규칙과 언어 등 더욱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어 영어를 사용 했지만 저희의 영어 실력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교통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가서 '교통 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도로에 화살표가 있어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인력거를 타고 주택가를 둘러보았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한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날을 마치고 둘째 날에는 여러 학교와 과학기술관, 왕부정가를 관람했는데 이날 관람 한 것 중에 저에게는 과학기술관이 제일 재미있고, 아쉽고, 신기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탓에 자세히 관람하지 못한 것 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셋째 날에는 웬만큼 중국에 적응이 되어 호텔에서 먹는 아침 빼고는 모두 저의 입맛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 친해져서 심심하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첫 날의 모든 신기하던 건물과 거리들이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만리장성에 제 발자국을 남긴다는 게 좋았기도 했지만 더 좋았던 것은 그 날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케이블카를 타지 못했던 것이 저에게 더 많은 성취감과 기쁨을 안겨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리장성을 관람 한 후 호텔에서 짐을 챙겨 상하이에 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건 처음이기도 해서 마냥 신나기만 했는데, 2층에서 잤던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덜컹덜컹 할 때마다 머리를 천장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난 혹과 함께 상하

이에 도착 했는데 북경의 날씨보다 훨씬 따뜻한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는 땀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노신공원과 임시정부청사를 견학 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임시정부청사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구경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람을 했는데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우리의 조상들께서 참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날은 정말 슬픈 일도 있었지만 상하이 서커스를 보면서 침울했던 마음이 다시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전거요기, 오토바이 묘기, 모자 묘기 등 아주 많은 묘기 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지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신기한 서커스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중국에서의 5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동방명주타워는 목을 완전히 뒤로 굽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로 높았는데 이런 동방명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올라가 100m가 훌쩍 넘는 높이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아래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더욱더 아슬아슬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동방명주에서 내려온 후 남경로 시청광장과 상하이과학기술관을 관람 한 후 중국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러 유람선을 타고 외탄야경을 관람하였습니다. 여러 빛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반짝 거렸는데 그 불빛 속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이 나오는 광고도 볼 수 있어 우리나라 한복이 꽤 유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중국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며 그동안 친해 졌던 언니, 친구들과 함께 늦은 밤 까지 놀기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5박 6일 일주일동안 많은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중국에서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여행은 엄마, 아빠 가족이 아닌 언니, 오빠, 친구, 동생, 선생님들과의 여행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참여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를 다녀와서

경북 포항 죽도초등학교 6학년 함윤식

한국과학교육단체에서 주최하는 학생과학국제교류에 참가하게 되었다.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에서 상을 타고,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오오오! 상을 타게 되면 학생과학국제교류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적인 엄청난 전류의 휩싸임에 환각증상이 일어났다. 바로 중국에 갈 채비를 싸고 싶었고 너무 설레고 기뻐다. 기간 예정은 4박 5일이었지만 5박6일로 늘었다. 너무 기뻐다. 오! 주여

하지만 학생과학국제교류는 시간이 갈수록 내 머리 속에서 잊혀져갔다. 결국, 학생과학국제교류 가기 전날 생각이 안나 짐을 못 꾸릴 뻔했다.

첫째날이라고는 좀 뭐한 그런 날: 저녁 11시. 밖을 보니 캄캄했다. 뭔가 설레는 느낌이 없었다. 가방 안에 넣어둔 고추장이 먹고 싶어졌지만 이를 닦았는 것을 생각하여 참았다. 짐을 싸면서 두 번째 해외여행인 중국이 구리구리하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감기나 안 걸려서 오면 다행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의식 상태로 수면하듯이 눈뜨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제대로 된 첫 켄날: 새벽 한시, 중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다. 옷을 그렇게 많이 입지 않았는데 버스에 타니 더웠다. 계속 휴게소에 들리면 어떻게 구경할까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인천공항에서 탈 비행기의 좌석중 창가자리에 앉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봤다. 그리고는 기대하던 휴게소에서 "으 추워" 라고만 말하고 돌아와서 자리에 누워서 잤더니 어느새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인천공항에 서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c b c d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출국수속을 받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과학국제교류단은 가장 마지막인 M 카운터에서 만나기로 하였었다. 사람은 반도 안 와 있었고 심심해서 인천국제공항도 구경할 겸 온 곳을 누볐다. KFC에서 햄버거도 먹었는데, 구경을 어느 정도 하고 나니 어느새 시간이 되어 M카운터로 돌아갔다. 비행기 표를 받고 출국수속을 끝낸 뒤에 면세점에서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을 보며 군침을 흘렸다. 가격이 비싸 구입하지는 못하고 계속 초콜릿 생각만 하며 비행기에 탑승했다. 오!! 창가자리였다. 정말 행운이었다. 기쁜 마음과 함께 주위를 둘러봤더니 내 옆에는 키가 엄청 큰 5학년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기내식을 평가하고 비상

시에 먹을 빵도 챙겨갔다. 중국에 도착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정말 끔찍한 만두집에 도착했다. 당근만 들어있는 만두도 있고, 도저히 이 건 아니다 싶은 만두가 많이 있었다. 갑자기 기내식이 급 그리워지며, 만두를 억지로 먹었다. 난 7개의 만두를 먹고 2개는 뱉었는데, 그마저도 맛있는 만두였다고 한다. 만두를 먹은 뒤 저녁이 궁금해지며 자금성에 도착했다.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인 자금성에는 마오쩌둥의 사진이 크게 붙어있었다. 그리고 문이 한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도 들어가도 계속 거대한 문이 나왔다. 자금성은 일본의 암살자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데, 실제로 나무는 거의 없었다. 또, 직접 보진 못했지만 황제가 사는 곳에는 지붕을 금으로 도금해 놓았다고 한다. 직접 가보니 확 느껴지는 스케일이 확실히 우리나라의 문화재와 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성이, 황제의 권력을 알게 해 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자금성을 다 돌아본 뒤, 인력거를 타고 북경골목에 도착했다. 중국에서 파는 맛동산과 고래밥도 먹어보았다. 우리나라 과자보다 맛있는것 같았다. 그리고는 저녁을 먹은 뒤, 북경 호텔에서 짐을 풀고 특강을 들은 뒤 피곤해서 빠르게 잤다.

둘째 날: 아침6시, 웬 전화기가 따르르릉 울렸다. 전화를 받으니 웬 아줌마가 중국어로 일어나라는 말을 했다. 벌써 아침이라니 웬지 기쁘진 않았다.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잠시나마 쉬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다. 들어가려고 하니 중국인 아줌마가 날 막았다. 난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뒤따라온 룸메이트 형이 식권을 여유롭게 내미는 것을 보고 식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인 아줌마가 아까전과는 달리 인자롭고 자비로우며 평화로운 눈빛으로 날 들어 가라는 듯이 말했다. 식당에 들어가고 호텔인데도 맛있는 밥을 먹은 뒤 버스에 탑승했다. 이날에는 학교들만 줄곧 둘러보았는데, 북경 중에서도 유명한 학교들만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학교들보다 외부에서 보이는 면에서 들은 약간 오래된 느낌을 주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실내는 깨끗하고 과학전용 층도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좋은 시설로 과학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였다. 이런 학교에 다니게 되면 중국 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 북경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고, 일반 학교들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도 한번 이런 학교에 다녀봤으면...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렇게 인민대 부속 소, 중학교를 둘러본 뒤 너무..... 진짜 맛있는 점심밥을 먹고 (가는 식당은 매번 다른데 먹는 음식은 매번 똑같은 것 같다) 북경과학기술관에갔다 거기서 내

생애 처음으로 4D영화를 봤다. 덜컹덜컹 거릴 뿐만 아니라 물도 분사되고 갑자기 멈추는 급제동도 하였다. 재미있는 영화를 본 뒤, 과학시설물들을 둘러보았다. 정말 재미있는 과학체험시설이 많았지만 설명이 죄다 중국어라서 알아먹질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줄에서 자전거를 타는 공중체험활동이 가장 재미있었다. 중간쯤 가면 힘을 많이 줘야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학기술관을 다녀온 뒤, 왕부정가 관람을 하였다. 전갈튀김....생전갈..... 매미튀김.....등등 을 팔았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토할것 같았다. 내 룸메이트 형이 엄청난 용기로 전갈튀김을 먹었다.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담았는데 아직 봐도 징그러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 으어어렘 어쨌든 이곳에서 물건가격을 낮춰서 구입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해 보았던 곳이 된 것 같다. 왕부정가 관람 후 언제나 끔찍한 저녁식사를 먹고, 피곤하게 호텔로 가서 4층에 편의점이 있다는 문구를 보고 4층으로 갔다. 그러나 실제로 편의점은 지하 1층에 있었다. 난 거기서 껌을 2개 사고, 내 룸메이트 형은 기념품으로 프링글스 감자칩을 하나 샀다. 우리나라와 별 차이 없는 가격이었고, 2개 사면 하나 끼워 준다는 것 같은 말을 상업원이 하자 형은 고민했다. 오호!! 덕분에 나는 더 많이 구경할 시간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중국 편의점을 쫓 둘러본 뒤 숙소로 돌아오고, 이동할 짐을 싣 후에 어제와 같이 빠르게 잠들었다.....

.....가 추워서 온도를 30도로 맞추고 잤다. 근데도 추웠다. 버스에서 숙소가 추운사람 손들라고 할 때 들걸..... 별별별별별별

셋째날: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콜이 울렸다 오늘을 북경을 떠나서 상해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짐을 싸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학교를 다녀왔는데, 어제와 달리 인민대학 부속이 아닌 북경 제4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여태까지 둘러본 학교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았다. 자동차 가상 조종기도 있었고, 최고급 컴퓨터정보실도 있었다. 여기 또한 과학교육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 같았다. 엄청난 스케일이 느껴지는 제 4 중학교를 방문한 뒤 항공박물관에 갔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시관과 엄청나게 많은 항공기와 자주포, 탱크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실내 항공 전시관에도 진짜 비행기와 전투기를 건물 안에 어떻게 집어넣고 매달았던데,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궁금할 정도였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건축물인 만리장성에도 가보았다. 경사가 급한데도 계단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올라갈 때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다. 높이도 사진으로 봤는 것 보다 훨씬 높았고, 매우 정교했다. 또한 만리장성의 실제길이는 6000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필요했던 인력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이 갔다. 만리장성에서 체력소모를 심하게 하여 배가 많이 고파 모처럼 맛없지는 않는 저녁을 먹었다. 오늘은 호텔에서 취침하지 않고, 기차에서 취침한다고 하였다. 기차는 일반적으로 의자가 있는 기차가 아니라, 방이 있는 기차였다. 방 안에는 2층침대 두 개가 있었는데, 나는 2층에서 잤다. 방 안은 1등실이라서 그런지 시설도 좋고 부가기능도 많았다. 피곤하여서 이를 닦고 2층 침대에서 TV를 시청하면서 느긋이 잤다.

넷째 날: 아침이 되니 옆에 같이 자던 아이가 날 깨웠다. 꼭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어나니 5분도 안 잔 것 같았다. 피곤한 체로 기차에서 내려 버스로 집을 옮겼다. 버스 외관이 겉에서 볼 때에는 북경에서 탔던 버스보다 좋아 보였는데, 실내는 별로였다. 버스를 타고 상해를 구경해보니 북경보다는 훨씬 발달되고 높은 건물들도 많았다. 실제로 인구수도 상해가 더 많고 북경보다 발달되었다고 한다. 제일 먼저, 아침밥(양식이어서 그런지 꽤나 맛있었다)을 먹고 노신공원을 관람하였다. 노신공원은 윤봉길 의사 선생님이 일본천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곳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설명하는 가이드분은 한국말로 능숙하게 설명해주셨다. 두 번째로는, 청왕묘 옛거리를 견학하였다. 처음에는 옛거리라고 하길래 엄청 오래되고 낡은 거리인줄 알았는데 완전 변화가였다. 사람들도 북적 북적대고, 상인들과 가게들도 몰려있었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전문점까지 있을 정도로 세련된 곳이었다. 왕부정가와는 솔직히 비교도 안 되었던 것 같다. 규모도 엄청 컸다. 중국에 다시 온다면, 꼭 또 들리고 싶다. 청왕묘 옛거리 관람 후에는, 상하이 과학기술관으로 갔다. 내가 다녀온 과학기술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다. 실제로 동굴과 숲 등을 표현한 곳도 있었고,(규모도 매우 컸다) 인체탐험 놀이기구도 있었다. 로봇들이 공연을 하는 것들도 보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과학 활동들도 하였던것 같다. 로비에 있는 자판기에서 어린이 열굴이 그려진 음료수를 먹어 보려고 했지만, 비싸서 구입하지 않았다. 상하이박물관 관람 후, 마지막으로 내 주관적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상하이 서커스를 봤다. 그 중에서도 지권묘기가 가장 재미있었는데, 정말 화려하고 멋졌다. 실수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웃겨서 좋았다. 10분같은 한 시간이 지나가고, 호텔에 도착했다. 시설은 북경호텔보다 약간 떨어졌고, 편의시설도 없었지만 피곤한 터라 호텔 구경도 하지 않고 바로 잤다.

다섯째 날: 아침에 늦잠을 자서 밥을 못 먹었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더니..... 많이 걷는 곳이 나오면 미칠 것만 같았다. 이날에는 첫 번째로 세계

에서 3(곧 4번째로 밀려난다는군요)번째로 높은 건물은 동방명주타워에 다녀왔다. 밖에서 보면 별로 높아보이지 않는다. 실망을 가득 안고 건물 안에 들어섰다. 올라갈 때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탔다. 1초에 몇십 m를 올라갔지만 일반 엘리베이터를 탈 때보다 편안했다. 신기할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 느낌도 안 났다. 30초도 안돼서 약 400m 지역에 도착했다.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빨리 올라왔다는 느낌이 든다. 거의 모든 건물들이 훨씬 낮아보였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차들도 깨알같이 보인다. 저 멀리 상하이세계무역센터가 보였다. 동방명주타워보다 유일히 더 높아 보인다. 시간이 되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임시정부청사를 견학하였다. 생각보다 작고 아담했다. 사용했던 도구들이 남아있었다. 진짜 인지는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치지도 않고 조심히 걸었다. 김구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니 웬지 신기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 김구선생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조국을 위해 노력하신 김구 선생님이 새삼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임시정부청사를 견학하고 점심을 먹은 후 상하이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규모는 컸지만, 설명이 전부 다 중국어라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념품을 사고 원카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루한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마지막 관람인 상하이 외탄야경을 관람하였다. 배를 탔었는데, 때문에 춥기도 했지만 외탄야경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화려했고, 엄청나게 조명이 화려한 건물도 있었다. 진짜 멋졌다. 이것이 중국의 마지막 관람이라는게 아쉬웠다. 외탄야경 관람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호텔로 돌아가 마지막 밤을 보냈다.

6째날: 공항으로 가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다. 친구들과 원카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비행기에 타고, 엄청 엄청 엄청 맛있는 기내식을 먹고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친구가 초콜릿을 사줬는데, 엄청 맛있었다. 최근 6일간 가장 맛있었던 식품이었다. 후아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하고 버스에 탔는데, 흠... 저녁 11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하였다. 어쨌거나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해방이다 만세!! (모처럼 푹 자겠구나...)

(과학동아리발표대회 최우수상)

중학교 학생 소감문



국제교류를 다녀와서

경남 진주제일중학교 1학년 심선보

한국과학창의력대회에서 상을 타게 되어 국제교류에 참가하게 되어 중국을 가게 된다 하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한 달 전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항에 도착하니 중국에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비행기를 탄다는 마음에 기쁘기도 했지만 6일간 집을 비운다는 생각과 주변에서 중국이 무서운 곳이라고 자주 말을 하니 걱정도 어지간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심이 교차하면서 중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시설도 깔끔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공항 안에는 놀랍게도 열차까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진짜' 중국을 뵈어보았습니다. 한국과는 세삼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한국보다 그 규모가 더 컸습니다. 여하튼 버스를 타고 천안문, 자금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천안문을 보자 중국의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도록 크고 길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진주성은 뛰어서 넘을 수 있는데 자금성과 천안문은 넘기는 커녕 아파트만 하였습니다. 게다가 넓이는 축구장 수 십개를 합쳐놓은 것 같아서 걸어가는데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학교에 가보았습니다. 대학교, 중학교 그리고 '소학교'라 불리는 초등학교에 가보았습니다. 아마도 북경대학교만 보아도 다른 학교도 중국에서 알아주는 학교들인 듯 하였고 우리들이 간다고 준비를 조금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학교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중국이라고, 경제수준이 떨어진다고 더럽다고 학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재다능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여러과목을 가르치되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중국이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 미국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책으로만 보았던 만리장성 또한 가보았습니다. 달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을 직접 걸으면서 그 스케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과학관과 관광명소도 다녀왔습니다. 여러 먹거리, 명동 같은 곳에 가보았는데 변화한 중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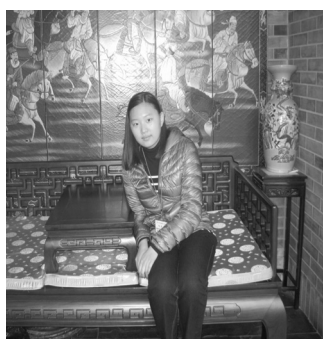
이번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감기로 고생도 많았지만 친절한 일행들, 선생

님들, 여행사 직원 덕분에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놀아준 동생들과 형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여행을 지원해주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해주신 한국과학총연합회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이만 마칠
까 합니다.

(한국과학창의력대회 최우수상 수상)

광활한 대륙, 중국 속에서 내 민족의 숨결을 느끼다

서울 숙명여자중학교 1학년 석민경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내 코끝을 간질이는 선선한 바람. “어우, 여기도 춥네. 겨울이 맞긴 맞나보다.” 익숙한 이 느낌이 그리 낯설지 않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제일 먼저 반겨준 것은 뻣뻣한 제복을 입은 무뚝뚝한 세관들이었다. 여권사진의 나와 진짜 내가 일치가 잘 안되던지 중국어로 여러 가지를 지시한 뒤에야 공항에서 내보내주어 약간 나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금성. 멀리서 보아도 그 붉은 화려함을 뽐내는 자금성과 천안문은 사람들이 ‘중국’하면 으레 떠올리는 것처럼 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문 넘어 문이 첩첩산중인 자금성을 넘나들며 어마어마한 중국 땅의 넓이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탄성을 내지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아주 커다란 술들이 덩성덩성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황제가 여기에서 목욕이라도 했나? 아니면 설마……. ’ 가이드 선생님이 나의 추측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이나 해주려는 듯이 “이 큰 술 보이시죠? 황제는 평상시에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다가 목재로 만든 이 건물들에 불이 나면 물을 떠다 부었다고.” 라고 말씀하셨다. 그야말로 대단히 꼼꼼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황제였다. 아니면 소심한 황제였다!

겹겹이 쌓인 거대한 자금성의 문들이 찬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는지 거리로 나아가자 찬 기운이 온 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런데 이런 추위조차 잊어버리게 할 만큼 재미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력거였다! 우리나라 1960년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인상을 주는 인력거와,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이는 인력거꾼은 정말 상상 밖이었다. 뼈저덕거리는 인력거에 타서 너무나 가까이 지나쳐간 바깥세상을 보노라니 옛 사람들의 정을 문득문득 느낄 수 있었다.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으며 손까지 흔들어주는 중국 학생들부터 빨래를 널어놓던 아주머니들까지 서민적이고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친근한 중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은 왕부정가에서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전갈 튀김에서부터 도마뱀 구이까지. 먹을 것 못 먹을 것, 그야말로 책상과 의자 빼고 다리 달린 것은 모두 모아놓은 듯한 느낌의 왕부진 거리에서도 중국 특유의 소박하지만 웬지 모를 압도적인 웅장함까지 느껴졌다. 실험정신과 도정정신이 약간 부족한 나로서는 전갈을 먹는 몇몇 남지아이들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역시 이래서 큰 나라의 아기자기함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Ni hao. Wo shi Hanguoren. 내가 할 줄 아는 몇 마디 안 되는 중국어들을 모두 통합 머리를 쥐어짜내어 중국 인민대 부속 소학교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 보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능숙한 영어로 대답을 해왔기 때문! 그래서 나도 유창한(?) 영어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보았다. 학교에 관하여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어볼 좋은 기회도 있었다.

우리가 흔히 약간 지저분하고 낮게 보는 ‘중국’인지라 중국 교육의 수준도 훨씬 낮을 거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위험한 고정관념일 뿐이다. 중국의 인민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북경 제 4중 등의 명문 중학교들은 150여개의 과목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으며, 방과 후에도 스스로 동아리 활동을 하며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모든 학습은 선생님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무조건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의 지적 욕구를 충족해나가는 형태의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개척해나가려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개성과 개개인의 창의성을 인정해줌으로써 학교, 더 나아가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발전이 전 세계가 놀랄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러한 중국의 교육방식과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을 하나하나 찬찬히 비교해보면서 현재의 교육방식 중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스스로 탐구하여 문제 해결하기, 자율적으로 공부하기, 학생 각각의 창의성을 인정하여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이러한 점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완벽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내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곱씹어 보고 있을 때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가 중국에 있는 동안,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을 했다

는 뉴스였다. ‘대한민국 전체가 위협으로 술렁이며 초긴장상태에 놓였는데, 난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다. ‘후~’하고 한숨을 내쉬며, 정말 외국에 나가있으면 애국자가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하고 있었다. 웬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과 함께 갑자기 감동의 물결이 솟구쳐 오르는 듯했다. ‘아, 당당한 내 조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조국도 없이 정치 없이 떠돌며 독립운동을 했을 독립투사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아릿하게 저러오며 눈물이 눈가를 축축이 적셔 움을 느꼈다. 괜스레 두손을 불끈 쥐고 마음속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쳐본다.

중국은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놀라움의 연속인 나라이다. 첫날에는 자금성의 거대한 압도당했다면 이번에는 중국 과학 기술 발전의 양상과 그 엄청난 유물을 담고 있는 박물관의 크기에 압도당했다. 그 길디긴 역사의 흔적을 죄다 굽어모았으니 그럴 법도 하지만, 그래서인지 웬지 조금의 허점을 찾고 싶다는 심술궂은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그렇게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방을 잘 살펴서였을까. “야호! 찾았다, 오타!” 박물관의 유물에 관한 설명에서 오타를 세 개나 찾아낸 것이다. 나의 환호성에 화들짝 놀라는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을 보고 승리감을 느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것 같기에 증거사진도 몇 장 포착해놓고서야 마음이 후련해진 나였다. 박물관 정문을 나오면서 이번 견학에서는 중국의 거대한 역사와 더불어 그 속의 자그마한 허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마냥 뿌듯해하였다.

마지막으로 한편의 영화와 같았던 나의 중국여행의 마지막 장을 장식한 것은 바로 아름다운 동방명주와 황포강 외탄야경이었다.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몇 백 미터 아래부터 저 멀리 황포강 유역까지 360° 다 보인다는 그 유명한 동방명주! 고소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은 벽에 착 달라붙어있었지만 이런 호기심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나는 유리바닥을 사뿐히 걸어보았다. 발아래로는 중국의 거리들과 주요건물들이 한 눈에 보였기 때 그 신비로움이 더해졌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는 발아래로 보았던 황포강 풍경을 유람선을 타고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아름다운 네온사인들이 조화를 이루며 그 사이로 보인 형형색색의 동방명주. 화려한 색이 쉬지 않고 변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강바람을 맞으며 뱃머리에 서있던 우리는 그 황홀함에 넋이 나가 버렸다. 그 광경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새겨져 남아 있다.

중국! 작년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심화반 캠프 때 한 번 가봤지만 보면 볼

수록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가득한 나라다. 이 넓디넓은 중국을 사람들이 왜 “나라가 아닌 대륙이다”라고 하는지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소박하고도 거대하며 수수하면서도 웅장한 압도적인 국가, 중국. 여기서 남겨갈 수 있었던 수많은 추억들과 더불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웠던 친구들과의 시간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언제나 포근하게 날 맞아주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며, 이런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들, 부모님, 친구들, 언니, 오빠들, 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두 고맙습니다!

(자연관찰탐구대회 최우수상 수상)

중국은 넓고 나의 꿈도 넓다

서울 숙명여자중학교 1학년 이도연

민경이와 나는 전국 자연관찰탐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중국으로 과학 교류 연수를 가게 되었다. 자연관찰탐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즐거웠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처음에 난 그 대회를 나갈까 말까 하다가 초등학교 때에도 나가 본 경험을 살려 용기를 내어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학교 대표인지라 많은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민경이와 같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더 컸었다. 밤늦도록 우리들끼리 재미있게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중국에 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약간의 걱정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다는 그 기대감과 즐거움이 걱정을 몰아내고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하다가 말고 ‘중국에 가서 무엇을 할까?’하고 설레기도 했다.

중국으로 가는 22일 월요일인 당일 날! 나는 풍선처럼 부풀어 기대감에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갔다. 공항으로 가서 모든 사람이 모인 후 같이 발대식을 하고, 출국수속을 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5박 6일 동안 중국에서 추억을 만드는 날이 되었다.

일단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갔다. 지도에서 볼 때 엄청난 대지와 인구수를 떠올릴 때 중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깨끗하고 공기도 한국과 다를 바가 없었다. 중국어로 쓰인 간판만 없으면 한국어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우리는 바로 시내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였다. 중국 음식은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직접 먹어보니 꽤 괜찮았다. 점심식사 후 명,청 두 나라의 황궁이었던 자금성과 천안문을 보았다. 천안문에 걸려 있는 초상화는 마오쩌둥의 초상화이다. 그는 베이징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다고 한다. 자금성의 전체넓이는 22만평이고, 건물은 9천9백99간이라서 웅장하였다. 컸기 때문에 많이 걸어야 했지만, 자금성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구경하고 감탄하느라 발이 아픈 줄도 몰랐다. 처음엔 우리나라 고궁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거대한 크기에 부럽기도 했지만 웬지 우리 고궁의 고즈넉한 운치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렇게 자금성을 관람한

후 우리는 ‘운수 좋은 날’에서 나오는 인력거를 몸소 체험해 보았다. 인력거가 바람막이가 없었기 때문에 추웠지만 편안하고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인력거를 끄는 아저씨가 친절해서 좋았다. 이제 겨우 두 개의 건물과 인력거를 체험하고 구경했는데 벌써 하루가 지나갔었다.

둘째 날은 중국인민대 부속 중, 소학교를 갔었다. 그곳은 우리 한국과 교육방식이 달랐다. 먼저 항상 영어수업이 들었고, 여러 가지의 과목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은근히 그 학교가 부러웠다. 그리고 소학교의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고 귀여웠다. 그렇게 학교 구경을 마치고 중국과학기술관을 견학하였다. 그 과학기술관에는 생명과학이나 기계, 수학이나 기초과학 등이 전시되어있었다. 그곳에서 4D도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중국의 과학기술도 이렇게 많이 발달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도 많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과학 기술관을 보면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신문에서도 전 세계 학생들의 학력평가에서 최 상위권은 중국이 1위를 했다는 건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먹거리 골목인 왕부정거리를 갔었다. 그곳에서 책으로만 보았던 식용전갈이나 매미유충 그리고 지네를 보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중국의 식용문화를 보니 신기하였다.

셋째 날은 가장 먼저 북경 제 4중학교를 방문하였다. 그곳은 103년이나 된 공립학교이다. 또 90여 년간 30000여명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고 한다. 정말로 대단한 학교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항공박물관으로 견학을 갔다. 중국이 항공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중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만리장성! 실제로는 만 리가 아니고 1만 2천 7백km이다. 굳이 만리라고 붙인 이유는 그만큼 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다. 실제로 보니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이 붙일 수 있을 만큼 길었다. 안타깝게도 추워서 많이 가보지는 못하였다. 긴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이제 우리는 북경 역으로 이동하여 상하이로 기차(?)를 타고 간다. 한 칸에는 두 개의 이층침대가 있는데 은근히 편했다.

넷째 날에 상하이에 도착하고 나서 노신공원을 관람했다. 노신공원은 홍콩 커우 공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곳에서 윤봉길기념관에 갔었는데 그곳은 2003년 12월 4일 개관하였으며, 윤봉길의사의 출생부터 홍콩공원의 거 전후의 사적을 보여주는 유품과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상하이 과학기술관에 동물모형들이 많았는데 실감나게

해놓아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청왕묘 옛거리도 관람하였었다. 그곳에서 목걸이도 만들었는데 잃어버려서 많이 아쉬웠다. 서커스도 관람하였는데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유연하고 잘해서 소름이 돋았다.

드디어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오일 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만 같다. 동방명주를 샀었는데, 얼마나 높던지 올라갈 때 귀가 멍해졌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탑이라고 할 만한 것 같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자주독립성을 느낄 수 있는 임시정부청사를 견학하였는데, 그곳에 가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땀을 흘리던 우리 선조들의 영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또는 발해의 우리 옛 영토가 현존한다면 우리도 넓은 영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과 함께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더군다나 우리가 중국에 머물고 있을 때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서 마음이 복잡했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과학자 한 사람만 나와도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의 끈을 채기고 중국 교류에 참가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힘을 모은다면 분명 아시아의 강국 아니, 세계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상하이 박물관을 견학하였는데, 그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의 그림과 유물이나, 옛날에 쓰던 화폐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보았다. 아침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이제 마지막 일정이라고 생각하니 아쉽기도 하였다.

이제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날!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쉬웠지만, 친구도 사귀고 여러 추억들을 만들어서 재미있었다. 나중에도 이러한 대회에 출전하여 큰 상을 받고 해외로 나가 이러한 추억을 다시 한 번 만들고 싶다. 그리고 우리들의 재미있는 여행을 위해 일정을 짜고 우리들을 인솔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다.

(자연관찰탐구대회 최우수상 수상)

이젠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중국에서의 교류

서울 개포중학교 1학년 이승주

국제과학교류에서 중국을 간다고 했었을 때, 나에게 중국은 그리 신선한 나라만은 아니었다. 이미 2010년 초에 가족들과 중국을 갔다왔었기 때문에 “또 중국이야?”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함께 과학대회에 출전하고 우승했던 팀들과 중국에 들어섰을 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꼈다.

외국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도 했었다. 그러나 비행기표를 받아들었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비행기 안에서 같이 만난 친구들과 잠깐 잠깐 얘기를 하다가 금세 도착한 중국 공항에서 그 규모에 먼저 놀랐다. 공항 지하철을 타고 한참이나 이동해야 나오는 입국심사장과 거대한 홀은 입을 벌여지게 했다. 그러나 바로 간 식당에서 중국 특유의 향 때문에 중국 음식에 쉽게 다가서기가 어려웠다. 먹기가 어려웠던 점심을 마치고 간 곳은 자금성. 우리와는 또 다른 웅장하고 커다란 궁궐이어서 옛날 중국의 전성기가 얼마나 성대했는지 보여주었다. 관광이 끝나고 처음 타본 인력거도 흥미로웠다. 며칠 뒤엔 또 만나기를 고대하던 만리장성도 갔다. 날씨 탓에 정상까지 모두 올라갔다 오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극히 일부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펼쳐진 그 성에 칭찬을 아끼지 못했다. 상해로 가는 밤기차를 타본 것도 무척 이색적이었다.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 아니라, 기차를 탄다는 자체만으로도 즐거웠었는데, 무려 침실까지 있는 밤기차라니!! 설레서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상해에 있는 타워도 빠질 수 없는데, 전망대가 바닥까지 모두 유리로 돼있어서 모두 후들거리는 다리를 잡고 겨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난다.

또, 상해와 북경에 있는 과학기술관을 둘러 보았는데. 요즘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다니는 것도 즐거웠다. 이 과학기술관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과학원리 실험이었는데, 어린 학생들도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큰 세포 모형들이라던가,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기율표, 무중력실험, 로봇게임, 몸 속 탐험 시뮬레이션 등 정말 재밌는 게임, 실험들이 많아서, 주어진 2시간이 너무 짧을 지경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북경의 중고등학교(인민대부중)를 둘러보았다. 말하자면 우리의 특목고, 국제고 같은 학교이다. 외국인 학생들을 같이 받는 것은 물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 행사와 수준 높은 교육을 꿈꿀 수 있었다. 학비는 조금 비싸다고 했다. 그러나 학구열을 진지하게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그런 학교였다. 우리나라의 민사고, 하나고와도 친교를 맺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알아주는 북경 4중도 둘러보았다. 학교 학생들은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나에겐 정말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다.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특목고를 전학해보니 뭔가 분위기부터 달랐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에게도 강렬하게 들었다. 여러 가지 실험실이 갖추어져 있고 소수 수업이 따로 있는 것은 물론 동아리 활동까지도 너무 잘 갖추어져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상해에서 들렀던 초등학교에서도 창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수업 받는 모습이 '이제 예전의 중국이 아니구나.' 란 생각이 문득 들었다. 오히려 틀에 박혀있는 사고를 고집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됐다. 지금은 창의력이 주목받는 시대이니 만큼 이렇게 학생의 잠재력 발전에 신경 써 주는 학교 교육이 당연히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인 게 중국이었다. 이런 점에서라도 우리는 중국을 더 이상 예전의 중국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번 중국과학교류에서 나는 다른 여행에서 얻을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었다. 먼저 같이 일주일동안 즐거운 여행을 함께 했던 우리 일행 친구들, 변하지 않을 우정과 잊을 수 없는 추억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해선 절대 안된다는 것, 조금은 익숙해진 중국음식도 그 중 하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교류를 통해 내 꿈을 위해 다시 동기부여를 받았다. 다른 무엇보다 이 점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 만약 내게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주저 않고 임할 것이고 이제는 이런 기회를 기다리지만 않고 내가 찾아갈 것이다. 바로 며칠 뒤인 기말고사를 포기하고 갔었을 만큼 나에게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교류였기 때문이다.

(자연관찰탐구대회 금상 수상)

중국을 다녀와서

충남 천안 새샘중학교 1학년 박진수

안녕하세요. 천안 새샘중학교 박진수입니다. 난생 처음 중국을 가보았습니다. 공부를 매우 잘하는 형, 누나, 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말이지요.

북경에서 불만한 곳들인 자금성, 살짝 못사는 동네, 중국 인민대부속 중·소학교, 과학기술관, 왕부정가, 북경제4중학교, 항공박물관, 만리장성, 북경역을 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만리장성이었으며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상까지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형들은 많이 없음, 동생들은 발견못함)

그리고 중국 기차역에서 화장실을 선생님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같이 가보았습니다. 중국의 소변기는 우리나라와 별 차이점이 없었는데 대변기가 참 민망하였습니다. 문과 바닥 사이가 안내책자를 세워놓은 길이였고 심지어 잠금장치도 없어서 냅 놓고 있다가는 문이 열리기 십상이었습니다.(여차 화장실은 모름) 그냥 손만 닦고 나와서 기차를 탔습니다. 우리나라는 표검사를 꼼꼼히 안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까다로웠습니다. 기차를 타서 짐을 침대 아래에 풀고 침대에 올라가 잤는데 형이 옆방에서 놀다가 자자는 겁니다. 나도 그냥 잤고 아침에 내렸습니다. 얼마 안간 것 같은데 밤 동안 9시간? 가량을 타고 상하이(상해)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열차의 특징은 원래 우리나라의 KTX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중국의 철길이 노후가 되어서 원래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침대칸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의 커다란 나라덕분이겠지요.

아무튼 내려서 호텔에 짐을 푸르고 상하이의 로신 공원(홍커우 공원)의 역사(윤봉길 의사)를 듣고 임시정부청사의 역사(김구, 이승만...)도 듣고 상하이 박물관을 견학하고 변화하고 외국이 득실대는 청왕묘 옛거리, 기교가 장난 아니게 대단한 상하이 서커스도 구경했습니다. 매우 높고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는 동방명주타워 위에도 올라가 보고 규모가 큰 상하이과학기술관도 견학해보고 남경로 시청광장(명동거리)에도 가보고 끝으로 외탄 야경(상하이의 모든 것을 황포강의 배위에서 느껴봄)을 다 본 후에 매우 재미있는? 학생소감발표회를 가진 후 상해가 북정보다 볼 것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저의 호텔 룸메이트는 진도 초등학교에서 온 함윤식?과 같이 지냈고 버스에서는 중2에 조기졸업해서 양갱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하선 형, 김동기 형과 계속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탔던 3호차 인술 교사님(김경기 선생님)과 샤브샤브를 아주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기행문을 만약보신다면 약속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얻은 과학의 결실로는 카메라의 건전지나 일반 건전지등은 추우면 방전이 잘된 다는 것입니다.(다른 분들은 이미 다 아셨다는데 나 만몰랐네요.πππ) 선생님께 이것은 왜 과학이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선생님께서 현상을 설명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꼼꼼히 관찰해서 그것을 밝혀낸다면 그것도 하나의 과학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과학 분야에서 본 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친선관계도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행문을 마치는데 아무리 보아도 나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과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사회적 차이가 더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연관찰탐구대회 금상 수상)

5박 6일 여행에서 얻은 것들, 그리고 나

충남 천안 새샘중학교 1학년 홍정연

정말 신기했다. 내가 상을 받았다는 것도, 중국에 가게 됐다는 것도. 그냥 우연히 선생님께서부터 자연관찰탐구대회를 나가보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열심히 관찰하고 보고서 쓰고 온 것 뿐 이었는데, 그게 시 대회를 거쳐, 도 대회, 전국대회, 그리고 중국으로의 국제교류까지 갈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다. 막연히 '상도 받고 중국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만 있었을 뿐 나도 내 실력을 알고 있기에 감히 욕심내지 못할 자리였다. 중국행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해 중국 땅을 밟았을 때야 비로소 '아 내가 중국에 온 거구나' 하고 실감이 났다. 기대와 설렘, 긴장 뒤에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생활해야 한다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들과 가족들 못지않게 나를 잘 챙겨주고 함께해줬던 친구들과 언니들, 화려한 입담으로 중국여행 내내 즐겁게 해주셨던 가이드 선생님들 덕택에, 그 두려움은 금방 사라지게 되었다. 첫날에는 자금성을 구경하고 북경 시내 주택가도 둘러보고 인력거 체험도 했다. 자금성에서는 규모부터 색채까지 어디 한번 눈을 땔래야 땔 수가 없었다. 언제 내가 또 다시 여기를 와볼까 하는 생각에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던 것 같다. 정말 목이 360도 돌아간다고 해도 다 못 볼 화려하고도 웅장한 자금성은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 그리고 다음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중국 인민대 부속 중학교와 소학교에 갔던 것이다. 동생뻘도 안돼 보이는 너무나도 귀엽고 착하기만 할 것 같던 아이들이 입을 열자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영어는커녕 한글도 똑바로 못쫓던 나이였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영어를 줄 줄 읊는 것이 아닌가. 너무 신기하기도, 내가 한심하기도, 멋지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여기 학교처럼 체육을 강화하고 영어와 과학 등 미래 인재 육성에 필수적인 과목들을 더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해 아이들에게도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만리장성은 하늘이 너무 예뻐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만리장성의 불가사의, 아름다움, 만리장성과 너무도 잘 어우러진 푸른 하늘,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강추위까지. 만리장성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벽참과 즐거움을 내게 안겨주었다. 하지만 셋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만리장성이 아니었다. 기차여행. 그 곳에 만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날까지

만 해도 서로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어찌다보니 그 좁은 기차 한 칸에 초등학교생, 고등학교생, 여학생, 남학생 구분 없이 모두가 올망졸망 모여 마피아 게임을 하게 되었다. 사람도 많고 환기도 안 돼서 덥기도 하고 좁기도 했지만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 아쉽게 막을 내리긴 했지만 그 좁디좁은 기차에서의 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민세호 오빠의 말은 안 해 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용감한 오빠 덕에 마지막 전날 밤 다시 모이게 되었다. 그 날도 재미있었지만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아쉬움 때문이었는지 헤어질 때는 마음 한편이 씁쓸했다. 5박 6일이면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탈 많고 정 많았던 언니, 오빠, 친구들과의 여행이라기에는 아쉬움이 큰 시간이었다. 그래도 영원히 간직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번 여행은 오직 과학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어서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노신공원, 임시정부청사에 다녀오면서 우리나라를 벗어나 이곳까지 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애국심이 뭔지 중국까지 와서야 느끼게 된 내가 부끄러웠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낯선 곳에서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함께해주는 마음을 배우고 느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정이 들대로 들어 안보는 게 오히려 어색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연락하고 지내며 서로 잊지 않고 다음번에 만나게 돼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음식, 상하이 서커스, 동방명주타워, 자금성, 만리장성과 같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중국의 본모습을 보게 되는 등,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여행은 매우 가치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음식은 예전에 홍콩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인지, 무엇이든 잘 먹는 식성 탓인지 먹기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잘 먹었던 것 같다. 돌림판을 돌리느라 옆 사람들 눈치를 봐야하며 먹었던 것도 이제 보면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인 것 같다.

첫날 저녁 특강 시간에는 모두들 피곤했을 텐데 눈이 말뚱말뚱 했다. 정말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빠져리게 느낀 거지만 역시 전국대회는 우습게 볼 것이 아니었다. 그 5박 6일 간의 여행에서 사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 하나같이 과학에 일가견이 있는, 개성이 넘치는, 전국대회 수상자라는 명성에 걸맞은, 하나같이 멋있고 당당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짧다고는 할 수 없는,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나는 정말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나는 그동안 뭐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헛되게 보냈던 시간들이 후회스러웠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5박 6 일간의 일정을 통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 시험 기간이었지만 시험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배운 것 같아, 시험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도 미련도 없다. 내 삶의 있어서의 과학의 의미, 가치, 의의를 되새긴 것 또한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값진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 기회를 주신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선생님들과, 여행을 통해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그 동안 과학에 그렇게 큰 흥미를 두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과학을 즐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상해의 야경만큼이나 밝고, 만리장성에서 본 하늘만큼이나 푸른 우리나라의, 우리들의 미래를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자연관찰탐구대회 금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로 북경·상해를 다녀와서

대구 성서중학교 2학년 김성현

여름 방학을 송두리째 과학 탐구 실험대회 준비로 바쁘게 보냈다. 다행히도 노력의 결과로 전국대회 1등으로 최우수상을 타게 되었고 수상자의 자격으로 학생과학 국제 교류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목적지가 중국의 북경과 상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4년 전 북경을 다녀왔기 때문에 만리장성, 자금성, 이화원 등 북경을 흔히 머릿속에 담고 있었고, 과학교류라면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야지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녀 온 지금은 그때 나의 생각이 무식함에서 오는 오만이자 편견이란 걸 깨닫게 해 준 여행이었다.

내 기억속의 북경은 수많은 문화재의 규모만 어마어마했고 중국의 수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해보였다. 우리나라 중소도시 정도로 보이던 도시의 모습과 곳곳에 북경올림픽을 준비하느라 공사 중이고 어수선하던 분위기였다. 그런데 4년 만에 다시 가본 북경은 놀라울 만큼 다르게 변해있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른 대도시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거리는 훨씬 깨끗해졌고 새로운 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아있었고 사람들 표정에도 여유로움이 보이고 대도시에 와 있다는 느낌이 절로 들었다. 역시 이래서 ‘중국의 발전 속다가 무섭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머지않아 이 넓은 국토와 이 많은 인구로 큰일을 낼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졌다.

북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국 항공 박물관 견학이었다. 200종이 넘는 진귀한 비행기와 미사일 등 항공 관련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어마어마한 규모가 놀라웠다.

내가 이번여행에서 중국이 제일 부러웠던 것은 북경에서 상해로 가는 기차를 탔을 때였다. 우리나라에서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KTX보다 더 빠른 기차를 타고 북경에서 상해를 가는데 12시간 이상이 걸렸다. 중국의 영토가 넓고도 넓다는 것을 실감했다.

상해에서는 임시정부청사를 견학하면서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의 굴레에 놓이지 않는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

는데 이바지해야겠다는 애국심이 불끈 솟아났다. 또 상하이 과학기술관에서 중국의 과학 발전이 우리나라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학생 국제 과학 교류에서 좁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해야겠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중국에서 보고 느낀 많은 것들이 나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더 밝힐 수 있도록 가슴깊이 새기고 어떤 자리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함께 참가한 41명의 과학도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사히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해주신 한국 과학 교육단체 총 연합회에 감사드린다.

(과학탐구실험대회 최우수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를 다녀와서

대구 성서중학교 2학년 정수영

새벽 6시 다소 쌀쌀한 날씨의 인천공항. 나는 그곳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곳을 가게 될까' 하고 생각하며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입국수속을 밟으며, 과연 내가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먼저 말 걸어주고, 다른 친구도 소개시켜준 한 친구 덕분에 우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해질 수 있었다. 지금도 그 친구가 참 고맙다.

천안문과 자금성을 보면서, 새삼 중국이 참 넓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아기자기한 경복궁과는 달리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다. 하나 같이 붉은 벽들은 굉장히 두껍고 높은데다가, 수많은 황금색 기와들로 지붕을 얹어 놓았다. 한참을 걸었는데 아직 반에 반도 오지 못했다는 가이드 아저씨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도 난다.

비록 짧은 거리를 오르긴 했지만, 만리장성도 잊을 수 없다. 가파른 경사에 담도 생각보다 낮았지만, 한눈에 보기에다 굉장히 먼 곳까지 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르기도 힘든 산에 성을 쌓아올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장성을 내려왔다. 놀라운 사실은, 돈 내고 들어간 화장실에 문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엉덩이를 내 놓던 그곳 사람들의 모습에서 문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서 '정말 이것이 학교인가'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큰 규모의 건물들과 운동장,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이던 학생들. 아직도 인민대 부속소학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교실에 설치되어있는 모형과 그림에 관심을 보이면 쏘르르 달려와서 묻지 않아도 설명해주는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깜짝 놀랐다. 중국에 오기전까지만 해도 내가 학교에서 배우던 내용이 10살짜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그것도 한문으로 나와 있었다. 중국의 교육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높았고, 나는 긴장했다. 하지만 같이 사진 찍자는 질문에 너무나 해맑은 웃음으로 대답해준 꼬맹이들, 정말 귀엽고 순진했다.

노신공원의 윤봉길 의사 기념관, 상하이 임시 정부 청사를 방문하면서,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일본의 만행에 주먹이 부르르 떨리면서도,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저항한 분들의 헌신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건물을 나오면서 적은 돈이나마 기부하며, 왠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우리와는 사상이 다른, 조금은 더럽고 후진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직접 가본 중국은 나의 예상과는 달리 놀랄 만큼 발전해있었고, 또 그만큼 멋진 곳이었다. 가는 곳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규모만큼은 인정할 만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쌓았던 우정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일주일간 중국에서 느낀 것은 너무 많은데 이것을 모두 글에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까울 따름이다.

천생연분 수정이(♥), 호르몬 공부로 나를 잠들게 했던 과학고 언니들, 귀여운 룸메이트 동연이, 마지막 날 326호 같이 게임한 언니오빠친구들, 자신은 절대 마피아가 아니라던 모세 어린이, 일주일 동안 함께했던 다미, 정연이 모두 잊지 못할 소중한 사람들이다.

또 일주일 동안 잘 이끌어 주신 우리 김효연 선생님,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과교총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과학탐구실험대회 최우수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를 다녀와서

서울 신목중학교 2학년 윤다미

‘학생과학국제교류’ 행사가 5박 6일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중국으로 나를 안내했다. 내가 간 해외여행이라고는 일본으로의 1박2일이 전부였는데 이번에 운 좋게도 중국으로 학생 과학국제교류를 다녀오게 되었다. 더군다나 상을 받아서 갔다는 점이 더 좋았다. 처음 안내문을 읽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처음으로 이 대회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때, 서울 시 대회 예선, 본선에 나갔을 때, 전국 대회를 나갔을 때는 그저 ‘그래도 그 앞의 대회에 붙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간 대회인데 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일 뿐, 내가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하여 이렇게 중국으로 학생 과학국제교류를 가게 될 줄은 몰랐다. 말로는 ‘이번에 잘 해서 외국으로 나갔다고 뭐.’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럴 줄이야. 시상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갔을 때, 안내문과 단복을 받고 나서도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것 같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 아직까지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나쁜 나라, 잡상인이 끈질기고 많은 나라, 여행자들이나 타국인이 가이드 없이 홀로 여행하기에 그리 좋지 않은 나라, 바가지가 심각한 나라 그러나 세계경제 2~3위를 다투는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개발도상국인 나라, 몇몇 분야, 우주분야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과학 기술이 더 뛰어난 나라, 중국. 이 나라가 이번에 내가 5박 6일 동안 지낼, 이미 갔다 온 나라이다. 오리엔테이션 때, 내가 모르는 하지만 같이 중국으로 가게 될 많은 사람들을, 더군다나 우리학교 파트너는 남자여서 가서 새로운 여자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고, 룸메이트도 전혀 모르는 친구일 것 이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문화를 격어야 한다는 것에서 약간 설레기도 하였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던 것 같다.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내 친구들은 방문마다 문을 두드리고 같이 놀라고 외치라는 말까지 했었다.

드디어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는 날이 되었고 짐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출국수속을 한 후 탄 비행기 안에서 옆에 앉았던 2명의 동갑의 친구를 사귀었고 공항에서 나온 후에 버스에서는 바로 옆

자리에 앉는 나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을 만나 친해졌고 그 이후로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보며 지내게 되었다.

첫 날은 인력거 관광이 가장 인상 깊다. 서울보다 추운 북경의 날씨에 인력거의 속도로 내 몸으로 느끼는 바람은 생각보다 거셌고 중국의 옛 거리는 독특하고 정겨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옛 중국의 거리 문화와 주택 등도 인상 깊었다. 집 안에 나무는 한 그루 이상 심어야 한다는 사소한 풍습부터 중국의 모든 건물과 땅은 잠시 국가로부터 빌리는 것인데 이곳의 북경의 100년 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들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 호적을 자기가 태어난 도시에 등록해두고 이사를 간다면 우리나라는 간단히 주소지를 옮기면 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북경 시민권을 가지며 중국 최고대학인 인민대와 청와대에 가는 데 가산점을 준다는 점 등이 독특하게 다가왔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단지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가산점을 준다면 아마 지방에서 시위와 항의가 매일 들끓을 것이다. 게다가 인력거를 타며 지나갔던 거리들과 인력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들고 새로워서 기억에 남는다.

둘째 날은 가장 좋았던 날이다. 아침에 보았던 중국 인민대 부속 중학교와 소학교는 이번 국제교류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곳 중 하나이다. 부속중학교는 제대로 견학할 수 없었지만 소학교에서는 수업도 볼 수 있었는데 많아야 열두 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중2과정, 15살인 내가 배우고 있는 음의 법칙을 배우고 있는 모습에 놀랐었다. 또한 유창한 영어 실력 역시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분명히 나보다 어린 아이들인데 영어로 소개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실력이어서 놀랐었다. 넓은 학교, 교실, 운동장, 좋은 시설 등은 부러웠던 점이다. 소학교의 경우에는 한 반에 수업 중인 학생들이 20명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특히 우리학교는 2000명이 넘는 학생 수에 비해 선생님들도, 교실도, 공간도, 운동장도 비좁고 한 반에 40명이 넘는 학생 수에 사물함도 없고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40명이 넘게 한 반에 비좁게 앉아 수업하는데도 교복 마이 위에다가 패딩을 입고 있어야 되서 더더욱 부러운 것 같다. 비록 수업시간에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서는 시끄러운 불청객이 된 것 같지만 말이다.

이번 국제교류에서 가장 유익했던 곳이 둘째 날 오후에 갔던 북경과학기술관과 다섯째 날 갔던 상하이과학기술관인 것 같다. 북경과학기술관에서 보았던 옛 중국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학기술과 상하이 과학기술관에서 보았던 테마 전시관들은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특히 상하이 기술관은 처

음 들어갔던 Animal's World부터 상당히 흥미로웠다. 동물박제를 상당히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전시해놓아서 감탄했다. 우리들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몇 개의 전시관만을 보기로 하였는데 그 중 Cradle of Design이 가장 재미있었다. 전시관의 첫 스타트나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의 의자였는데 입술모양인 것도 있고 크기나 모양도 가지가지였다.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여러 착시가 섞인 그림들, 공중에 붕 떠서 물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 수도꼭지, 잘 설계되어 있는 골든 버그 등등 신기하고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World of robot 전시관에서는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인식하여 그림을 그려주는 로봇이 있어서 나도 해보았다. 안타까운 것은 사진 인식이 이상한 기타 선들이 생겨서 사람이 수정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과 한 가지 색으로 밖에 그릴 수 없다는 점이였다.

북경과 상하이의 왕부정사거리와 청왕묘 옛거리는 마치 우리나라의 시내와 같은 곳인데 특히 왕부정사거리의 먹자골목은 전갈, 양 꼬치, 번데기 등등 중국의 우리나라와는 다른 길거리음식을 볼 수 있었고 골목 안쪽에서는 여러 기념품등을 팔았는데 나는 중국에서 살다 온 친구로부터 무조건 50퍼센트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곳 상인들과 흥정해서 할인을 받았는데 내가 산 물건을 다른 친구가 5배나 비싸게 샀다고 해서 놀라기도 하였고 같이 다니던 1살 어린 동생이 자꾸 상인들에게 붙잡혀서 뿌리치지도 못하고 너무 상인이 말하는 가격을 그대로 믿어서 곤란하기도 하였지만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다.

중국의 유명한 문화재, 천안문, 자금성, 만리장성 등은 거대하고 웅장한 멋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나는 중국의 문화재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훨씬 좋고 아름다운 것 같다. 나무의 곡선을 그대로 살린 경복궁 등 조선시대의 건축물과 신라시대에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로도 지을 수 없는 석굴암, 그 오랜 기간 목판인 팔만대장경을 찍지 않게 보관한 해인사 장경판전 등 거대하고 웅장한 중국의 문화재들보다 곡선의미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더 마음에 든다.

내 마음을 돌리지 못한 중국의 문화재들과는 다르게 노신공원의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임시정부청사는 나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항일 애국지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족도, 안락한 삶도 버리고 일제의 끝없는 감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싸우셨던 그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기부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마음이 씩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의사와 테러리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갈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에 다녔던 관광요소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서커스와 외탄야경관람인 것 같았다. 몸으로 하는 정말 대단한 유연성을 보여주는 기예들과 모자 저글링, 홀라후프 묘기, 자전거 묘기, 한 가닥 줄만으로 남, 녀 2명이 공중을 빙빙 도는 묘기,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오토바이 묘기까지! 정말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고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보는 상하이의 야경은 정말 멋졌다. 같은 디자인의 건물은 재허가가 나지 않고 밤 7시부터는 무조건 불을 켜야 되서 그런지 각양각색의 건물들의 야경은 정말 서울의 야경은 비교되지 않게 멋졌다. 특히 옛 서양의 건물들의 조명은 더더욱 멋졌던 것 같다. 그리고 상하이의 동방명주타워는 유리로 된 발판으로 밑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중간에 있던 세미나 중에서 중국의 우주과학기술분야를 주제로 하였던 세미나가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중국은 벌써 달이 아닌 화성 탐사선까지 발사할 정도의 우주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수준에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아직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예전에는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중국이 과학기술의 응집체라 볼 수 있는 우주과학기술에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앞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놀라운 발전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았을 때 좋은 방법은 통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학생 과학국제교류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문화, 음식을 접해보고 중국의 과학기술관에 가서 유익한 체험을 해보고 특목고나 과학중점학교등과 같은 중국 인민대 부속 중학교와 소학교, 북경 제 4중을 견학한 것과 체험하던 것과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을 사귄 수 있어서 좋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나의 또 다른 면을 본 것 같기도 하였다. 특히 동생은 동생대로 언니, 오빠들은 그들대로 배울 점이 있었다. 관광, 문화, 과학 체험에서부터 새로운 친구들까지 여러모로 뜻 깊은 행사였던 것 같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수상)

거대한 중국, 작은 우리들

서울 신목중학교 2학년 이하선

이번 여행은 학생과학국제교류로, 중국과 문화적, 과학적으로 교류를 하는것이 목적이었다.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중국의 여러 모습은 참 신기했고 부럽기도 하였다.

먼저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여행을 시작했다. 가서 가장 먼저 천안문과 자금성을 보았다. 천안문광장은 참 넓고, 천안문에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있었다. 북한이 김일성을 숭배하듯이 이곳 중국도 마오쩌둥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서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느껴졌다. 자금성은 아주 넓고 모든 것이 금빛이었지만, 모든 방이 텅텅 비어있었다, 장제스?가 중국에서 나갈 때 문화재를 모두 약탈해나가서 라고 한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문화재가 거의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에는 인력거를 탔다. 인력거를 타며 시내를 구경하는데, 인력거꾼 아저씨가 친절해서 좋았다. 일반 가정집에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방문한 가정집은 매우 비싼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다. 이유는 오래되어서? 이다. 북경 남자들의 취미4가지. 1. 별레키우기(귀뚜라미) 2. 식물키우기 3.식물키우기 4.비둘기키우기.

비둘기 키우기는 참 특이한 취미였다. 우리나라의 서울과는 많이 분위기가 달랐다. 서울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이곳도 북경 한가운데여서 개발이 안 되어있는 곳이지만 말이다. 하루를 호텔에서 묵었다. 선생님과 같은 방이 되었다. 덕분에 지각은 안하였지만 늦게 자지는 못했다.

이틀째, 나에게 가장 신선한 충격이었던 중국인민대 부속중학교, 소학교를 방문하였다. 이곳 학생들은 교복이 우리의 체육복과 비슷했다. 아니, 오히려 더 편하게 생겼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으면... 하고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중학교에는 국제올림픽아드에서 수상한 학생들이 있었다. 다양한 과학수업을 들으며 자라난 이들이 국제올림픽아드에서 선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 문득 이번 국제천문올림픽아드에 참가하여 보았던 중국학생들이 떠올랐다 이런 훌륭한 교육을 받는 그들이 부럽기도 했다. 이 중학교는 우리나라의 서울과학고같은 영재

고와 비교하면 되겠다는 생각했으며, 내년에 갈 서울과학고에서의 생활도 상상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재미있었던 과학기술관도 관람했다.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과천과학관과 비슷했으며, 과천과학관보다 훨씬 큰 플라네타리움이 있었다. 왕부정가에서는 전갈꼬치등 희한한 음식들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나는 물엿을 바른 딸기 꼬치를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다.

셋째 날. 북경제 4중학교를 가보았다. 그곳에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자기네 학교가 작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신목중학교는 얼마나 작은 건지 이해가 안되고 부끄럽기도 했다. 나머지는 모두 앞서 방문한 인민대 부속중학교와 비슷한 것으로 기억한다. 항공박물관은 정말 많은 비행기들이 있었는데 중국어를 알지 못해 하나도 거두어들인 수확이 없었다. 만리장성은 끝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본 줄지어 있는 만리장성은 장관이었다. 올라간 보람이 느껴졌다. 그리고 잠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잤다. 씻을 수가 없어 불편했지만, 특이한 경험이었고, 우리나라는 전국이 3시간 만에 연결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좁은 열차도 즐겁게 느껴졌다.

넷째 날은 벌써 여행의 절반이나 지났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쉬웠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상하이 구경을 하였다. 노신공원에서 윤봉길의사 기념관을 둘러보니, 일제시대의 잔혹함이 저절로 느껴졌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님들께 고마웠다. 윤봉길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물병폭탄을 던졌다고 한다. 이렇게, 잘못 오인된 우리의 역사가 많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역사를 빨리 제대로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임시정부청사에서는 독립투사님들께 묵념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도와주신 독립투사님들이 다시 한 번 정말 고마웠다. 그때 썼던 여러 도구들을 복원해놓아서 임시정부 청사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김구선생님이 독립투쟁을 하셨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하이 과학기술관은 중국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지하1층으로 가려고 일찍 나왔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였다. 청왕묘 옛거리에서는 희한한 만두를 먹어야하였는데 먹지 못하고 나왔다. 상하이 서커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구부러지는지 신기하였다.

다섯째 날. 상하이의 명물 동방명주 타워는 우리나라의 63빌딩에 온 기분이었다. 특히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던 층은 진짜 공포의 대상이었다. 상하이 박물관은 정말 지루했다. 알아들을 수 있는게 있어야 뭔가를 아는데, 우리는 중국말을 몰라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다. 외탄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상하이의 야경이 왜 그리 유명한지 이해하게 되었다. 번쩍이는 동방명주의 모습도 정말 환상적이었다. 서울의 야경도 그렇게 아름다울까 고민해봤지만 생각이 잘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5박 6일의 즐거웠던 여행을 마쳤다. 그동안 참 아쉬웠던 점은 없었고 즐거웠던 기억만 난다. 여행이 이렇게 벌써 끝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나는 이제부터 내 꿈을 위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수상)

국제교류, 새롭고 가치 있던 경험

충북 청주 산남중학교 2학년 양수정

2010년 한국 과학교육단체 총 연합회에서 실시한 학생 과학 탐구 실험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해 중국 여행을 간 것은, 내 생의 첫 외국여행이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닐뿐더러 괜히 돈 써서 외국에 나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나의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 여행조차 많이 다니지 않았다. 첫 외국 여행이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험기간에 여행이 끼쳐 불만이 많았고 그곳에 가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먼저 걱정했다.

국제교류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국 인민대학 부속 소학교와 중학교, 북경 제 4 중학교였다. 내가 지금 학생 신분인지라, 더욱 관심이 갔고 기억에 남는 것이다. 나는 평소 중국의 교육방식에 대해 우리나라의 교육에 훨씬 뒤떨어진 구시대적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본 것은 우리나라보다 잘 되어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넓은 학교,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이상적인 학교였다. 중국 학생들의 운동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아침마다 운동장을 달리게 하는 중국 인민대학 부속 중학교와 북경 제 4 중학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다. 인민대학 부속 중학교의 컴퓨터실과, 자동차의 운전대를 그대로 빼다 박아놓은 것 같은 알 수 없는 교실들. 나도 저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주 멋진 학교들이었다. 영어로 유창하게 교실에 대해 설명하는 인민대학 부속 소학교의 꼬마 남자아이를 보고 나는 지금까지 뭐를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이것 외에도 국제 교류 행사 참여를 통해 중국에 대한 많은 건물이나 문화 등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루하게 이번 교류에서 보게 된 여러 가지 중국의 관광지나 물건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이 보고서에서 서술해 놓지 않아도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현대 문물을 통해 마치 그곳에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류를 통해 내가 얻은 것 중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뛰어난 과학 영재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분명 중국을 여행하는 것도 무척 가치 있는 일이지만 중국 여행은 언제

든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과학 영재 친구, 동생, 언니 오빠들을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다.

처음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먼저 말을 걸어준 다미, 푸근한 사투리를 쓰는 수영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른스러운 정연이. 그 외에도 북경에서 상해로 이동하는 기차에서 친해진 많은 오빠들과 언니들, 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특히 비행기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수영이와 나누었던 공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나의 공부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주었다.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 나중에 커서도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 소감

충북 청주 산남중학교 2학년 강호준

우리가 금상을 타서 중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것도 과학에 소질이 있는 전국에서 온 형, 누나, 동생들과 갈 수 있다니 더욱 기뻐다. 첫날 우리는 중국 북경 수도공항에 도착했다. 전에도 중국을 한번 다녀와 보았지만 그 때의 중국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우리나라 못지않은 깨끗한 도로와 건물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날 힘들게 하였던 것은 현지식이었다!! 중국음식답게 맛의 극을 맛보는 듯 했다. 그러나 점점 적응이 되었고 오히려 한국에 와서는 그림기 까지 했다. 또 난 중국에 가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정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자금성과 만리장성이다. 이 두 곳은 중국하면 딱 떠오르는 관광명소이다. 그러나 가기 전에는 얼마나 대단할까 했지만 가히 중국최고의 명소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금성은 정말 거대했고 만리장성은 말 그대로 ‘만리장성’ 이었다. 두 번째는 상하이 서커스이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인간한계의 초월 그 자체 같았다. 몸이 마치 천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나의 중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준 장소는 각종 박물관과 학교였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서 최고인 박물관, 학교를 갔다 해도 그곳은 최고였다. 시설도 깨끗하고 정말 유익한 시설들이 많아서 알아듣지 못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다. 특히 학교는 대단했다. 실험실, 운동장, 수업방식 정말 많은 것들이 부러웠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침대열차와 동방명주타워이다.

우리는 형, 누나, 동생들과 그 좁은 열차 안에서 놀았다. 어떻게 보면 그곳이 최악의 장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형, 누나 들 과도 연락을 하고 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동방명주타워에서는 정말 정말 대단했다.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가보았지만 동방명주타워가 더 대단했다. 특히 259m에서는 플라스틱판 하나를 두고 내가 하늘을 걷는 느낌이었다. 정말 짜릿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과교총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수상)

불사의 기억

충북 청주 서현중학교 2학년 송나미

‘우리들’의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때도, 지금도 여전히 열다섯의 이야기
그 일 이후 멈춰버린 듯한 나의 시간

시간을 초월한 추억
시간이 흘러도 늙지 않고 아름다우며
영겁의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여러 감정이 교차되어
때로는 차근차근
때로는 한꺼번에
쏟쳐오는 그것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가슴 속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을
축복받은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 바라다보며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감동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나의 첫 해외여행, 중국

충북 청주 서현중학교 2학년 이석화

한국 학생 과학탐구 올림픽 ‘동아리 발표대회’에 출전한 우리들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최우수상을 받아 중국을 가는 찬스를 얻었다. 시험기간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모처럼 온 기회라서 가기로 결심했다.

중국에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중국 음식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서 김치를 챙겨 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국 물은 더러워서 아무거나 마셔선 안 되고, 길거리 음식은 먹지 않는 편이 좋다고 했다. 이런 저런 정보를 얻고 탄 비행기. 비행기 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게임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었다.

1시간 30분이 지나서 도착!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여기가 정말 중국인지 알 수 없었을 만큼 한국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짐을 찾아서 버스에 싣고, 들뜬 우리들은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우리를 처음으로 데려다 준 곳은 한 음식점이었다. 이 음식점에서 만두를 먹었는데, 우리나라의 부침개 맛과 순대 맛이 나는 만두도 있었다. 살짝 느끼한 맛도 있어서 많이 먹지 못했다.

점심을 먹고 간 곳은 자금성.

자금성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우리나라의 성들은 비교도 안될 만큼 컸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불을 끄기 위해 모아둔 물을 담아 두는 커다란 항아리다.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이 항아리의 개수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 항아리 밑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겨울에 물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을 떼는 구멍이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생각하다니, 옛날사람들은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다.

자금성을 둘러보고 우리들은 인력거를 탔다. 이런 인력거는 처음 타보는 것이기에 더 신이 났었다. 덜컹덜컹 거리고 조금 속도가 있는 인력거를 타고서 어느 한 집에 들렀다. 거기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지에 대해 들었다. 말씀 중에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내가 알고 있던 대로 화장실은 밖에 있고 칸막이가 없으면 냄새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역시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

아직 적응이 안 된 중국음식으로 저녁을 먹은 후 호텔로 이동했다. 방에 짐을 둔 후, 우리들은 세미나실로 이동했다.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듣는데,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피곤했다. 강의를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다. 룸메이트가 아파서 인지 내가 피곤해서 인지 우리 방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 날이 밝았다.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호텔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빵에 버터를 발라 먹었다. 아직 한국에 가려면 멀었는데 벌써부터 한국이 그리웠다.

아침을 먹은 후 중국인민대 부속 중학교와 소학교를 갔다.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고, 소학교에서는 그곳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이 곳 아이들은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지... 한국에 가면 영어 수업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점심을 먹으러 온 곳은 5층이었고, 나머지 아래층은 여러 전자기기를 파는 곳이었다. 전자기기에 눈이 팔려 일행을 놓치지 말라는 가이드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앞만 보고 걸었다. 이 식당의 좋은 점은 김치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김치가 나와서인지 어제보다 음식이 맛있게 느껴졌다.

점심을 먹은 후 조그마한 에피소드가 생겼다. 식당을 나오는데 나와 나미가 일행에서 떨어진 것이다. 우리들은 찾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내려갔다. 그러나 열심히 내려온 이곳은 처음 보는 장소였다. 당황한 우리들은 두리번거렸고, 마침내 여긴 지하 2층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1층으로 올라간 우리들은 이번에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할까 망설이던 끝에 처음 이 건물에 들어올 때 봐 두었던 가게를 찾아 나갈 수 있었다. 건물을 빠져나와 버스에 올라탄 우리들은 깔깔깔 웃었다. 우리를 찾는 사람은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웬지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만약 우리를 찾고 있었다면 매우 부끄러웠을 것이다.

이런 에피소드가 생긴 건물에서 과학 기술관으로 이동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4D. 내용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었고, 여기저기서 바람이 나와 여러 표현을 해 정신없으면서도 재미있게 봤다.

다시 버스를 타고 왕부정가를 갔다. 여긴 우리나라 인사동거리와 비슷하다고 했다. 저녁이라 쌀쌀해 저서 장갑을 끼고 나갔다. 여기에선 전갈 튀긴 것과 해마 튀긴 것이 있었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그러나 마음만

있었을 뿐 실천으로 옮기고 싶진 않았다. 옆에서 전갈을 맛있게 남남 먹는 중학교 1학년 진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더 안으로 들어가니 향신료 냄새가 심해 우리들은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시계를 파는 곳, 차를 파는 곳 등등 여러 곳을 지나 우리가 향한 곳은 롯데. 추워서 가장 반가운 곳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다시 나왔다. 그 이유는 냄새 때문이었다. 중국 특유의 냄새는 아직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집합 시간이 되어 버스가 있는 곳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어제보다 더 많이 걸어 다녀서 힘이 들었지만,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져서 호텔 4층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생겼다. 호텔 4층은 알고보니 옆 건물 백화점과 연결된 통로였던 것이다. 컵라면을 먹기 위해 나와 룸메이트인 지연이, 나미와 나미 룸메이트인 혜리와 함께 씩씩하게 컵라면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카메라와 옷만 있을 뿐 컵라면을 찾지 못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 물어 식품매장을 갔다. 그곳에서 파는 컵라면은 일본식 라면. 우리들이 먹고 싶은 것은 한국식 라면의 매운 맛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호텔로 넘어가는 문이 전부 잠긴 것이다. 당황한 우리들은 다른 문을 찾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굳게 잠긴 문들 뿐, 열려 있는 문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그곳에 일하는 분께 도움을 청했으나, 그 분은 영어도 못하시고 한국말도 못하시는 오리지널 중국인. 결국 온몸을 사용해 옆 호텔로 가야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그 분은 알아들으셨고 지나가던 요리사 분께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들은 안전하게 호텔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생겨 오히려 좋았던 것 같다. 서먹서먹하기만 했던 룸메이트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길기만 했던 둘째 날이 가고 셋째 날이 왔다. 아침은 빵에 버터를 발라 먹었다. 이런 식사가 어느 정도 익숙해 진 것 같다.

오늘은 북경에서 상해로 가는 날이기에 모든 짐을 들고 나왔다. 짐을 버스에 싣고 우린 북경 제 4중학교로 갔다. 북경 제 4중학교의 역사를 듣고, 사진도 찍은 후, 항공박물관으로 이동했다. 항공박물관은 나에게 꽤 흥미 있는 곳이라서 열심히 둘러보았다. 멋진 비행기들이 전시 되어있어 사진을 많이 찍었다.

점심식사 후에 만리장성을 갔다. 만리장성은 내가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바람이 세게 불어 걸어올라 가야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 많은 인력

이 동원되었고, 만리장성을 짓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그 자리에 묻어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나는 올라가면서 '나는 지금 시체 위를 걸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만리장성은 생각보다 가파랐다. 그러나 나는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해 이정도 비탈길은 누워서 떡먹기였다. 다른 사람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내려오는 길에 반달가슴곰을 봤다.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대자 곰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즈를 취해줬다. 덕분에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저녁으로 샤브샤브를 먹고 북경 역으로 이동했다.

버스에서 짐을 내리고 기차를 기다렸다. 한 칸에 침대가 네 개가 있는 기차다. 전에 학교에서 중국어 시간에 본 기억이 난다.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좀 지저분해 보였지만 나를 깨끗했다. 나랑 나미, 김종미 선생님, 이병은 선생님과 함께 잠을 잤다. 기차가 덜컹거려서 잠이 잘 안 오고, 자다가도 깨곤 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승차감이었다.

기차에서 자고 일어나니 어느 새 상해에 와있었고, 넷째 날이 밝았다. 아침식사는 우리가 머물 호텔에 들려 늘 먹던 데로 빵에 버터를 발라 먹었다.

아침식사 후 노신공원에 갔다. 노신공원에 가니 아리랑을 부르는 아저씨도 있었다. 후에 청왕묘 옛 거리에 갔다. 여기는 지붕이 전부 기와로 되어 있었다. 이 옛 거리에는 특이한 음식이 있는데 바로 일명 썩은 두부.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다는 가이드님의 말씀 때문에 먹어보진 않았다.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봤는데, 맛있어 보이진 않았다. 또 다른 먹거리는 빨대가 꽂힌 만두다. 만두 속에는 멸치로 국물을 우려낸 것과 향신료를 넣은 것이 있다고 한다. 이 것 역시 우리 한국사람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먹어보진 않았다.

옛 거리 관광을 한 다음 상해 과학 기술관으로 출발했다. 과학 기술관은 볼 것도 많고 체험 할 것도 많았다. 이곳에서 로봇 쇼를 봤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되 있을 줄 알았다. 기대를 한 만큼 실망도 큰 법. 우리나라의 로봇 쇼가 더 잘 되 있다고 생각했다. 동물들의 박재도 전시해 뒀는데 매우 잘 해놓았다. 정글처럼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위에서 물방울을 뿌려 안개처럼 형성한다.

열심히 돌아다니며 상해 과학 기술관을 관람한 후, 서커스를 보러갔다. 서커스는 처음 보는 것이라 어떨까 기대를 했다. 서커스는 생각보다 굉장했다. TV에서나 보던 것을 실제로 보니 기분이 좋았다. 서커스를 본 후, 호텔

에 도착하자마자 뺏었다. 4일 동안 계속 걸어 다니기만 하니 다리가 아팠다.

힘든 넷째 날이 가고, 다섯째 날.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역시 아침식사는 빵으로 먹었다.

아침을 먹은 후,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동방명주 타워에 갔다. 동방명주 타워에는 아침 일찍 인데도 사람이 많았다. 바닥이 투명하게 되어있는 곳에서 우리들은 누워서도 사진을 찍고 앉아서도 사진을 찍었다.

동방명주 타워를 구경한 후, 임시정부청사를 견학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청사를 견학하니 마음이 짠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짠함을 느꼈다.

점심을 먹은 후 상하이 박물관에 갔는데 다리가 매우 아파서 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들이 구경했던 것은 전통 옷과 화폐를 보았다. 화폐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쓰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박물관을 관람한 후, 상해의 멋진 야경을 관람하러 갔다. 배를 타면서 보는 거라 바람도 불고 매우 추웠지만,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찍겠다는 마음으로 밖에서 구경을 했다. 건물마다 꼬마전구를 달아 건물이 잘 보이게 했다. 이렇게 해 놓은 야경을 보면서 전기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호텔에 돌아와서 우리들은 소감을 발표해야 했다. 그동안 우리가 보고 느꼈던 것들, 중국에 와서 변한 나의 생각들을 말하는 시간인 것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져서 다들 짧게 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우리 조는 그동안 잘 활동해서 컵라면을 상으로 받았다. 컵라면도 상으로 받았겠다, 마지막 날 밤이다 해서 우리 조는 조장오빠의 방으로 가서 컵라면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게임도 재미있게 하고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 어느새 시간은 새벽 3시를 가리켰다. 내일 비행기를 타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 자기로 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여섯째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의 해가 났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주신 가이드님께 감사했다. 막상 한국으로 돌아가려니 중국음식 좀 많이 먹어볼걸, 사진도 더 많이 찍어볼걸, 좀 더 구경할 걸 등등 여러 생각이 났다. 이러한 아쉬움을 남기고 우리들은 피곤한 몸을 비행기에 실었다.

이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해 보니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투덜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중국에 도착하기 전 내가 생각했던 중국은 선진국이지만 생활하는 것은 후진국과 비슷한 처지. 즉, 화장실도 칸막이가 없고 문도 없고, 더러운 나라. 물이 더러운 나라. 생활하기 불편한 나라라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막상 중국에 도착해 보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깨끗했던 곳도 많았고, 화장실도 칸막이가 다 있고 문도 있는, 깨끗한 시설을 갖춘 나라였다.

중국학교는 아침마다 운동을 해 몸을 풀었다. 우리나라는 몸을 푸는 시간이 없어 몸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다. 아침마다 다같이 운동을 몸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첫 해외여행, 중국은 여러 가지를 배우고 가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 소감

서울 오남중학교 3학년 김동기

출발 전.

1학년 겨울방학 때 대교재단의 후원으로 ['09 한국과학영재중국문화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 때 방문했던 곳은 베이징 고관상대, 이화원, 자금성, 과학기술관, 만리장성, 명 13릉, 소니탐몽과학관, 중화항공우주박물관 등이었다. 그 때가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두 번째로 다시 중국을 가게 되었다.

이번에는 어떤 곳을 가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마음이 설렌다.

첫째 날.

7시 10분까지 공항 집합이다. 30분 전쯤 도착하여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해결하고 집합장소에 갔다. 안내책자를 받아서 일정을 살펴보았다. 아이고... 도착하자마자 자금성이다. 2년 전 기억이 새롭다. 죽도록 걸어야 한다.

자금성 관람을 끝내고 인력거를 탔다. 인력거 아저씨가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재미있었다. 두고두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소고기고추장볶음을 싸 가지고 왔는데 다행히도 향을 났 음식이 나오니 그럭저럭 먹을 수 있겠다.

둘째 날.

중국인민대 부속중학교와 중국인민대 부속소학교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시설이 우리나라의 학교보다 좋았다. 중국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과학기술관에서는 관람을 마치고 지하 1층에서 쉬고 있는데, 기념품가게에서 판매하는 아저씨가 공중부양 지구본을 공중에 못 띄우고 끄꿍대는 것을 보았다. 좀 딱하다.

왕부정가의 먹자골목에서는 전갈꼬치, 불가사리꼬치 등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박진수라는 애가 용감하게 전갈꼬치를 사먹었다. 나는

고기 꼬치를 사 먹었는데, 쇠고기 꼬치인줄 알고 샀더니 개구리다리 꼬치란다. 살을 얇게 찢어서 잘 몰랐는데, 산 뒤에 누군가가 그건 개구리꼬치라고 말을 해 줬다. 하지만 이미 샀으니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다.

셋째 날.

만리장성을 갔다. 2년 전에 왔을 때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지만,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케이블카 운행도 안하고 심지어는 모노레일도 못 탄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이란... 덕분에 걸어서 올라갔다. 하지만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재미있었다.

상하이까지 이동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갔다. 북경에서 상해까지 2,000km란다. 시속 200km로 10시간을 간다. 시속 3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철도가 고속용이 아니어서 이정도 속도로 간다고 한다. 어쨌거나 중국은 큰 나라다. 침대칸이 있는 기차를 탔다. 처음 타보는 침대기차라서 신기했다. 2층 침대로 배정되었는데, 천장이 낮아서 머리가 닿았다. 덕분에 머리에 정전기가 올랐다.

넷째 날.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기차 안이었다. 대충 나갈 준비를 하고 상하이 남부 역에 내렸다. 아침은 호텔에서 먹었는데, 나중에 다시 와 보니 우리가 묵을 호텔이 아니었다.

과학기술관을 견학했다. 우리나라의 서울과학관보다 훨씬 시설이 좋았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음극선관과 러더퍼드의 산란 실험 장치를 보았다. 입자물리학과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 꼭 보고 싶었던 실험이었는데, 정말 기뻐다.

저녁식사를 한 뒤 상하이서커스를 관람했다. 마지막에 오토바이 묘기는 정말 아찔했다. 서커스를 관람한 뒤 버스를 타러 이동하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좌회전을 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지만 버스가 경적도 울리지 않고 속도도 전혀 줄이지 않은 것이 황당했다. 중국에서는 보행자나 운전자나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다.

다섯째 날.

아침을 먹고 나서 동방명주타워를 관람했다. 259m 높이에 있는 실외 관광 전망대에 바닥이 유리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유리판들은 테이프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약간 들려있었다. 살짝 겁이 났다.

밤에 동방명주 유람선을 타고 외탄야경을 관람했는데, 지금까지 본 모든 야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가끔 옆에 있는 건물 벽에 삼성 광고도 나왔다. 정말 반가웠다.

마지막 날.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버스타고 공항에 갔다. 중국 안녕~!

아 한 가지... 가로수들의 밑동에 왜 흰색이 칠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사진으로도 찍어놓았는데 가로등 대응으로 반사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이디어가 좋다.

다녀온 후.

이번 여행은 과학고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었었다. 그런데 다녀오기를 정말 잘했다. 2년 전에는 구경하는 게 신이 나서 즐겁게 다니기만 했는데 이번엔 배우고 생각하는 게 많았다. 정말 알찬 여행이었다.

(한국과학창의력대회 최우수상 수상)

고등학교 학생 소감문



여정과 앞, 그리고 역사

경기 군포 용호고등학교 1학년 이영익

11월 22일. 새벽 5시. 여행에 대한 기대로 눈을 떠 집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이번 여행은 과연 어떨지, 그리고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먼저 우리 일행을 찾아보았다. 너무 일찍 왔는지 단복을 입은 분들이 몇 분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한명 두 명씩 모여든 우리 단원들은 벌써 열 명을 넘어선 듯 했다. 이런 여행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감회가 남달랐다.

드디어 약속시간이 되자, 서먹서먹함과 기대감 속에 발대식은 마쳐졌고, 곧이어 짐을 부친 후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나자, 일행은 벌써 대륙의 땅에 도착해 있었다.

두근거림과 새로움 속에 그렇게 여정의 첫날이 밝아왔다

아직 잘은 모르는 동생들과 선배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고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서먹하지만 몇 마디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서먹함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엔 여행의 즐거움이 차있었다

우리가 5박 6일간의 여행을 하면서 갔던 곳은 천안문과 자금성, 만리장성, 과학기술관, 인민대 부속 소학교, 상하이등 여러 역사적인 문화재들과 학교, 그리고 경관들이었다.

먼저 첫날 갔던 천안문과 자금성은 대륙의 건축과 웅장함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곧게 뻗은 지붕과 수천 개가 넘는 궁궐들이 대륙의 기상을 나타내는듯 보였다.

또한 인력거체험은, 처음엔 인력거를 탄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기대감이 교차했었는데, 타고나니 미안함보다는 ‘이런 게 진짜 여행이구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둘째 날 견학했던 인민대 부속 중,소 학교도 인상 깊었는데, 사실 중국의 학교라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낫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 터라 그렇게 큰 기대나 흥미는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우리나라의 일반 대학교 캠퍼스보다 큰 시설들과, 우리나라의 보통 고등학교보다 우수한 교육들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한 대학교 부설 학교들은 우리나라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비교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목고와 다른 점은 학문 말고도 음악이나 체육등과 같은 여러 여가생활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매우 부러웠고, 우리나라의 학교들도 그러한 교양과목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문 역시 자유로운 사고와 건강한 신체가 바탕이 되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학교전학을 마친 후 우리는 여러 박물관이나 기술관, 왕부정가 등을 견학했었는데 볼거리는 많았지만 그다지 실속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는 북경의 만리장성에 가게 되었다.

만리장성. 전에도 한번 가본 기억이 있지만, 그 길이만큼이나 오래된 역사 속에서 세기를 뛰어넘어 21세기 까지 우뚝서있는 그 장벽은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깎아지른 듯한 돌들은 투박하면서도, 부드럽게 이어져있었다. 장성을 걷다 보니 옛 사람들의 피와 땀이 여기에 묻혀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렇게 우리는 “만리장성”에 올라 가까운 망루에 올라섰다. 그리고 보이는 광경은 ‘여기는 대륙이다’라는 뜻을 전하는 듯 했다. 장성은 그렇게 뻗어있었다. 만리장성 견학을 마치고 우리는 북경을 뒤로하고 상해로 향했다

상해! 상해는 중국의 경제의 중심이라고 불리 울 만큼 우리나라의 서울보다도 더 큰 빌딩과 조형들이 널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탑이라고 불리우는 동방명주탑에 올라 상하이의 경관을 지켜보았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경관이였다. 재미 같은 인간들이 이러한 높은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던 순간이였다.

그리고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우리의 애국의 현장들은 희미하게 꺼져가던 나의 애국의 불씨를 당겼다. 책에서만 봐왔던 애국지사들과 그 지사들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공간들.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다. 로신공원과 임시정부청사에서 윤봉길의사와 김구선생님등과 같은 독립투사들의 행적을 볼 수 있었는데, 그중, ‘너도 피와 살이 있다면, 조국을 위한 투사가 되어라’라는 문구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라의 역사가 묻어있는 문구였고, 애국의 불씨를 당기는 문구였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에서 어렴풋한 애국심으로 다시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는 상해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던졌다.

이번 여행은 앞으로의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중심에 서게 될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세계를 보는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값진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여행은 하나의 경험이자 삶이고 과거와의 교감이며 미래와의 조우였다고...

(한국과학창의력대회 최우수상 수상)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학생과학국제교류에 다녀와서

충남 과학고등학교 1학년 박경서

전국 과학 동아리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한국 학생과학국제교류라는 선물이 나에게 찾아왔다. 똑똑하고 유능한 동생들과 선배들, 친구들과 함께 낯선 땅에 간다고 생각하니 떨려서 잠도 잘 수 없었다. 해외라면 일본밖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기대는 더더욱 컸다. 처음 국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단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척이나 기대되는 마음이 가득 찼다.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중국하면 생각나는 자금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금성은 엄청난 규모와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년의 시간에 거쳐서 건설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과학을 찾아볼 수 있었다. 목조로 된 수많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 주위에는 항상 물웅덩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또한 빛이 들어오는 방향도 조절하기 위해 창문의 방향도 곳곳마다 다르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인 경우, 화재가 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저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중국 부속대학 인민 부속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에는 그 규모에 또 한번 놀라고 말았다. 이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 전교생이 130명인 우리학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게다가 아홉시 이후에는 전교생이 나와서 학교 주위를 도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광경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입시라는 벽 앞에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교육이 깊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몸과 마음, 머리의 양식을 모두 쌓는게 진정한 지식의 참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민고등학교 건물에는 한 건물 전체가 과학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층별로 화학, 물리, 생물 실험실이 위치하고 있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짝 짜여지지 않은 커리큘럼 안에서 공부하는 중국의 학생들이 창의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우수성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점이지만, 우리나라도 수업시수를 줄이고, 클럽활동이나 예체능 수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듣기만 하던 만리장성에 등반한다고 하니, 날씨가 추울까, 다리가 아플까 걱정도 하였지만 과연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원래 일정에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라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바람 때문에 모노레일이 운행하지 않아서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었다. 만리장성에 발을 내딛으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갔다. ‘과연 내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것도 못 오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보니 어느새 주위에는 교수님들과 여러 선생님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귓가에서 떠나가질 않았다. 이러한 경험이 정말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내 한계를 시험하며 지원이와 함께 정상에 올라가보니 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만리장성의 엄청난 구조들을 실제로 보니 수십만의 사람들의 죽음이 이해가 될 만도 하였다. 그 작은 돌들을 하나하나 모아 지금도 지을 수 없는 길이의 장벽을 쌓았다니..... 지금도 그 길이가 정확히 측정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만리장성의 찬바람 속에서도 내 등줄기로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류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후 마음고생도 있었고, 항상 걱정이 따라왔는데 이 오기와 열정으로는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 어떤 일도 잘 해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상하이로 가기 위해서 내 생애 처음으로 야간열차를 타 보았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신축 역이라 그런지 기차역도 공항 같이 크고 깨끗했다. 야간열차는 생각보다 무척이나 잘 되어있었다. 개통한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기차 한 칸 안에는 침대 4개가 있었고 각각의 침대마다 텔레비전과 등이 있었다. 아쉬운 점은 짐칸이 없어짐을 침대 아래에 놓아야 한다는 점이 있었다. 기차 안에서는 떨리는 마음 때문에 선잠을 자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쉽없이 10시간을 달려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상하이는 마치 북경과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건물들과 야자수 나무들은 서울과 제주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북경과 기온차이도 무척 많이 났다.

상하이 과학박물관에 처음 들어섰을 때, 한국의 중앙과학관과는 다른 느낌이라 약간 당황하였다. 각각의 층마다 대부분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었다. 그리고 지하에는 매표소가 있어 4D, 3D극장의 표를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있었다. 그 내부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화학관련 전시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학교 화학수업시간에 배운 여러 가

지 실험기구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원자핵과 전자의 발견부터 시작해서 전기공학의 모든 것 까지 상세하게 전시되어있었다. 생명 공학관에 들어갔을 때에는 왓슨과 크릭 선생님께서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하여 주셨다. DNA 모형 앞에서 사진도 찍고, 세포구조관에서는 세포 속을 들어가 영어 설명을 듣고 읽어보면서 생명과학자의 길을 가는 데에 더욱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IT공학관에는 여러 가지 로봇들과 IT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과학관인 중앙과학관에도 일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기는 하지만 거의 듣고 보는 전시물이 대부분이다. 거기다가 유년들을 위한 과학 전시물들은 충분히 마련되어있지만 고등학교 이후의 학력에 맞는 과학전시물들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느끼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런 점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커우 공원은 국사시간에 윤봉길의사의 의거 이야기로 많이 들어왔던 곳이었다. 지금은 중국의 유명한 작가, 노신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윤봉길의사가 의거한 곳에는 윤봉길의사를 추모하는 추모비와, 소규모의 박물관이 건설되어 있었다. 그 곳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마지막에는 발전기금을 내고 사인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한 것 같아 약간의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상하이 임시정부에 가서는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유명한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보면서 지식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 때에는 일부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바꾸어 나라를 배신한 사례도 많은데 그 안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지키려고 한 모든 분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다.

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얻은 또 하나의 배움은 동생들과 함께 지내는 것 으로부터 왔다. 동생들과 다섯 밤을 함께 지내고 같은 호텔방을 쓰면서 언니로써 해야 할 도리도 배우고, 조원활동을 하면서 책임감도 쌓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중국음식은 너무 기름져서 입에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외에 왔으면 그곳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것 같아 모두 열심히 먹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숨 가쁜 5박 6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5박 6일은 내 일생에 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다. 중국의 수준 높은 과학교육의 실정과 중국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내 인생에 이러한 기회가 언제다시 찾아올지 몰라 이 기억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들에게 본받을 점을 본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노벨상이 있기를 소망한다.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넓은 대륙에서 경험한 넓은 세계

충남 과학고등학교 1학년 안지원

과학동아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차 올랐다. 열성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일들이 순간 머릿속에 스쳐지나 갔다. 과학고에서만 생활하던 나에겐 학생과학국제교류는 다른 학교, 다른 학년인 우수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중국은 미국, 유럽, 호주 등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거나, 전혀 다른 서구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 또 그 전까지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다. 경제체제나 교육과정은 물론 중국인들의 의·식·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어 중국을 그냥 땅이 아주 넓고 인구가 아주 많은,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정도로만 여겼었다. 그러나 학생국제교류를 통해 중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중국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이젠 정말 나의 알팍한 지식에서 비롯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북경에 도착해서 도시의 엄청난 규모, 방문한 학교에서의 교육열과 창의력 중심의 진보한 교육 시스템을 보고 중국이 머지않아 세계중심나라로 성장 한다는 말이 단지 많은 인구나 넓은 토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북경에서의 마지막 날에 만리장성에 올라갔다. 그날따라 하필 바람이 많이 불어 리프트를 타지 못하고 처음부터 걸어 올라가게 되었다. 올라가면서 ‘정말 이걸 그 옛날에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만리장성 건축에 원동력이 되었을 엄청난 인구수와 재정에 경외심이 들 지경 이었다. 또 가파르긴 왜 이리 가파른지 옆에 난간을 붙잡고서야 겨우 올라갈 수 있었다. 정상에 도착해 바라본 그 맑은 하늘과 저 아래로 펼쳐진 장경이 너무 멋져서 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그날 밤은 기차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상해로 가는 야간 기차였는데 가이드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그 기차가 생긴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차 외에도 기차역이나 우리가 이용했던 호텔들 역시 2~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신식 시설들 이었다. ‘아, 정말 중국의 현대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해에서는 직접 작동하고 체험하면서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지도록 구성된 과학관에 놀랐고, 외국 기업의 고층건물에서

나온 네온사인인 만들어낸 아름다운 야경에 감탄하였다. 특히 상해의 홍저우 공원과 상하이 임시정부청사에서는 예부터 가까웠고 영향을 끼친 중국과 한국의 역사와 조선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조상의 애국심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또 상해에서 옛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을 이용해 가게나 음식점들이 형성된 거리를 보고 우리나라에선 많이 파괴되고, 허물어버린 옛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어느새 5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마지막 밤에 호텔에서 지나간 5일을 회상해보았다. 같이 방을 사용한 초등학생인 동생과는 물론 2호차 버스 동생, 오빠들과 금세 친해진 것, 3조의 조장으로 임명되어 조원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빴던 일, 그동안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낀 중국의 문화를 하나 하나 되새겼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학교에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간 것과는 또 다른 국제교류였고, 어찌면 두 번 다시 경험하기 힘든 기회였다. 사실 처음에 시험에서 바로 2주일 전 1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빼고 중국으로 가야한다니 내심 걱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는 소중한 자습시간에 나와 동아리 활동을 하였던 시간마저도 이렇게 멋진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깝지가 않았다. 학생국제교류를 통해 느낀 것과 배운 것이 너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소중한 경험

인천 연수고등학교 2학년 민세호

비행기를 타고 처음 북경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에 대해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기껏해야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아직은 덜 발전한 나라라는 생각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설 때에는 그 생각이 정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중국은 세계 최고가 되는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중국에 가서 본 중국의 교육, 경제, 문화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북경과 상해의 과학기술관과 명문학교들은 중국의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느끼게 해주었고 그와 동시에 평소 TV나 신문에서 본 중국 과학기술 성과들이 생각나면서 중국은 이미 그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제야 누군가가 한 말이 실감났습니다.

‘중국의 천재들은 로켓을 쏘고, 한국의 천재들은 메스를 잡는다.’

처음 도착해서 둘러본 북경도 인상 깊었지만, 사실 가장 놀라웠던 건 일정 중반 즈음에 기차를 타고 도착한 상하이입니다. 뻑뻑하게 들어찬 높은 빌딩들과 동방명주탑에서 본 상하이의 모습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일정 마지막 날 전날 밤에 본 외탄 야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인천대교를 통해 집으로 오는 길에 송도신도시를 바라보는데, 인천의 자랑거리인 송도신도시가 그렇게 초라해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수도이고 송도신도시는 IFEZ, 즉 인천경제자유구역인데 대부분 고급 아파트들뿐이라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은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습이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직접 가서 본 중국의 모습은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웠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을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뒤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경에서도, 상해에서도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모습이 공존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치기배들이 많으니 어디서나 물건 관리 똑바로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게 중국의 빠른 발전의 이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대로 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복지와 시민의식에도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체험한 것 말고도 이번 여행에서 좋았던 것은 전국의 과학 영재들과 교류하고 저의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행은 단지 국제교류로 끝나지 않는, 간접적 국내교류라 할 만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 모두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과학 인재들이지만 그들도 모두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학생이었으며 그래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행을 더욱 더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나서 처음 생각난 것이 홈페이지에 적혀 있던 '상위 수상자는 학생과학국제교류 참가 예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상위 수상자가 정말 제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룩하는 중국행 비행기에서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정 중간에도 또 일정이 끝난 뒤에도 그런 생각은 여전히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대되는 여행이었고 또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큼 보람차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중국 여행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제 인생동안 안목을 넓혀 주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최우수상 수상)

학생과학국제교류 소감

인천 연수고등학교 2학년 이호진

처음 중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험기간도 겹치고 11월 모의고사도 겹쳐서, 가지 말까 생각도 해봤지만 전국의 훌륭한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이 국제교류에 참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경비들이지 않고 갈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 학생 참가자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최고 학년 이었던 덕분에 제가 난생 처음 2조의 조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워낙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애들을 이름을 외우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애들이 저에게 잘 대해줘서 조장 노릇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 모두 전국 상위 0.01%에 드는 학생들이라서 많이 딱딱하고 얌전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다들 털털하고 어른스러워서 동생과 친구들을 상대하기가 다소 편했습니다. 식사도 만족스러웠고, 숙소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또 교류 기간 동안 큰 사고 사건 없이 무사히 잘 귀가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은 지금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엄청난 발전을 보이고 있고 한국이 최강이던 반도체와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을 앞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중국에 가서 중국의 원동력을 파헤쳐 조국에 이바지 하리라 다짐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베이징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영재, 똑똑한 아이들에 대한 엘리트 교육의 철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은 각 지역에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덕분에 그들이 배우고 있는 수업, 지원 되고 있는 환경들은 한국의 여느 특목고수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수혜자 대상이 중국 전체 인구 대비 너무 소수라는 것 입니다. 마치 가진 자들의 자식들만을 위한 학교라는 분위기가 풍기는 바람에 저에게는 약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나치게 사회를 양극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 조금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견학 기간 동안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다면 비록 보고 배운 것도 많았지만,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배우는 것 보다는 중국에 세어놓은 박물관을 보고 왔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스케일은 크고 섬세함이 조금 떨어지는 면에서 ‘역시 큰 나라, 역시 중국답다’라는 것을 느끼려 간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 위주의 체험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과학관, 박물관 같이 한국에도 있는 곳을 견학하기 보다는, 중국 외에는 없는 중국이라서 볼 수 있는 곳을 방문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분명히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기회가 되어준 이번 국제교류는 제 미래와 마음가짐에 있어서 적지 않은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국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들의 경쟁상대는 우리 반 친구, 학교친구, 국내가 아닌 전 세계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최우수상 수상)

과학의 눈으로 세계를 보다

경기 용인 수지고등학교 2학년 김상연

처음으로 국제교류에 참가하였다. 그것도 과학국제교류, 의미 있었다. 그냥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것과 다른, 또 다른 공부를 했다고 본다. 더 의미 있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주입식 위주의 공부를 해 나오는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려 든다. 학생때, 어릴때, 과학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느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듯하다. 과학의 눈과 심장의 열기도 그만큼 가치 있고, 때론 더 뜨겁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중국이 많이 변했다. 불과 5년 사이에 외부 모습으로는 정말 많이 변한듯 하다. 처음, 공항에 입국할 때 그 규모는 공항 안에 전철이 있을 정도로 상당했다. 비포장도로로 가득 찼던 도시가 포장도로로 바뀌었고, 거리의 거리 무리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올림픽을 계기로 보여주기 위한건지, 잠자던 호랑이가 드디어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건지, 이웃나라의 발전에 새삼 몸이 떨렸다. 대륙문화의 광대함일까? 그 유전자가 아직도 이어지는지, 벌써 일본을 따라잡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한다. 그러나, 그 내부사정은 여전했다. 자금성 뒤의 거리들을 비롯해 의심스러운 눈빛은 5년 전을 상기시켰다. 수도마저도 이런데 다른 곳은 어떨까?

과학기술관을 견학 갈 때,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관이라는 말에 많은 기대를 했다. 북경과학기술관은 과천과학관, 남산과학관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설명과 체험활동이 고루 잘 돼있었다. 기초과학관은 특히 체험활동 면에서 인상 깊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과학관면에서는 그리 뒤떨어져 있단란 느낌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뛰어나다 하겠다. 이러한 느낌은 상해과학관에서 더욱 느꼈다. 사전에 상해과학기술관이 새로 생겨다 해서 많은 기대를 안고 갔지만, 겉치장만 요란하고 실내에 체험활동이 전혀 없이 흡사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은 곳을 과학기술관이라 하니, 역시 중국이 아닌가! 란 실망만 안겨줬다. 방문한 학교에서 모형만들기를 많이 하던데 그 여파인지 모형이나 외양적인 면에 너무 치우친다. 보여주기 식, 사회주의 영향이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분야에서도 고루 퍼져있는 듯하다.

모두 그렇겠지만 나는 특히 학교에 영감을 많이 얻었다. 우리는 중국의 학교 중 시범학교, 우수학교에만 방문한 것을 알고 있다. 허나, 그들 과학교

육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다. 난 초등학교 시절에 실험실에서 가졌던 추억은 알코올램프에 수수깡 태우는 것 말고는 없었다. 과학실에 갈 기회가 적었으며 과학실도 1개밖에 없었으니, 여섯 개 학년이 실험수업을 하기엔 실정상 터무니 부족했다. 또한, 중학교엔 과학실이 2개였고, 지금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한 학기에 3~4번 실험할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한 학교는 활동중심, 연구와 탐구를 중요시하고, 심지어는 ‘과학연구’란 과목이 있다는 것. 또한, 문을 꼭 잠그고 과학실을 전시관 마냥 보존하는 우리나라 학교와는 달리 개방적으로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한다는 점. 그 점에서 과학실 방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나로서는 큰 어필이 되었다. 과학실험을 하지 못하고 오직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한국학생들이 과연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 부끄럽고 안타까웠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도 과학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방식차원에서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그리고,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식도 코앞의 대학교보다 더 큰 미래를 내다 봐야한다. 과학과 기술은 가만히 앉아서 내용정리하고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중국의 교육방식이 장점만 있다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실험실, 과학활동실을 방문하면서 모형, 장식물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활동수업도 보통 만들기를 위주로 하는 듯 했다. 그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다보니 과학기술관도 모형으로 전시하나보다.

중국, 그리고 세계의 발전과 도약을 느낀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우수한 인재들과 해외에서 교류할 수 있었고, 혼자 참여했는데도 잘 대해준 고마움과 감동이 소감문을 쓰는 지금도 내 가슴을 떠나지 않는다. 과학의 안목을 높이는 좋은 기회였고 이러한 행사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금상 수상)

중국을 다녀와서

전남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 2학년 순민하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수상에 따른 부상으로 중국 북경과 상해 간다고 결정되었을 때, 처음에 나는 실망감과 섭섭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나에게 중국에 대한 인식은 ‘더럽다, 후진국이다, 공산국가이다’처럼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4~5년 전에 북경을, 2~3년 전에 상해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 국제교류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한국학생국제교류’를 통해서 보고 느낀 중국의 모습은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방문했을 때의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느낌이 많이 났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선진국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 중 상해의 모습은 가장 화려하고 멋있었다. 마치 미래도시를 보는 것처럼 도로가 멋있게 뻗어 있고, 각 건물 하나하나의 모습이 다양해서 눈이 즐거웠다.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서양적인 기술이 모두 한 데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북경과 상해의 각각의 과학기술관이었다. 나는 중국 과학기술관의 거대한 규모에 한 번 놀라고, 다양한 과학기술과 그에 따른 체험시설에 두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과학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새롭고 흥미로웠다. 과학시설 중에 소화과정을 탐험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긴 통로를 작은 레일기차로 타고 가면서 몸속에 있는 각 소화기관의 역할과 소화과정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놀이기구처럼 3D안경을 쓰고 내가 음식물이 되어 몸속 기관을 탐험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고 독특한 경험이었다.

구경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각 기관에 관련된 소개들이 모두 중국어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모르는 우리는 하나하나에 대해 추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어를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 중 하나는 어떤 방에 입구와 출구가 한자로 써져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면 뭔가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에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일단 그 방에 들어간 우리는 더듬더듬거리며 출입구를 찾았다. 출입구를 찾는 도중 중국 남학생들의 장난으로, 친구가 겁을 먹어서 나는 가까스로 친구를 데리고 그 방을 빠져 나왔다. 그 때의 기억을

잇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북경에 있는 중학교와 소학교였다.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보다 더 큰 중국의 중·소학교는 시설도 굉장했지만 그 안에 학교 시스템 또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이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 개인에 적성에 맞는 교육과 창의활동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중국의 모습에 놀람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중국의 자전거도로 또한 마음에 남았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정해진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도나 인도 한 쪽에서 타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더 안전하고 보기도 좋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전거도로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중국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통준수의식이나 질서의식이었다. 우리가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새치기하는 중국인들을 많이 겪었다. 그리고 중국 도로에서 신호등을 지키거나 사람을 피하는 차를 본 적이 없었다. 버스를 타고 도로를 내다 볼 때마다 사고가 날까봐 마음을 졸였다. 심지어 나는 횡단보도를 걷는 도중 내 앞 10cm에서 어떤 버스가 지나가 실제로 사고가 날 뻔했다. 중국에서 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번 중국으로 간 ‘학생과학국제교류’를 통해서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잠재력이 큰 나라인지, 더불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나’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그 또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금상 수상)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전남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 2학년 전소망

2010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간의 학생 과학 국제 교류는 나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나는 여행에 대한 설렘만을 안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나는 분명 떠나기 전과 달라져 있었다.

고등학생으로서의 생활은 늘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야간 자율 학습까지 마친 뒤 집에 와서 잠을 잔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일상의 반복. 이런 일상 속에서의 나는 먼 미래의 '나'를 내다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능시험에 대한 생각에 바빴다. 하지만 이번 학생 과학 국제 교류는 나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나에게 더 먼 미래를 내다보게 해 주었다.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곳은 중국의 학교와 과학 기술관이었다. 중국 학교의 시설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떨어지고, 교육 수준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뒤쳐질 거라는 나의 생각과는 달리 좋은 시설 속에서 각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중국의 수업 방식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리고 베이징과 상하이의 과학 기술관은 그 규모부터 우리들을 압도했다. 사진을 찍으려 해도 건물이 사진 한 장에 다 나오지 않을 정도로 컸고, 그 속에 있는 전시관 역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 생명과학, 정보과학 등 현대 과학에 대한 전시관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 과학 전시관까지 있었던 점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여러 곳을 탐방하고 특강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점은 중국이 많은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 기술을 빠르게 발달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중국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들이 과학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과학 기술을 발달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과학 기술의 발달만을 생각하던 나였지만, 이번 국제 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의 과학 기술의 발달 수준을 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과학은 어느 한 나라에서만 발달시

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각 나라들이 함께 발달시켜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처럼 나는 학생 과학 국제 교류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나라 안에서의 한정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무대로 하여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게 된 것이다.

여행을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 왕부정가와 같은 중국의 거리들, 동방명주타워에서 내려다 본 도시의 모습, 상하이의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여행을 통해 얻은 새로운 생각들은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금상 수상)

지도교사 소감문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도전을 기약하며

경남 사천 동성초등학교 교사 정정혜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은 방학도 뒤로 한 채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뛰어 다니며 이마에 땀이 송송하게 보고서를 썼던 보람이 있어 자연관찰탐구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하게 되어 2010년 학생과학국제교류로 중국을 견학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 아이들과 떨 듯이 기뻐다.

떠나기 전부터 5박 6일의 일정표와 우리가 견학할 곳을 미리 인터넷으로 조사하며 우리의 마음은 벌써 중국의 만리장성과 상하이로 떠나있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서 같은 단복을 입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여행의 동반자임을 느끼며 발단식을 하고 출발!

960만km²의 넓은 땅, 12억 5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광활한 대륙인 중국을 상징하는 천안문과 자음성에는 중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과 마오쩌둥의 사진과 오성홍기 아래에 부동자세로 서있는 군인들을 지나 중국의 상징인 자금성으로 들어 가보니 그 웅장함이 중국 대륙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자전거로 모는 인력거를 타고 북경 뒷골목의 체험은 고속 성장으로 우뚝 서있는 건물 뒤로 서민들의 생활이 리얼하게 드러나 있는 뒷골목의 풍경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다음날은 중국 인민대 부속소·중학교의 방문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여 손님을 맞이해주는 태도에 감사드리며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에 걸맞게 2교시 쉬는 시간에는 전교생이 체력 단련을 하는 모습이 중국이 올림픽 대회에서 다른 나라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가 싶었다. 그다음 과학 기술관을 관람하였는데 학생들이 직접 만져보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점이 좋았다.

둘째 날에는 여행으로 인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실에서 교사들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학생과학탐구올림픽 대회를 지도한 교사들답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놀라웠고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할 수 있는 모습이 당당해 보였다.

셋째 날 오후에는 중국의 대표적 상징물인 만리장성을 갔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바람이 많이 불어 케이블카도 모노레일도 타지 못하고 도보로 갔다. 혼자서 몸으로도 올라가기가 힘들는데 이렇게 긴 만리장성을 쌓기 위

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으며 희생이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중국은 관광 수입을 엄청나게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는가?

야간에는 상하이로 이동하기 위해 야간열차를 탔다. 특실이라 잔뜩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작은 공간이라 약간은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차창 밖을 보며 잠을 청했다. 내 생애 이런 체험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의 상하이는 단복을 입고도 따뜻한 정도니 중국보다 기온이 높다는 것이 마음이 놓였다. 일제하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장렬하게 돌아가진 윤봉길 의사와 상하이 임시 정부를 건학 후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이 많은 애국자들이 먼 이국땅에서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상하이의 마지막 날! 5박 6일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유람선을 타고 외탄야경의 관람이었다. 낮에 보았던 높이 477m의 동방명주타워가 아름다운 원으로 우뚝 서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으며 유럽의 야경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상하이의 야경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을 것 같다. 설레이면서 기다렸던 5박 6일의 여정, 낯선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 2010년 학생과학교류에 참가한 임원진, 열정이신 선생님들, 우리의 과학 꿈나무들과의 소중한 만남들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

(자연관찰탐구대회 최우수상 지도교사)

보고, 느끼며, 배우며

대전 산성초등학교 교사 권남연

짧지만 여운이 남는 이번 체험...

짧은 기간이었지만 거대 국가 중국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삶을 과학의 눈으로 탐방하고 즐기는 여정이 되었다.

첫째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른 새벽인 관계로 모두 잠든 차안이었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잦은 여행으로 외국관광은 많았지만 중국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설렘을 앓고 중국의 북경에 도착하였다. 중국 가이드의 말로는 북경올림픽 때 공항 및 도로가 정비되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그 말처럼 공항의 첫느낌은 내가 생각했던 중국의 이미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정돈된 도로, 깨끗한 환경, 공항과 대기소를 가는 중간의 열차이동은 버스를 타고 가는 대한민국과는 사뭇 달랐다.

그렇게 도착한 북경.

첫 날이라 그런지 간단한 관광이 우선이었던 듯 했다.

천안문과 자금성을 관람했다. 옛 중국의 문화가 간직되어있었다. 가이드의 많은 설명과 책을 통해, 또한 직접 관람을 하며 보았지만 내 눈에는 우리나라 문화재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인력거를 탔다. 사람이 끄는 자전거 수레라고나 할까? 눈부신 중국의 모습과는 달리 허름한 차림에 나이든 남자 어른들이 끄는 수레를 타며 빈부의 격차와 인권(?)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채웠고, 그 와중에 보는 바깥 풍경과 생활모습은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들은 이른 시각부터 분주했다. 중국인민대학교와 부속 중학교 및 소학교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들어서며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물론 중국에서의 엘리트 학교인 탓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학습모습, 영어실력, 수업태도 및 교육과정 역시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복 같은 실용적인 교복(?)차림의 복장도 눈에 들어왔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빼고, 실용성을 강조한 듯 보였다. 과학 수업장면도 볼 수 있었다. 학교당 1개 내지는 2개 정

도 있는 과학실과는 다르게 하나의 건물을 과학실로 마련하여 생물, 지구과학, 화학, 물리 등 다양한 교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교실에서 뿜어 나오는 느낌은 그 과목으로 빨리 들어갈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그 수업에 빠져 공부하는 모습 역시 날 더욱 반성하게 만들었다.

셋째 날 우린 만리장성을 관람하게 되었다. 세계 8대 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만km에 달하는 장성은 만들었다니, 참으로 인간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구나. 또한 과학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과학 물품들을 볼 수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중국에서 뒤쳐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아찔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북경을 보고, 상하이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10시간 남짓 기차를 타고 북경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기차였다.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런 기차가 많이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기차안의 편의시설 역시 너무나도 훌륭했다.

넷째 날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관람했다.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더욱 발전 시켜야 하는데, 중국이 이토록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잠시 주춤했다는 생각 또한 나부터 반성해야겠다는 생각들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중국의 야경.

야경만큼이나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 십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는 견주지도 못했던 나라. 이런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중국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은 교육자인 나에게 또 다른 자극으로 다가왔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 의해 바뀌어 질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말이다.

(자연관찰탐구대회 금상 지도교사)

거대한 나라 중국에 발을 내밀다

광주 유촌초등학교 교사 이양자

학생에게 있어 지혜와 경험을 전수받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가르침은 굳이 교실만 혹은 교과 수업만이 아닐 것이다. 헤아려보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가르침은 교실 밖 다른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국 과학국제교류단 활동은 나와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아주 감명 깊은 여행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은 한비야의 중국 견문록 이후 EBS방송의 세계테마기행 또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 많은 다큐멘터리 등을 보았으므로 새삼스러울 건 없었다고 본다. 또한 백두산 여행을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일부이지만 우리 나라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말을 들어 기대가 되었으나 일단은 장님이 코끼리만지기 격의 후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은 면면히 내려오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이므로 특히 흥미롭고, 중국에 대한 기대는 5년 전 홍콩과 심천을 갔을 때 이미 조금은 경험한 터라 그닥 크진 않았지만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나로서는 아시아의 거대한 나라 중국이라는 땅에 또 하나의 동그라미를 기록하자는 의미와 과학교류단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중국의 과학 교육의 현주소를 발로 밟아 가며 파악해보자고 생각했다.

중국대륙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소란함에 바로 실감이 확 왔다. 내 이름이 양자여서 늘 “양쯔야.”라고 친구가 놀려대던 바로 그 양쯔강이 흐르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빈부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거대한 나라의 공항은 여러 다국적 인간들의 집합소로 영어 중국어, 독일어 등등의 온갖 말이 들려 왔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중국어들.... 나의 생활영어 대신 생활 중국어 뿌이부치, 부커치, 위 아이니, 씨에 씨에 위쓰 한꿔런. 나쓰 중꿔런? 이러한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쪽 들어갈 만큼 시끄럽고 빠른 말로 지껄여 대고 있어, 관광객이 무슨 소음 타령이라만, 귀를 틀어 막아야 할 정도였다. 게다가 건물을 나서기만 하면 아이들이 있건 말건 도처에서 술술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에 방독면이라도 써야 할 지경이었다.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고 영국의 히드로 공항처럼 1터미널 2터미널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크다거나 근사하지는 않았다.

먼저 첫날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방문하였다. 세계의 왕궁 중에서도 가장 넓고 크기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거대한 자금성은 영화 마지막 황제 부의의 이야기에서 보던 대로 과연 장대하였다. 9천 9백 9십 9개의 방이 있어 갓 태어난 아기가 한 방에서 하루씩만 자면서 살아도 27살이 된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만리장성 천안문 광장은 중국을 상징하는 관광명소라서 인지 많은 현지인들, 외국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 있었고 가이드가 설명해 준 것은 이미 책에서 또는 다큐멘터리를 너무 많이 본 이유로 다 익히 들어 왔던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 방대함에 혀를 내 두를 지경이었고 분위기는 마치 우리 나라의 고궁에 온 기분이었을까? 역시 같은 문화권이라 익숙하기는 했지만 흥미롭기는 하였다. 이화원이 좀 싱거웠다. 아름답다고 해도 조각은 있으되 나무와 풀이 없는 정원은 매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음식은 그야말로 기름기가 좌르르한 그리시한 푸드들이었다고 평한다면 너무 과한 것일까? 누군가 문화를 스타킹에 비유하였던 건 정말 맞는 비유라고 생각한다. 얼마든지 늘어나는 고탄력나일론 스타킹처럼 그 곳에 가면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이블을 돌리며 먹는 하이난이란 중국집 체인점에 갔을 때처럼 테이블을 빙빙 돌리며 식사를 하는 것에 처음엔 그저 기대도 되었고 신기했다. 특히 첫날 만두집에 가서 군만두, 찐만두, 만두튀김, 만두국, 숙빈만두, 만두빵, 물만두 이런것이 쭉~ 나올때까지만 해도 제법 맛이 있었고 ‘아,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덩섬이나 만두 따위 좀 먹어볼 것 같다.’ 하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다음 날부터는 만두는 웬걸? 본격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은 강한 향신료와 기름진 음식이 여행자를 질리게 했다. ‘고수’라는 향신료! 한국 배우 고수와 이름은 같으나 냄새는 사뭇 지독하였다. 많은 음식들이 우리처럼 데치거나 무쳐먹는 것은 없는 듯 했고 녹두 나물이나 콩나물 도 기름에 볶는 모양이었다. 중국 요리들은 대부분 모든 음식을 기름을 듬뿍 쳐 발라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민가의 정식 상차림(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삼첩 반상, 오첩 반상 이러한)요리를 먹지 않고 식당 요리만 먹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먹어 보면 만들 수 있다는 나의 요리 철학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들고 싶지 않은 요리들... 차라리 한국의 식당 하이난에서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고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여정에 힘들거란 생각에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한 결과 아프지는 않고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중국의 인민대부속소학교로 갔을 때, 나는 국제과학교류단의 책임을 망각

하고, 전공에 걸맞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과 그 학교 아이들의 영어 실력, 그 학교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가늠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몇 달 동안 연습해서 공연한다는 폐품을 활용한 영어연극을 그것도 뉴욕인가 국제 대회에 나가 수상했다고 동영상 보여 주었는데 정작 아이들과 몇 마디 영어로 대화를 시도 해 본 결과 그건 그저 퍼포먼스였고 단지 연습일 뿐이었고 대화가 통하는 아이는 한 두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인민대 부속 소학교의 교사를 일부는 대학에서 직접 뽑는 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와는 대학이나 소학교의 행정 당국의 열린 제도가 부러웠다. 물론 검증이 되지 않은 교사를 쓴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만 우리 나라의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사들이 평균연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긴 하다.

북경 4중학교는 교실이나 시설 면에서는 역시 인구가 많은 관계로 중고 모두 과밀학급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한 교실에 선택과목별로 심지어는 50명씩 반을 편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시급히 학급당 학생 수가 축소되어야 함을 느꼈다.

상하이선 국제도시답게 깨끗하고 도처에 대형 호텔들이 각양 각색의 외관을 자랑하였고 468미터나 되는 동방명주 타워는 아찔하였다. 황포강 유람선에서 본 도시의 밤은 야경을 한껏 뽐내었으며 관광객도 추운 날씨에도 많았다. 북경에서 도처에서 만나던 행상이나 홈리스 피플(걸인)은 상해에는 덜했다. 우리가 묵는 호텔은 시내에서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은 잘 볼 수 없었다. 특히 민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겨우 한 곳을 볼 수 있었다.

노신 공원과 동방명주 타워를 가서는 정말 그 거대함에 처음엔 놀라고 바닥이 투명하여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높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놀란다. 몇몇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투명 전망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벽에 붙어 있었는데 나는 담력이 있다고 자부하였지만서도 아닌 척 하였지만 땀엔 무서워서 혼났다.

윤봉길의사 기념관과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게 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기개와 충성심에 절로 고개가 숙여 졌다. 아지 못할 어떤 비장함마저 감도는 윤봉길의사의 유품들, 김구 선생의 생전 쓰시던 사무실과 가재도구, 집기 등에서 풍기는 위엄이 나의 발목을 잡으며 조국의 번영을 위해 정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나 나태함

으로 아직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고 아우성치는 것 같아 어깨가 무거워졌다. 나를 포함한 몇 명의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유적이 더욱 잘 보존되도록 작은 금액이나마 기부를 하였다.

말로만 듣던 거대한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만리장성을 축조한 나라, 468m 높이의 동방명주 타워를 만든 나라. 꿈틀대는 아시아의 강국 중국의 가능성을 보고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자신의 국민들의 인구조차도 모두 헤아리지 못하고, 웃돈을 주어야 학교에도 입학할 정도로 부정 부패가 만연한 나라, 거대한 몸뚱이에 비해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방에 자신의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중국이란 괴물의 거대함이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다. 그러나 애 과학, 학 과학, 숭상 과학의 기치를 내걸고 과학 발전을 위해 국가가 손발을 걷어 부치고 나서서 각급학교에서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에 부럽기 그지없다.

그리고 중국의 물가는 전에 비해 그리고 현재도 원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절상되는 시점이어서 그리 쉽사리 추세가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국 여행을 가실 분들은 서두르라는 가이드의 충고가 곧 사실로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단순히 전에 중국을 다녀 온 지인들의 말대로라면 중국을 더럽고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라고들 입을 모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인식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본 바 중국의 과학 발전의 의지를 본받아 더욱 과학 교육에 박차를 가하여 과학 교육에 정진하여 과학을 통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키워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자연관찰탐구대회 금상 지도교사)

과학국제교류행사를 마치고

경남 함양 위성초등학교 교사 진은정

2010년 11월 22일~27일. 나에게는 너무나 뜻 깊은 날이다. 수상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린아이처럼 마냥 기다렸다. 왜냐하면 지도했던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포상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은 4번째의 중국여행이다. 그런데도 나를 설레게 한 것이다.

국제과학교류행사에 참가한 사람은 79명이었다. 서울, 대전, 광주, 포항 등. 우리들이 제일 멀리서 참가한 팀이었다. 경상남도 함양군이니 말이다. 우린 대전까지 와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을 갈아타고 인천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5-6시간의 차멀미로 새벽에 한 아이가 아픈 바람에 잠을 설치고 떠나기 전부터 공항병원진료를 받아야 했으나 지금 생각하니 이 또한 아름다운 추억이리라.....

중국 북경에서 첫 날, 우리들은 천명을 받아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을 가진 천안문, 명청시대의 궁궐·푸위의 마지막황제의 촬영지라고 소개된 자금성, 서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후통거리 인력거 체험을 하였다. 중국의 민주화 시위로 수많은 민간인과 대학생, 군인들의 피로 얼룩졌던 북경의 상징·중국 혁명의 상징 천안문에 들어서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 중국 사람들의 드넓은 기개를 대표하는 명소, 세상에서 가장 큰 광장중의 하나라고 불리는 수식어 앞에 남쪽의 모택동 기념당 또한 인상 깊었다. 방이 만 칸에서 반칸 모자란다는 자금성을 보면서 우리의 크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궁궐이 생각난 것은 왜일까? 작지만 모자람이 없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다. 공교육과 사교육 방과 후 이리저리 쫓아다니기에 바쁜 우리 아이들도 우리 것의 소중함, 훌륭함을 알고 있을까? 우리들은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둘째 날, 북경 인민 대학교 부속중학교, 소학교를 방문하여 중국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동영상을 통해 보기도 하고, 직접 대화도 나누어 보고, 사진 촬영도 했다. 우리 아이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중국 깊숙이 들어와 학교를 방문한 것은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다. 교사로서 나를 돌아보게 했다. 자신감 넘치는 그 곳 교사들. 해맑은 웃음으로 점심을 자기학교에서 먹는 것이 어떠냐면서, 맛있다면서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던 초등학교 3, 4년쯤 되어 보였던 아이의 모습에서 예전의 중국모습은 읽을 수가 없었다. 보조개가 인상적이었던 해맑은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어른거린다. 그 아이의 모습처럼 중국도 더 세련될 것이다. ‘교사로서 늦지는 않았을까?’ 조바심으로 북경에서의 이틀을 보냈다.

셋째 날, 드디어 만리장성으로 향했다.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거대한 유적이다. ‘무모하지 않은 담쌓기였을까? 인간의 무모함의 극치일까? 위대함일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세계의 모든 달러를 긁어모으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고 하니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정답이 없다. 가파른 만리장성을 기어서 오르던 태연이. 각이 70도는 되겠다며 끙끙거리던 초등 4학년생 막내였던 준원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곳에서 남편한테 휴대전화를 걸었다.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기원전 200년 때와 서기 2010년. 아이러니한 죽음과 삶을 느꼈다.

우리들은 KTX보다 2배나 빠르다는 고속열차를 10시간이나 타고 상해에서 3일을 더 보냈다.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는지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투여한 홍구공원은 노년을 즐기려 나온 노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역사의 현장은 스포츠센터가 들어서 있었다. 윤봉길 의사와 테러범의 차이를 묻는 가이드의 질문에 아이들은 언뜻 대답하지 못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거렸다. 국, 영, 수 학원만 준비한 우리의 교육현장이 새삼 안타깝다.

“중국의 넓은 지역 중에서 왜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을까요?”

“도시락 폭탄의 윤봉길 의사보다 왜 사람들은 김구 선생을 더 존경할까요?”

상해에서 던진 태연이의 질문이다. 무심히 넘기기 쉬운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홍구공원과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아이들과 나에게 천안문 광장에 휘달리던 붉은 깃발보다도 더 큰 의미로 새겨졌다. 끝으로 상해 과학기술관, 박물관, 외탄야경으로 우리의 일정은 마감됐다.

5박 6일 동안의 국제과학교류 행사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했다. 이미 세계문화유산·자연유산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부강하고 있고, 우주과학기술에서도 일본을 앞질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거대한 대륙에 붙어서 그 대륙의 용광로에 먹이지 않고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류를 열풍을 불게 했듯이 우리는 또, 무엇을 가지고 우뚝 설 것인가?

연평도 공격, 연내 경기도 추가 공격이라는 뉴스 자막, 분단된 조국의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보다 더 듬직한 5박 6일 동안 함께 했던 과학영재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느끼며 기념 샷을 누른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지도교사)

교사에게 자극이 된 학생과학국제교류

대전 도마초등학교 교사 정은경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국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학생과학국제교류를 통해 5박 6일간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 왔다. 중국의 과학동향 및 학교 교육에 대한 특강, 북경과 상해소재 학교 방문, 북경과학기술관·중국항공박물관·상해과학기술관 등 과학관련시설 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국제교류가 내실 있게 이루어졌다.

정부수립 이전부터 중국의 사상 기반이었던 사회주의 사상이 주류로 작용하면서 많은 특징적인 성인교육제도가 자리 잡았지만, 서구화 및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사상적 변화를 겪는 가운데 실용주의 사상의 강화로 인하여 교육제도가 많이 변한 중국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다.

각 학교마다 자리 잡은 많은 과학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중국학생들, 비공개 교실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하는 학생들, 교사들의 열성적인 수업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 교사로서 많은 자극을 받고 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과학에 관심이 많은 열성적인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국인민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견학이었다. 이 학교는 중국 교육부에 직접 소속된 중점학교로서 베이징시 최초의 중·고등 시범학교로 20여년간 베이징시에서 입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교로 유명하다. 인민대 부중은 화원과 같은 교육 환경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학술 세미나실, 직경 9미터의 원형 천문대, 인터넷 열람실, 400미터 잔디 표준 축구장, 수영장, 예술관 등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추어진 학교였다.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주도적인 학교여서 정말 인상적이었다.

중국의 과학교육에 대한 열정에 교사로서 정말 자극을 많이 받고 왔다. 환경적으로 잘 갖추어져있어도 교사의 열성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번 학생과학 국제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며 교사로서의 사명도 다시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지도교사)

느낌표를 던져준 학생과학국제교류 체험

경북 포항 죽도초등학교 교사 이민경

중국여행은 솔직히 기대되지 않았다. 부모님과 함께 이미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그 때의 기억에 의하면 중국은 그렇게 배울 것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중국은 그 땅 덩어리가 넓은 만큼, 또 세계 제 1의 인구 규모를 가진 만큼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여행에서 전근대적인 중국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서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았다. 중국, 그 곳은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는 듯 했다.

국제화 교육을 향한 발돋움

중국의 학교를 생각하면 촌스러운 제복에 빨간 머플러를 한 아이들이 떠오른다. 학교의 시설 또한 교육 강국인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실상 내가 방문한 중국인민대학교 부속중학교 및 부속 소학교, 북경 제 4중학교의 시설은 굉장히 우수하였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부속소학교의 과학창의 교실이었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과학활동을 할 수 있는 과학교육실이 건물 1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과학과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만큼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속중학교 및 북경 제 4중학교는 국제화 교육의 중심인 듯 했다. 이 두 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함께 받고 있으며 중국 및 미국 등지의 명문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한다고 한다. 교육자로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현장을 방문하고 나 스스로를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훗날 이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이국땅에서 처음으로 느껴 본 '조국애'

도덕 교과시간에 '나라 사랑'의 마음을 지도할 때마다 스스로 항상 의문이 들었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과연 학생들이 느낄 수 있을까?', '나 스스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상해에 있는 임

시정부청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다녀와서는 ‘조국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임시정부청사는 상해의 한 비좁은 골목길 안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다. 청사 안에 꽂혀진 태극기, 김구를 비롯한 여러 독립 의사들이 회의를 하던 회의실, 김구선생님의 집무실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다. 이 낯선 땅, 이렇게 초라한 장소에서 ‘독립’에 대한 큰 뜻을 펼치기 위한 자신의 의지만으로 버텨내신 그들의 숭고한 삶에 머리가 조아려졌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봉길의사 기념관에 우리 국제교류단 학생들이 남긴 글이 참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다. ‘선생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노력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0년이 지난 이곳에 또 새로운 ‘조국애’가 우리 가슴에 자리잡는 듯 했다.

빛나는 회색빛 도시 상해

‘더 높게, 더 화려하게’ 제 각각 경쟁이라도 하듯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과 건물 전체를 휘감은 현란한 현광판에 상해에 도착한 첫날 눈이 휘둥그레졌다. 최첨단 미래 도시를 가져다 놓은 듯 멋진 모습이었다. 상해는 중국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이며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화려했다. 하지만 낮 동안의 상해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뿌연 공기와 흙탕물이 흐르는 강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가는 건물 안의 상해시민들의 생활모습은 상해의 겉보기와는 조금 달랐다. 부피의 ‘성장’과 이에 대비되는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급속도로 부피를 부풀리는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푸른 산과 맑은 하천이 흐르는 깨끗한 자연이 가지는 가치와 경쟁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한 면에서 상해의 빛나는 야경이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국제교류체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해주며 마음속에 더 큰 이상과 꿈을 심을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교사인 나에게도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하게 해준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생각하고 느낀 것이 내가 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최우수상 지도교사)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서울 숙명여자중학교 교사 전형구

2006년 여행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인상을 떠올려보면 입에 맞지 않는 기름기 많은 음식,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편의시설들, 여행자들과 현지인들 생활 시설 간의 큰 격차, 그리고 거대하고 웅장한 문화 유적들이 기억납니다.

이번 학생과학국제교류에 참가하게 되면서 4년 동안 중국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중국의 교육 현장과 과학 기술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을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중국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엑스포 등을 유치하였으니 대단한 발전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버스 안에서 바라본 북경의 모습은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간판들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우리 60년대 거리 풍경 같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무질서한 차량들, 관광객은 더욱 많아지고 경제력은 더욱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풍경들이 싫지 않은 것은 그것이 중국이란 나라, 사람들이 가진 숨겨진 진짜 모습이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날 자금성을 나와 서민들이 사는 골목을 짧게나마 인력거를 타고 돌고 가정집을 방문해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뜻 깊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적인 여행으로는 볼 수 없었던 중국의 소학교, 중학교와 과학관을 견학할 수 있었던 점이 이번 교류에 참가하여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학관이나 박물관은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항상 여행 방문 순위에서 밀리게 되니까요. 어쨌든 보고 난 소감은 놀라웠습니다. 교육 환경은 한마디로 글로벌하고 선진화되어 있었고 과학관의 시설과 규모만 보아도 중국이 얼마나 과학기술에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또한 특강에서 정부 차원의 우주 개발에 쏟는 노력과 경제력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양적인 승부에서는 절대 게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앞 설 수 있는 부분은 첨단기술 분야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이번에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면서 감탄과 근심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보건대 지금 같은 속도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간다면 결국 몇 년 안에 첨단기술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중국에게 모두 추월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삼 이번 교류에 참가한 우리 과학도 학생들의 책임이 막중하고 이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의 책임도 무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학생들은 과학에 흥미를 잃어가고 정부나 학부모들조차 과학의 중요성 보다는 어렵고 까다로운 과목으로 인식하여 기피하는 풍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과학을 재미있게 가르쳐 흥미를 갖도록 하고 그 속에서 우수한 과학 인재를 찾아내 키워내야 할 책임이 선생님들에게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이번 교류를 통해 함께 참가한 우리 학생들도 이런 사실을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 우리 과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학국제교류는 세계 제 1의 강대국으로 성장 중인 중국의 교육과 과학, 문화 등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또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참가할 날을 기약해봅니다.

(자연관찰탐구대회 최우수상 지도교사)

중국을 다녀와서

충남 천안 새샘중학교 교사 천홍림

올 2010년은 학교에서 방과후운영부를 맡으면서 참으로 힘겹게 뛰어온 해였다. 1학년 과학을 맡은 과학교사로서 자연관찰탐구대회에 참가해야만 했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지도하게 되었는데 관찰력이 뛰어난 진수, 정리 능력이 뛰어난 정연이가 한 팀을 이루어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 여행의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2010년 11월 22일,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3시에 기상하여 4시 30분에 출발하는 인천공항행 버스에 몸을 싣고 출발했다. 너무 힘겹게 살아왔는데 휴가도 주시니 정말 너무 좋았다. 북경과 상해의 일정이 무척 기대가 된다.

다른 일반 여행과는 달리 학교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욱 좋았고, 학생과학교제교류라는 타이틀에 맞게 그곳의 학생들과 대결도 해보고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 특히 11시부터 30분간 달리기를 하여 체력을 키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국학생들의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음에 반성해 보았다.

쥬리닝이 교복인 중국의 학생들에 비해 우리 학생들의 교복은 무척 세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명 한국의 과학고에 해당되는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리칭이라는 교감선생님은 당에서 내려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아리따운 젊은 여성이었고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직접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이 대단했다. 이 학교는 과학을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 수학을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가 많다고 한다. 중국의 미래가 과학을 기반으로하는 정치까지 바탕이 되어 굉장한 속도로 우리 한국을 뒤쫓아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이 점차 이공계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될 때는 긴장을 해야 할 것 같다. 영어공부도 제대로 하여 듣기, 말하기가 자유자재로 되어야 할 것 같다.

590년전의 자금성, 27살이 될 때까지 같은 방에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다는 9999칸의 거대한 성, 만리장성, 항공박물관을 다니면서 거대한 땅덩어리의 나라 중국을 인식할 수 있었다.

북경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밤새 이동하여 아침에 도착한 곳이 상해. 중국열차의 특징은 원래 우리나라의 KTX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중국의 철길이 노후가 되어서 원래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침대칸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침대차, 처음 보는 타보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상하이의 로신 공원(홍커우 공원)의 역사(윤봉길 의사)를 듣고 임시정부청사의 역사(김구, 이승만...)도 듣고 상하이 박물관을 견학하고 청왕묘 옛거리, 상하이 서커스, 동방명주타워, 상하이과학기술관, 남경로 시청광장(명동거리), 외탄 야경(고건축물)을 감상했다. 야경만 화려한 도시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되어야겠다. 속빈 강정이 아닌 속이 꽉 찬 과학도 한국인을 길러내기 위해 교사로서 더한층 노력해야함을 느끼는 좋은 기회였다.

(자연관찰탐구대회 금상 지도교사)

학생과학국제교류를 다녀와서

대구 성서중학교 교사 김효연

새벽 0시 30분,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동대구고속터미널로 향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의 이른 집합 시간에 맞추어서 조금 여유있게 출발하려니 거의 날밤을 샐 지경이다. 공항리무진을 타고 정신없이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너무 일찍 왔나보다.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6시가 조금 안된 시각이다. 아침을 챙겨 먹고 천천히 집합장소로 갔더니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랑 같은 단체복을 입은 반가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억 속의 북경과는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다. 공항은 엄청 넓어져 전철을 타고 이동해야했고 골목이나 거리의 시설물들은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특히 매캐하고 탁했던 북경의 공기가 지금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조금은 추운 날씨여서인지는 몰라도 몇 해 전과는 공기도 다른 것 같다. 이 모든 변화가 중국이 100년을 공들인 2008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일어난 변화라고 한다. 변하지 않은 건 몇 해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둘러보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이 정말 크고, 넓고, 높고, 많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중국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자금성, 과학기술관, 박물관, 만리장성, 동방명주타워, ...

이번 중국여행에서는 학교 방문과 과학관 견학, 만리장성 관람에 많은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방문에서는 개인적으로 중학교의 교실 수업을 참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잠깐 과학실과 교실을 볼 수밖에 없어 몹시 아쉬웠다. 그러나 소학교에서 실제 열린(?) 수업 장면을 참관하면서 각 교실마다 각기 다른 주제의 창의적인 결과물이 전시된 교실을 보고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엿볼 수 있었으며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모두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의 엄청난 잠재력을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여행과는 달리 이번 중국 여행에서는 조금은 생뚱맞게 내내 떠나지 않는 생각이 과학보다 언어였다.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언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과학관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크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경이나 상해나 아직은 뭔가 부족한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었다. 우주 과학 분야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평면적인 느낌으로 다소 실망스럽기도 하였지만 이 넓은 공간이 차곡차곡 메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과학 중국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만리장성에 도전이다. 첫 번째는 공사로 길이 막혀 거용관을 오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바람이 도와주질 않는다. 우째 이런 일이... 그래도 만리장성이라고 밟아는 봤으니 저번보다는 나아진 건가? 조금이지만 힘겹게 걸어 올라간 그 곳에서 끝없는 성을 바라보며 도대체 사람의 힘은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까, 또 이 성을 쌓느라 누군가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사실은 기왕이면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마냥 ‘왜 또 북경이지?’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과학의 눈으로 바라 본 북경이란 곳은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의 장소이자 추억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여행하는 동안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자상하게 여기저기를 살펴주시는 2대장님과 여러 선생님들, 과교총 관계자분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했던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너무나 빨리 친해져 버리는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5박 6일이 짧기만 한 시간이 되어 버렸다. 목적만큼이나 역시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과학탐구실험대회 최우수상 지도교사)

가깝고도 먼 나라

서울 신목중학교 교사 유향목

한국과 중국.

가깝고도 먼, 혹은 가깝지만 웬지 멀게 느끼고 싶었던 나라였다. 이번 한국과교총의 중국으로의 초대는 나에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뭔가 우리의 정서와 닮은꼴인 낯익은 풍경이 나의 옛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 북경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1순 환로의 허름한 가옥구조, 우리의 옛 소설에나 등장하는 전차, 거리에 자동차와 함께 다니는 자전거 물결, 관광지마다 아기를 앉은 채로 추운 거리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아낙(나의 소시절 풍경임)이 그렇다. 그러나 학교 방문에서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중국인민대 부속중학교와 소학교, 북경 제4중학교, 이들은 지금 주변의 선진국을 치고 올라오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중국이 아니었다. 인민대 부속중학교 현관에 들어서면 순간 이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물리와 수학 올림피아드에 수상한 메달을 목에 건 선배들의 사진이 복도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었다. 매우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북경 제4중학교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를 안내한 안내자는 방문 내내 역대 교장을 지낸 분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게시된 전시관을 소개했다. 역대 교장들의 대형 사진하며 그들의 업적, 교장이 쓰던 방과 그들을 소개하는 대형 전시관은 끝없이 끝없이 넓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자랑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의 역대 교장과 학교를 빛낸 인물, 역사와 전통을 부각시켜 현재 '나'의 존재감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이들의 교육 방식을 다 돌아본 후에야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 뒤끝에 떠오른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사자성어였다. 중국 차세대의 발버둥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시할 수 있었다. 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했다. 우리도 온고지신의 순환에서 새로운 창조로의 발전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교장실에 사진만 달랑 걸려있는 우리의 교장실과는 너무나 달라 씩씩한 생각으로 인민대 부속소학교(초등학교)로 이동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였다. 현관 입구에 한자로 짧게 쓰여 있는 게 교실 좌석표인 줄 알고 어이가 없

었다. 하도 이상하여 우리의 가이드한테 물어보니 아이들의 창작시라고 한다. 그 많은 시들이 들어서는 현관 입구에 가득히 게시되어 있었고 다른 벽면에는 역시 이 학교의 자랑스러운 인물들 사진이 있었다. 소학교 2학년 쯤 돼 보이는 도토리 같은 꼬마 아이는 자신의 키보다 서너 배나 되는 우리를 지구과학실, 물리실, 생물실로 안내하며 자신들의 게시물과 모형들을 가리키며 영어로 한껏 자랑을 늘어놓았다. 물론 영어에 능통한 아이를 뽑았겠지만 인민중학교 방문 때 들었던, 원어민 교사가 50명이고 과학교사 역시 영어 원어민 교사가 있으며 매일 영어수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미 놀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놀라지 않기로 했다. 과학 영재반은 따로 없지만 정규 수업이 끝나면 영어 실험반, 체육활동, 대학 연구기간 등에서 활동하는 동아리가 전교생의 95%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외나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는다는 그들의 공교육을 슬쩍 부러워했다. 그러나 그들의 과학기술관을 돌아보니 우리의 과천국립과학관이나 국립중앙과학관 등에 비해 매우 미약함을 느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우리의 과학 올림피아드와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우리를 배우고 싶어 했다. 지식과 기술은 공유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쑹화런민퐁허구어(중국)인들이여, 과학기술을 배우기 앞서 먼저 교통질서와 정직함과 투명함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과 함께 한 이번 학생과학 국제교류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온 계기가 된 것을 감사한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지도교사)

네 번째 방문, 그러나 처음과 같이

충북 청주 산남중학교 교사 이정선

8월 21일 서울시 과학전시관에서 있었던 제 18회 전국학생과학탐구 올림픽 과학탐구실험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의 표정이 좋았다. 농담 반 기대 반으로 이제 집에 가서 여권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되는 거냐 했는데 이렇게 국제교류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방문이 처음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기를 내심 기대했는데 중국으로 결정이 되었고,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나름 기쁘지고 느끼한 음식을 잘 먹는다고 생각해 왔고,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라 음식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데, 현지식 위주로 나오는 음식들에 끼니마다 나오는 탕수육, 음식마다 들어있는 향신료의 독특한 향으로 여행 내내 멀미하는 기분을 만들어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가림이 있어 북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내내 오지도 않은 잠을 자는 척 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도 있다(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선생님 5박6일 내내 버스 짹꿍이어서 결국은 많이 친해졌지만).

그동안 중국에 왔을 때는 유명 관광지만을 돌아다니며 자연경관이나 문화체험만 하였는데 이번에는 특강을 통해 중국의 최근 과학 동향 및 학교 교육의 실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교사세미나 시간에는 이번 국제교류행사에 같이 참여한 과학교사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있어서 앞으로 교직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은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주 과학 기술에서 일본을 앞질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인우주선 신주(神舟) 7호(2008.09.25)는 우주 유영에도 성공하는 등 중국은 세계에서 우주공간 출장기술을 보유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하니 느긋하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 긴장을 하고 과학교사로서 미래의 과학자들을 길러내는 데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번 국제교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학교방문이었다. 관광지는 그전에도 다 둘러봤던 곳이지만 학교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 물론 우리가 방문한 학교들이 중국의 일반적인 학교는 아니겠지만 시설과 규모에서 한 번 놀랐고, 중국인민대학교 부속 중학교의 커리큘럼, 학생의 특기를 살린

동아리활동, 지역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와 연계된 교육 등은 나에게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 중국인민대학교 부속 소학교의 창의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영어교육, 열린 형태의 과학실 등에서 배울 점도 많았는데 특히 과학실에서의 수업은 인상적이었다. 중국인민대학교 부속 중학교, 소학교, 북경 제 4중학교 방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과정과 중국 교육과정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질의응답시간에는 중국이 교육에 특히 과학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 중국 과학관련 시설(중국과학기술관, 중국항공박물관, 상해과학기술관)의 견학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이나 지역에 있는 과학관과 비교해 보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행 중 만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떠오르게 되는 생각들은 앞으로 교직에 있으면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새로운 발상을 하는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탐구실험대회 금상 지도교사)

불치하문(不恥下問)

충북 청주 서현중학교 교사 김종미

공자의 말씀을 담은 <논어> 학이편에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는 말이 있다. 손아래 사람이나 지위나 학식이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어느 누구에게든 배울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늘 겸손히 배우며 가르침을 따르라는 말로 생각된다. 오랫동안 사람들간의 계급, 수직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던 우리에게 아랫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울림과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시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사성어이다.

우리보다 무언가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중국을, 두 번째 방문하고 불치하문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7년 전 무더운 여름날, 가족들과 함께 중국의 북경과 장가계를 여행한 적이 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자금성이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다. 그 당시 자금성 뒷길에는 “천원만, 천원만”하고 구걸하는 어린 꼬마들이 즐비했다. 여행하던 우리 가족들은 구걸하는 꼬마들처럼 경제적으로 계층이 많은 북경에서 숫자형 신호등을 보았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를 운전하며 교차로를 지날 때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던 터라 중국의 숫자형 신호등을 보고 “저것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우리나라는 왜 저런 신호등을 만들지 않았을까?”하면서 남편과 부러워했었다.

2010년 제 18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과학동아리발표대회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어 학생과학국제교류행사에 학생들과 다시 방문한 중국은 7년전의 부러웠던 기억을 다시금 되살리게 하였다.

우선, 방문한 인민중학교, 인민소학교, 북경4중학교에서 들렀을 때이다. 물론 인민위원회나 교육 당국에서 추천한 학교이기에 그 시설이나 우수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방문한 학교 모두 우레탄으로 깔아놓은 운동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내가 근무하는 지역도 학교 특색 사업으로 천연 잔디나 인조 잔디로 운

동장이 잘 조성된 곳이 있다. 하지만 극히 소수의 학교일뿐이다.

같이 방문한 과교총 직원분께서 자기네들이 방문했던 학교들은 모두 우레탄 운동장이었다는 얘기를 하였을 때, 아! 그것도 좋겠구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침 9시 30분에 시작되는 아침운동에서 몇 천명이 움직이는 곳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일까라는 우려를 금새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내년에는 중간체조를 해볼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교육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싶었던 내 자신이 괜히 부끄러웠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즘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의지로 말씀하셨을텐데 흔쾌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내 자신도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대주의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질서 의식이 없는 나라인 중국에서도 우레탄 운동장과 같은 교육 환경 조성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을 보면, 그 또한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가, 우리의 교육 관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공부한 세대는 영어 학원이나 영어 과외가 없었던 세대이다. 요즘 학생들처럼 영어를 자주 접하고,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았다. 단지 문법책으로 공부하고, 겨우 전공책을 읽을 정도로만 공부했던 기억이다. 이번 행사에서 인민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젊고 유능한 여자 교감 선생이 유창한 영어로 자기 학교를 소개하는 모습에 자극을 느꼈다. 그동안 영어 공부를 곁핍기로 공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더욱 더 나 자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얼마 전 삼성 전자에 취임한 사장님과의 인터뷰 기사가 떠오른다. 어떻게 사장이 되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열심히만 일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하며, “개인 생활과 업무를 균형 있게 조절하여 업무 의욕을 높이고, 자기계발은 물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기사를 읽었다.

교육활동에서 성공하기 위해 교사인 나 자신도 행복한 가정 생활과 더불어 자기계발에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최우수상 지도교사)

학생과학국제교류 소감

인천 연수고등학교 교사 권아름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중국을 학생 과학국제교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평소 중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면적이 큰 나라, 우리나라 보다는 발전이 덜 되어있는 후진국, 저질 시민의식, 등이다. 매체에서 중국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성공적인 내용을 접할 때에도 사실 그래 봤자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곤 했다. 한마디로 중국은 대한민국보다 아래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교류행사에 참여하였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보이는 빨간색이 중국에 도착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올림픽이나 다른 국제 경기들을 볼 때 선수의 옷에서부터 모든 것을 빨간색으로 도배한 듯한 모습을 국제공항에서도 본 것이다. 혁명을 상징하는 빨간색 바탕 안에 노란 색 별이 그려져 있는 중국 국기가 중국인들의 빨간색에 대한 끌림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음식점이다. 중국 음식이 상당히 느끼하다는 말을 듣고 가긴 했지만 워낙에 그런 음식을 잘 먹기에 걱정 하나 없이 갔었다. 하지만 이게 웬일, 정말 너무 느끼해서 탄산음료 없이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향신료 가득 뿌려진 음식들만 나왔다. 이 느끼함은 중국 여행이 끝날 때 까지 계속 되었다.

국제 교류는 명문학교 방문, 과학기술관 견학, 유적지 탐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역시나 관심이 가장 끌리는 곳은 과학기술관 견학 이었다. 상해에 과학기술관에 도착했을 때 상상 보다 큰 스케일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위로 한 채 두리번거렸다. 땅이 넓어서인지 중국은 뭐든 대형이라는 것이 실감났다. 과학관내부도 훌륭했다. 기초과학에서부터 첨단 과학기술까지 잘 전시 되어 있었다. 또한, 전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도 잘 되어 있어 흥미를 가지고 과학관을 즐길 수 있었다. 북경에서 방문한 중국의 명문학교를 보고 나의 중국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을 겸비한 미래의 과학인재를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양성하는 곳 이었다. 마냥 대한민국 뒤만 쫓아오고 있을 중국이라 생각했는데 우리와 나란히도 아닌 한발자국 앞서 나가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춤거린다면 한해 두해 안에 중국이 추월해 나갈 것 같은 조금

은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 과학교사인 나에게도 그 책임이 주어져 있다. 평소 그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국제교류를 계기로 일깨워 주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극과 극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 같다. 후진국의 모습과 선진국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중국의 과학기술선진국을 향한 노력과 열정에 대해선 칭찬할 줄 알아야 하며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동반자며 경쟁자라는 생각으로 분발하여야겠다. 이번 중국 국제교류활동은 좀 더 넓은 시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최우수상 지도교사)

학생과학국제교류에서 내가 얻은 선물

경기 용인 수지고등학교 교사 정충애

그동안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다니던 여행과 달리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공항에 도착하여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과 어색함 속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차츰 기대감으로 바뀌고 새롭게 접하게 될 또 다른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마음 한켠에서부터 꿈틀거림이 시작 되었다.

공항에서 받은 작지만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만들어진 ‘학생과학 국제교류’ 책을 받아 본 순간 이번 여행이 단순한 개인적 목적을 지닌 여행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동참해야 하며 탐방을 통해 얻은 무형의 결과가 학교현장에서 유·무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중국을 여행해 보고 싶다는 유혹은 거의 없었던 내가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본 중국의 모습은 나의 상상에 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일깨워 주었다. 특별히 나는 이번 탐방에서 중국의 학교의 모습에 많은 호기심이 생겼다.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겠지만 학교 내부의 모습을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방문한 세 곳의 학교들에서 본 첫인상은 거대한 국가다운 학교 규모였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학 캠퍼스만한 넓은 교정과 학생 수 대비 교사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에 부러움이 느껴졌다. 학생들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근무해 본 학교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너무 다른 모습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물론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특목고의 모습이 내가 방문했던 학교의 모습과 같다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본다. 추운 날씨에 운동장을 돌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억지로 해야만 하는 짜증스런 모습이나 지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학생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즐기면서 운동장을 열심히 뛰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일상임을 보여 주었다. 중국인민대학교 부속소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복도 벽이 없는 열린 교실에서 다양한 탐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각 과학교과 교실은 교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전시물

들과 함께 활기찬 조별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은 교실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안내를 맡으신 소학교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나 자신을 너무도 부끄럽게 만들었다. 어떤 사정으로 교사가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업 진행이 지루하고 학생들이 산만해 질 때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 학생이 수업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물었을 때 선생님은 나의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수업에 소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수업준비를 항상 철저히 하고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거나 장난을 치는 것은 나(교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뭔가 더 나은 교수법을 생각하고 연구 한다. 그것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문제다'라는 대답에 나는 순간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날 방문한 북경 제4중학교에는 오래된 학교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학교역사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에 감탄했다. 100년이 넘는 학교 역사를 보면서 학생들은 애교심과 더불어 자신 또한 그 역사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느낄 것이란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도 각 학교에 학사관이나 학교의 다양한 활동이 기록되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에게 좀 더 학교를 존중하고 마음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수학교과실이 모여 있는 건물로 안내되어 혹시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우면서도 수업하는 모습이 궁금하여 작은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30여명쯤 되는 학생 중 단 한명도 교사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볼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교실을 들여다봐도 모두가 수업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손님이 오신다는 말을 미리 들었을까? 수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강한 처벌이 기다리나? 경쟁 때문인가?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도 감탄스러운 장면이었으며, 순간 나의 수업시간 교실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내가 본 학교의 모습이 중국의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은 결국 내가 방문한 학교의 학생들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앞으로 중국의 성장에 다시 한 번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번 탐방은 큰 선물을 공짜로 받고 돌아왔다. 전국에서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중국의 우수한 학교와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교사로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지만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준 매우 고마운 여행이었다.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금상 지도교사)

한번쯤은 꼭 가봐야 할 곳 중국

전남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운선

이번 학생과학국제교류는 외국을 처음 나가본 나로서는 가기 전부터 가슴 설레었고, 정말 의미 있고 뜻 깊은 여행이었다. 이번 교류는 관광목적이 아니라 학생과학국제교류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 박물관, 과학관 방문 및 가이드의 중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중국에 대해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중국 방문 후 6자회담 또는 중국 베이징 소식이 매스컴에서 나올 때에는 예전과 달리 내용이 귀에 속속 들어왔다. 특히 내가 방문한 천안문이 아나운서 뒤쪽 배경에 나올 때는 한시도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말로만 듣던 자금성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방이 9999칸 하루에 한 곳에 서만 지내도 약 27년을 지낼 수 있다하니 정말 대단한 규모였다.

만리장성의 길이는 약 4,000km인 줄 알았는데 중국은 우리와 쓰는 길이의 단위가 틀려 이보다 훨씬 긴 약12,070km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크기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 해당된다. 만리장성 도착 날 바람이 심하게 불어 케이블카가 운행되지 않아 걸어서 정상까지 갔기 때문에 오히려 만리장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더욱더 좋았다.

북경에서 제일 유명한 중·고등학교인 중국인민대 부속 중학교 및 북경 제4중학교에서 느낀 것은 열정을 가지고 수업하고 수업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2교시 후 전교생이 약 30분 동안 운동장을 도는 것이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중간체조가 있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보니 사라진지 오래다. 달리기는 체력이 많이 소모된 만큼 건강에는 좋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중간체조나 운동장 달리기 등이 부활되었으면 한다.

상하이는 여기가 과연 자본주의 국가인 중국인지 서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도시였다. 세계인구 1위, 면적 3위인 중국답게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무서운 나라인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달하고 있었다. 방심하다가는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학생과학국제교류 대상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아닌 중국이라 했을 때 약간 실망했다. 하지만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는 이런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이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중국에 다녀오면 언제까지 중국이 못사는 나라로 머물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중국으로 학생과학국제교류를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호차에 같이 동승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시 마다 자세한 설명과 회의를 진행하신 김경기 교감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도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금상 지도교사)

전국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가 가져다준 행복

충남 과학고등학교 교사 김명희

학교의 바쁜 일상 속에서 5박 6일 한국학생과학국제교류 참가라는 행운이 주어졌다. 나와 고락을 함께한 마이스코 학생들이 가져다 준 이 행복을 다함께 누리지 못하는 미안함을 갖고 지원이, 경서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5박 6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말고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권유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이 자진해서 가준다고 하여 고맙기도, 기특하기도 하였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교사와 황산여행을 했지만 과학을 탐구하는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하신 훌륭한 선생님들과의 여행이라 많은 기대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자금성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자금성 뒷골목을 인력거를 타고 돌며 중국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었다. 멈춰선 자금성과 달리 뒷골목은 그곳에 살고있는 사람과 함께 아직도 역사가 쓰여지는 곳이었다. 지원이와 경서가 저희들 볼 것도 느낄 것도 많을 텐데 조장이 되고 조장을 도와서 초등학생, 중학생 조원들을 잘 이끌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북경에 있는 중국제4중학교에 들렀을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2교시 후에 30분간 체력단련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다. 우리 학생들은 아침부터 비실비실 졸다가 2교시가 되어야 겨우 잠을 깨는데 달리기를 하러 나온 중국 학생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그리고 과학관의 시설은 과학고인 우리학교보다 훨씬 우월함을 뽐내고 있었다. 시물레이션 실에 앉아보았을 때에는 우리학교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경에 있는 과학관에서는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들과 가서 그런지 서로가 진지하게 토론하며 설명하며 다닐 수 있어 행복했다. 지원이과 경서가 과학하는 동료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중국의 과학관은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넓은 면적에 비해 아쉬움도 남았지만 실험하고 체험해 보는 곳이 많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전시물보다 중요한 안내하는 사람이 많아서 부러웠다. 우리나라 과학관은 전시물은 있어도 안내하는 사람이 적다. 물론 일본의 과학관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이가 많은 전문가

이지만 이곳은 젊은 청년들이었다. 우리도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멀지않은 미래에 과학관에서 즐기면서 탐구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 과학고 학생들은 입시라는 벽 안에서 수학과 과학 이론공부와 일부 실험만 하면서 2년 혹은 3년을 보낸 뒤 졸업한다. 하지만 이 곳 북경의 학교에서는 수많은 체험들과 몸으로 배우는 과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의 창의력이 뛰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 듯 했다.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를 즐기는 나에게 여행은 항상 설레임이다. 중국음식을 기대하고 간 나에게 매끼니 식사는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학생들도 점점 중국 음식을 즐기는 듯 했다. 내가 그토록 먹어보고 싶어 했던 중국의 발효 두부와 전갈은 먹지 못했지만, 북경오리 등은 중국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만리장성에 오른다는 생각과 동시에 북경에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 나에게겐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왔다. 만리장성의 식당은 마치 한국식당인 것 마냥 한국어와 한국음식들, 한국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차 소개를 받으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찻집에 들어갔다. 란귀인차, 보이차, 자스민차 등 여러 가지 중국의 대표 차들을 맛보고 그 효능을 들어보며 나는 모두 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법, 내 건강에 알맞은 보이차와 란귀인 차를 구입한 후 본격적인 만리장성 등반에 나섰다. 바람이 많이 불어 케이블카 대신에 직접 한계단 한계단 오르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갔지만 경서와 지원이에게 끝까지 가보자고 제안했다. 계룡산을 등반하던 실력이라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서울교대 교수님과 만리장성의 역사와 과학을 논하며 한발 한발 걷는 학생들이 예뻐서 사진을 찍고 찍어주며 응원과 함께 걷고 또 걸었다. 찬바람 때문에 손이 시려운 것 빼고는 전혀 힘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장 높은 곳 까지 올라가리라 라는 신념 하나로 학생들과 서로 돕고 도우면서 끝내 그곳에 올라가 함성을 지르고 사진촬영도 하였다. 만리장성에 와봐야 진정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사람이 될 자격을 얻은 것일까? 우리가 올라간 곳이 만리장성 탑등 중 가장 높은 곳이라고 했다. 그곳에서 만리장성을 내려다 보며 중국인들의 국가관과 영토관이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다. 정상에서 만리장성을 정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하고 내려왔다.

북경에서 상해로 이동할 때는 침대칸이 있는 열차를 이용하였다. 개통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중국을 볼 수 있었다.

지도자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한참 개발 중인 나라라서 그런지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경서와 지원이는 공부를 하겠다고 책을 펴더니 이내 동생들에게 불려갔다. 인기 많은 우리 딸들을 두고 나는 침대 열차의 느낌을 최대한 느껴보자 바로 눈을 붙였다. 새벽에 일어나 침대 열차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좁은 복도의 간이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자고 있는 승무원들을 보며 아무리 신기술의 열차라도 사람의 중요함을 잊지 않는 중국을 보았다.

상하이에서 동방명주타워에 올라가 유리로 된 바닥을 통해 본 상하이 시내 전경은 사진을 찍기에 제격이었다. 원래는 방송용으로 건축된 이 타워는 이제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에펠탑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차츰 중국도 관광 사업에서 유럽의 쟁쟁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상하이에 대다수의 외국관광객이 본다는 상하이 서커스는 순간마다 아찔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의 연속이었다. 가이드에게서 들은 설명이지만 처음에는 먹고살기 위해 서커스단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얼마나 절실하였으면 인간이 그렇게 초인간적인 힘과 순발력, 균형감각, 유연성을 발휘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다. 상하이 임시정부청사와 노신공원 견학은 아이들에게 애국적 차원에서 배울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사동 같은 상하이의 거리를 구경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부족해 중국 전통 옷을 사지 못한 것이 아직도 아쉽기만 하다.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야경을 봐왔지만 유람선을 타며 볼 수 있었던 상하이의 야경은 으뜸 중 하나였다.

상하이에서의 이틀도 금세 지나가고 어느새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다. 그 동안 다녀온 여러 나라와는 색다르게 중국이란 나라를 여행하는 경험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열성적으로 활동한 동아리 덕분이라는 게 정말 뿌듯했다. 학교내신과 동아리활동 모두 빠듯하게 해가면서 불평한번 하지 않았던 아이들과 알찬 여행 프로그램으로 중국의 과학을 보고 배우게 해준 과교총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최우수상 지도교사)

사·도과교총 및 관계기관 소감문



도광양회(韜光養晦)의 나라 중국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교육연구사 정대영

죽(竹)의 장막(帳幕), 화평굴기(和平崛起), 도광양회(韜光養晦), 모두 중국을 가리키며 중국 스스로가 표방하는 외교노선이기도 하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다른 나라와는 외교가 거의 없는 비밀에 싸인 나라로서 죽의 장막 속의 나라라고 인식되어 왔으며, 경제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국교 수교후,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며 본심을 숨기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택해 꾸준히 경제 발전을 하여 지금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G2로 일컬어지고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은 2006년 가을에 한 번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학생들을 인솔하고 과학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7박8일 동안 북경, 상해, 소주, 항주를 둘러볼 수 있었다. 당시에도 북경과 상해의 고층 빌딩을 보며 이곳이 정말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맞는가 싶었는데, 이번에 중국을 다시 와보니 불과 5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변화였다. 북경 올림픽이 큰 계기가 되었겠지만 높고 화려해진 건물, 사람들의 옷차림 등 너무나 많이 변화였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유물과 초현대식 건물이 같이 있는가 하면,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과 매우 남루하여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길 하나 차이로 섞여서 살고 있었다. 그야말로 문명과 야만, 질서와 무질서가 뒤섞여 있는 혼돈의 나라이다.

북경 공항은 여러 다국적 인간들의 집합소로 중국어, 영어, 독일어, 일어 등의 온갖 말이 들려 왔다. 천장에는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적혀 있었다. 한글로도 적혀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첫날에는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방문하였다. 세계의 왕궁 중에서도 가장 넓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거대한 자금성은 영화 ‘마지막 황제’ 부의의 이야기에서 보던 대로 장대하였다. 9천 9백 9십 9개의 방이 있어 갓 태어난 아기가 한 방에서 하루씩만 자면서 살아도 27살이 된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은 중국을 상징하는 관광명소라서인지 많은 현지인들과 외국인, 학

생들이 관람하고 있었다.

인민대 부속 소학교와 중학교, 북경 4중학교는 우리나라의 70년대의 학교와 같은 모습이었다. 중국이 인구밀도가 높아서인지 과밀학급이었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배우고 가르치는데 활기가 넘쳤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부흥을 이룩하는데 높은 교육열이 바탕이 된 것처럼 중국도 높은 교육열로 일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을 엿볼 수 있었다.

과학관은 과천과학관, 남산탐구학습관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설명과 체험활동이 고루 잘 되어 있었다. 기초과학관은 체험활동면에서 인상깊었지만 우리나라 과학관보다 좋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다. 어떤면에서는 걸치장만 요란하고 실내에 체험활동이 전혀 없이 흡사 테마파크와 같았다. 모형이나 외양적인 면에 치우쳐 보여주기 위주의 사회주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해는 국제도시답게 여느 다른 중국의 도시와는 달리 깨끗하고 도처에 대형 건물들이 각양 각색의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특히 황포강 유람선에서 본 도시의 밤은 야경은 장관이었으며 추운 날씨에도 관람객이 많았다.

윤봉길의사 기념관과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게 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의로움과 충성심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윤봉길의사의 유품이나 임시정부 요인들이 쓰던 사무실과 가재도구, 집기 등에서는 비장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외국에서 밤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하기는 하나 상해에서의 숙소가 도심에서는 매우 먼 곳이어서 밤문화를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아무래도 여행사의 농간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웠다. 중국의 음식은 모두 기름기가 많고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은 강한 향신료가 많이 들어 있어 먹기 힘들었지만 음식도 그 나라의 문화인만큼 좋은 경험이었다. 중국의 문화를 철저하게 느껴야 한다는 주최측의 배려로 중국 방문 기간 내내 아침만 호텔 뷔페식으로 먹고 점심과 저녁은 현지식으로 먹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여 무탈하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번 방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만리장성을 축조한 나라, 468m 높이의 동방명주 타워를 만든 나라. 꿈틀대는 아시아의 강국 중국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애 과학, 학 과학, 숭상 과학의 기치를 내걸고 과학 발전을 위해 국가가 손발을 걷어 부치고 나서서 각급학교에서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싼 값으로 여행을

하고 대접을 받지만 곧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현지 가이드의 충고가 곧 사실로 드러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우리도 중국의 과학 발전의 의지를 본받아 더욱 과학 교육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키워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실에서 혹은 교과 수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실 밖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중국 과학국제교류단 활동은 우리 모두에게 감명 깊은 경험이었다.

중국 여행 소감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조정식

교육전문직 대부분 말은 일에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지루함과 따분함이 있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바쁘지만 중국문화교류학생인솔자로 추천되어 중국여행을 하게 되어 기뻐지만 한편으로 인솔이라는 막대한 책임이 있기에 다소 긴장되기도 하였다.

2010년 11월22일 새벽 4시 30분 춘천에서 인천공항행 버스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밟고 중국 점심은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고 오후 1시 경에 북경에 도착하여 북경여행을 시작하였다.

천안문, 자금성, 만리장성, 항공박물관을 보면서 중국 대륙 문화의 웅장함을 보았고, 북경에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보여주기 위한 학교라는 느낌이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북경에서 엘리트 교육을 위해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느꼈고, 또한 물론 한국에서도 과학고, 민사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 목적고가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귀족학교 같은 느낌이 있어 다소 아쉽기도 하였다.

24일 북경여행을 모두 마치고 북경기차역(남)에서 밤에 출발하여 기차에서 침실이 설치되어 기차에서 1박하면서 상해행 기차를 타고 10시간 걸려 아침 7시 경에 상해에 도착하였다. 북경역, 상해역이 모두 최근에 건설하여 역의 크기 및 규모가 웅장함을 중국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느꼈다.

상해는 1년 전에 왔던 곳이라 전에 여행 왔던 코스와 대부분 일치되어 여행에 대한 관심이 좀 작았으나 작년에 왔을 때 보다 올해는 상해국제엑스포가 있어서 그런지 거리 및 관광지가 많이 깨끗해지고 경제대국다운 모습으로 더 많이 변해 있었다.

중국이 한국을 모델로 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발전한 모습을 보고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할 것 같은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중국 음식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올해도 3일 먹으니 먹기에 불편하였다. 여행에서 그 나라의 음식문화를 배우는 차원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좋지만 똑 같은 음식을 시켜 학생들이 대부분 못 먹는 것을 보고 이

번 여행의 다소 아쉬운 점을 느꼈다.

학생들의 중국여행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는 모습과 그리고 인솔하는 선생님들 열의, 한국과교총의 완벽한 준비 모두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국제 교류 행사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소감문을 간략히 적어본다.

‘Science First!’를 다시 생각하게 한 중국 탐방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이영점

거대 국가 중국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삶을 과학의 눈으로 탐방하고, 중국의 여러 학교와 상호 의견교환 및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해외연수의 목적을 가진 여행이긴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운 여행이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중국의 정치적 수도인 북경과 경제적 수도인 상해! 생각만 해도 신이 났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한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집행부의 수고로움을 생각하면 더욱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 즐거움에 내가 한몫 거들게 된다면 더없는 영광이기도 하고 말이다.

11월 21일 북경출발 전날

북경을 가기 전날, 맘이 설렜다. 여행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들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 여행도 좋아하지만 해외로 간다하니 더 신나는 일이다. 2년 전 홍콩, 싱가포르를 다녀온 후로 바쁜 일들에 밀려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 내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좋았다. 중국을 가기 전 먹을거리, 문화 유적지, 선물로는 뭐가 좋을지 등 인터넷 서핑해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출발 전날까지 무척 바빴다. 처리할 공문도 많았고, 며칠 동안 못할 일거리도 정리하고 집안 단속도 했다. 중국은 울산보다 춥다던데 두꺼운 파카도 하나 챙겼다.

아침 7시 10분까지 집합이라 하여 울산에서 밤 12시 30분 인천공항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맘이 설레어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이다. 그래도 잠시 눈을 부렸다.

첫날(11월 22일)

집합 장소는 인천공항, 밤새 버스에 시달렸지만 나의 눈동자는 말뚝말뚝해졌다. 공항에 도착하니 5시 20분, 너무 일찍 도착했다. 아는 일행이 없어 혼자 이곳저곳을 배회하면 시간을 보냈다. 발대식을 갖고 9시 45분, 드디어 인천공항을 출발을 하였다. 기내식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2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 북경과 한국은 한 시간의 시차가 난다. 실제로는 2시간 걸렸지만 시계상으로 보면 1시간 밖에 안 걸려 북경 시간이 10시 45분이다. 그러다 보니 한 시간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비행기 밑으로 보이는 북경 땅은 아주 넓은 평지였다. 서북동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데 산을 볼 수 없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일컬어지는 북경은 3천년 역사의 고도며 중국의 수도로 총면적 16000km²이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온난 기후에 속하여 사계절이 분명한 곳이다. 중국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온 만리장성을 비롯하여 고궁, 이화원 등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거리들이 무궁무진하여 날이 갈수록 관광도시로서 그 명성이 더해가고 있다고 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경은 약간 음산하고 어두워보였다. 날씨 탕도 있겠지만 TV에서 자주 보던 긴 외투를 입은, 약간 굳어있는 군인들이 자주 보이는 것도 한 몫 한 것 같았다.

돌아가는 원판에 음식을 떠서 먹는 기름기 많은 음식으로 점심(첫날이라 맛있게 먹었다)과 함께 중국고량주를 맛 본 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운동이 일어났던 천안문으로 향했다. 천안문사건은 1989년 6월 4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북경 중심부에 있는 천안문광장과 그 주변에 모인 학생과 시민에게, 군인이 장갑차를 출동시켜 발포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자가 나와 당시의 중국 정부의 대응은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중국에서는 천안문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화제라며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던 것을 모르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천안문을 지나서 명, 청 두 나라의 황궁이었던 자금성을 견학하였다. 자금성은 전체 넓이 22만평, 건물은 9천9백99간(현 8천여간)으로 자금성 밖은 폭 52m의 통자하가 둘러쌓고 있어 문을 통하지 않고는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후원 외에는 나무를 심지 않아 자객들의 침입을 방지했다고 한다. 옛날 황제만이 걸었다던 태화문을 걸어 들어가니 감회가 새로웠다.

자금성을 직선으로 한번 거쳐 가는 데만도 2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아주 큰 규모를 보고 새삼 중국의 거대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공산국가로서 그동안 발전의 속도가 느렸지만 문화 그 자체서 중국의 거대한 힘을 볼 수 있었다.

저녁이 되니 밤새 버스를 타고 온 관계로 몸이 무척 피곤했다. 피곤한 눈을 비비고 앉아 특강을 들었다. 현재 중국은 과학 기술을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우주과학 기술에서 일본을 앞질러 두각을 나타내어 이제 세계에서 우주 공간 출장 기술을 보유한 3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중국대사관 직원의 특강을 들으며 나라가 강해지려면 과학의 발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안문 광장

자금성

둘째 날(11월 23일)

오늘 첫 방문지는 학교방문이다. 먼저 중국인민대학교 부설중학교를 방문했다. 중국인민대학교 부설중학교의 교육과정 중 각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선택과목이 250여개나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공교육을 중시하여 정규수업 외 과외나 방과후학교 활동은 적은 편이며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9시 30분이 되자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나와 달리기를 실시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 전에 점심시간에 중간체조와 달리기를 하던 것이 생각나 체력단련을 위해 정말 필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다음으로 중국인민대학교 부속소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이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학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우주, 창의, 지구과학 등 영역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인상 깊었고, 운동장에 농구대가 6개, 축구장이 있을 정도로 넓어 부러웠다.

나는 울산과학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온 연수라 무엇보다도 과학관견학에 관심이 많았다. 중국과학기술관은 주전시실, 아스트로비전과, 아동과학원 등이 있으며, 주전시실의 현대과학기술실에는 생명과학, 뇌과학, 생물과 환경보호, 정보과학, 재료, 기계, 통신, 에너지, 항공, 항만, 수학과 기초과학 등이 전시되어 있고, 중국고대과학기술실에는 고대 과학발명품 500가지가 전시되어 있으며, 아동과학원에는 아동들이 과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울산과학관의 로비가 좁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 신경이 쓰이는 차에 4층까지 연결된 상아로 만든 탑, 움직이는 모빌 등이 있는 아주 넓은 로비를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으며, 구석구석 잘 안내되어 있는 안내표지판과 4D 영화관에서 본 입체영화가 인상 깊었다.

저녁 식사 후에 실시된 교사간담회에서 탐구올림픽 지도교사들의 지도 체험담을 들으며 울산에서도 좀 더 분발하여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셋째 날(11월 24일)

북경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이제 어둡고 축축한 날씨에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떠날 생각을 하니 섭섭한 마음이 든다. 북경에서 마지막 날, 첫 코스로 북경 제4중학교를 방문했다. 북경 제4중학교는 1907년에 설립된 중학교로 학교역사관을 동창회에서 건립하여 교장별 학교역사 및 업적, 전국 우수교사로 선정된 교사 및 졸업생으로서 이름을 날리는 동창 등을 잘 홍보하고 있어 학생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또한 매년 95% 이상의 학생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명문 중학교로서 공부 뿐 아니라 과학, 바둑, 수영, 미술, 기악, 미술 등 30여개의 클럽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400m트랙을 갖춘 넓은 운동장과 농구장, 축구장, 배구장, 실내수영장, 실내농구장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코스로 중국항공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중국항공박물관은 119종, 299대 비행기를 수집하여 전시한 박물관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공전시관으로 비행기 외 각종 미사일, 레이다, 항공폭탄, 비행사진, 비행복, 낙하산 등 2,400여 건의 항공관련 물품 및 서적,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둘러보는 중에 한국전쟁에 중국항공기가 참전하게 된 과정 등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며 같이 간 연구사님들과 한국전쟁, 연평도 사건 등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며 남자 연구사님들의 군대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1,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는 대규모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마시기도 하고 판매도 하는 「명가찻집」이라는 곳에 들렀는데 너무 놀랜 것은 안내인들이 한국말이 너무 유창하다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많이 신장되었구나도 생각했지만, 한국의 관광객이 얼마나 중국의 관광수입을 올려 줬을까도 생각했다. 우리는 보이차를 비롯한 많은 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중국에서 재배되는 차의 종류도 많았지만 차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한국을 출발할 때는 중국에서 선물은 절대로 안사야지 했는데 좋은 차를 마시고 설명을 듣고 보니 저절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건강에 좋은 차를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세 통이나 샀다.

맛있는 차 맛을 보고 난 후 우리는 북경에서의 마지막 견학코스로 중국에 오면 꼭 가고 싶었던 만리장성으로 향했다.

세계 8대 기적 가운데 하나인 만리장성은 전국시대부터 위, 연, 진 등 여러 나라에서 쌓기 시작하여 한, 제, 주, 수, 당, 명 등 계속하여 축성사업을 계속하여 1만2천7백km에 달하는 장성은 명대에 완성했다고 한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람이 불어 케이블카도, 모노레일도 운행 안 한다고 하여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다.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들었지만 팔달령에 도착하여 성 아래를 내려다보니 모든 것이 발 아래로 보이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이라고 할 만큼 험하고 힘든 노역일 것이었다는 것이 실감났으며 시체들을 밟고 서 있다는 것에 전율을 느껴졌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만리장성을 뒤로 두고 상해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장장 10시간을 기차에서 보내야 한다는데도 야간열차를 탔다는 것에 마음이 무척 설레었다.



북경 제4중학교



중국항공박물관
(모택동전용기 앞에서)



만리장성을 오르며

넷째 날(1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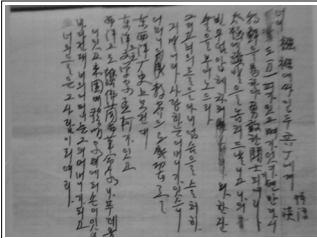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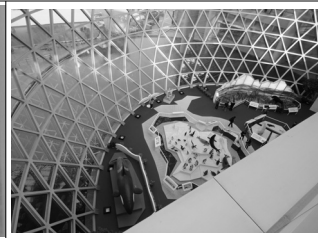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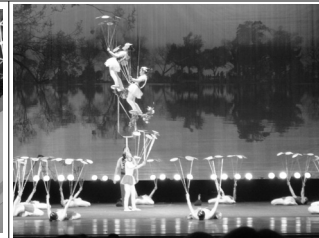
밤새 침대차에서 뒤척이다가 아침에 눈을 떠니 상해역이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같이 타면 수다고 떨고 술도 한잔 마시며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상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상해임시정부와 윤봉길의사가 수류탄을 던졌다는 홍구공원(지금은 노산공원이라고 한다)이다. 상해 연수 일정을 보고 상해임시정부와 홍구공원을 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가슴이 벅찼다.

먼저 노산공원으로 향했다. 25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한 윤봉길의사가 노산공원에서 수류탄 투척당시, 러시아 기자가 직접 찍었다는 기록 동영상을 보았다. '내 아들이 25세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후에는 상해과학기술관을 견학하였다. 상해과학기술관은 6.8만여m²의 전시구역에는 지각탐험, 생물만상, 지혜의 밋, 시청낙원, 설계사 요람, 어린이 과학원, 자연박물관, 등 7개 전시구역과 입체 스크린, 구형 스크린, 4D 등 3개 영화관 및 회관이 있는데, 너무 넓어 3시간 동안 관람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랐고 다리가 너무 아팠다. 군데군데 의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복도 끝 빈 공간을 활용한 휴게소, 친절하게 길 안내표시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인상 깊었으며, 벽면을 이용하여 중국과학자들을 소개해 놓은 것이 참 좋아 보여 우리 울산과학관에도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멋지게 소개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을 먹고 서커스로 유명한 상하이서커스를 관람하였다. 사람의 몸으로 어찌 저런 묘기를 보일 수 있을 가하는 마음이 들었다. 타이타닉 주제곡에 맞추어 보여주는 줄을 이용한 공중묘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으며 5명이 펼치는 오토바이 묘기는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 이틀 전 두 아들에게 남긴 친필 유언	상해 과학박물관	상해서커스(접시돌리기)

다섯째 날(11월 26일)

내일이면 중국을 떠나게 된다. 계속되는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에 상추쌈에 쌈장과 돼지고기 없어 한입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참 아쉽다.

상해는 북위 31도, 동경 121도 동중국 연안에 위치하며 서울에서 남남서쪽에 위치하여 매우 따뜻하다. 양자강이 운반한 퇴적층으로 이뤄진 상해의 평균지표면은 6m로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조시지역으로 중국의 경제, 금융, 무역 중심이며 양쯔강이 용이라고 하면 용머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대도시이다.

오늘 첫코스로 상해 동방명주를 관람했다. 동방명주는 1991년에 착공하여 1994년에 완공된 방송관제탑으로 높이는 에펠탑의 약 18배인 4백68m이며, 크고 작은 11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 구는 진주를 황포강은 옥쟁반을 상징하며 크고 작은 진주가 옥쟁반에 떨어지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263m 지점에 전망대가 있는데 발밑으로 상해 경치가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유리로 된 전망대의 발밑을 내려다보는 아찔함이 장관이었다. 마음 졸이며 다리를 덜덜 떨며 내려다보고 있는데 가이드가 와락 미는 바람에 간 떨어질 뻔했다. 고소공포증이 없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점심을 먹고 어제 가기로 예정되었던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방문하였다. 당시 임시정부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통제·통합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자주독립을 최대의 목표로 내걸었으며 이때 임시정부가 내걸고 투쟁했던 독립운동은 단순한 소집단적 항쟁 차원이 아닌 이념을 동반한 광복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적·정부적 기능으로서의 면모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김구선생님이 이끌었던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좁은 내부 및 집무실 등을 견학하고 임시정부청사를 보존하기 위한 성금을 내고 열쇠고리를 받아 들고 나오는데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하였다.

임시정부청사를 뒤로 하고 고전과 현대가 함께 존재하는 신천지거리와 중국의 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상해박물관을 견학하였다.

박물관에는 연대순으로 작품을 배열해 예술의 발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놓았다고 하는데, 설명을 읽을 수가 없어서 가이드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데 부처와 여러 문화유적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이 있던 김경기교감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상해에서의 마지막 견학코스인 유람선을 타고 보는 상해야경은 홍콩보다

도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네온이 화려한 동방명주의 야경은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왔다. 상해 엑스포를 기점으로 하여 더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상해시에서는 지붕에 조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상해거리를 지나가다 보니 건물들이 너무 높고 다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상해는 건물 모양이 같으면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붕위에라고 장식을 해놓기 때문에 건물 모양이 다 다르고, 또 지붕에 조명을 하고 있어서 더 멋있어 보였다. 지난번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도 같은 모양의 건물 건축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 가이드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싱가포르도 어느 곳을 가나 푸른 나무와 함께 고운 색상으로, 또는 독특한 조형으로 건물들이 매우 예술적이었던 것이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상자 모양의 건물이 아닌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멋진 건물들과 함께 조화롭게 디자인한 도시들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첫째 날(11월 27일)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다. 아쉽다. 가이드의 어눌한 말투도 더 정겨움이 느껴진다.

5박 6일 동안 중국의 문화와 과학을 두루 탐방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점은 중국의 과학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 까지 따라와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되고 특히 항공우주과학은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중국이 무서운 건 기술력이 아니라 성장력이



이병은연구사님과 함께

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과학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이라 낯설어 여행이 힘들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준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다. 특히 항상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이병은 연구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동안 정이 든 연구사님들과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며 작별의 아쉬움을 나누었다.

드디어 인천행 아시아나항공은 상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했고 5박 6일 간의 중국 해외 연수는 막을 내렸다. 모두가 출발할 때의 기대에 만족했을까? 의무감에서 진행된 연수가 아니라 많이 남기고 얻고 느꼈던 연수이길 기대해본다.

중국,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육에 놀라다!

대전과교총 사무국장 장근수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에서 중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정보 공유,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한 국제교류단과 함께 2010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북경, 상해 지역을 둘러보게 되었다.

22일 우리 일행은 천안문 광장을 탐방했다. 명나라 때인 1417년에 착공되어 1420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문 중앙에 마오쩌둥의 대형 초상화가 걸렸고, 양옆에는 '중화인민공화국만세(中华人民共和国万岁)'와 '세계인민대단결만세(世界人民大团结万岁)'라고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다.



23일 인대부중과 소학교를 방문하였다. 수업 중 중 간체조와 열린교실에서의 수업 형태, 그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이 인상 깊었다. 또한 다음으로 방문한 중국과학기술박물관의 규모에도 놀랐다. 저녁에 개최된 교사 간담회를 통해 전국에서 개최되는 과교총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어 의미 있었다.



24일 방문한 북경사중에서의 학교사료관 운영은 우리도 배워야 할 좋은 본보기였다. 강요된 교육이 아닌 보여주는 교육을 통해 애교심과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생길 것 같았다. 다음으로 방문한 중국항공박물관과 만리장성의 거대한 규모에 또한번 놀랐다. 상해 발 야간열차 탑승도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25일 지금은 노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홍구 공원을 방문하였다. 매헌이라고 씌어진 곳으로 들어가니 윤봉길 의사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 전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한 몸 조국을 위해 바치..."라는 글귀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에 가족



애를 뛰어넘는 윤봉길 의사의 민족애를 느낄 수 있어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26일 동방명주타워에서 본 황포강 주변의 외탄, 푸둥지구의 풍경은 정말로 아름다웠으며 수많은 빌딩에서 느낀 거대한 중국의 발전에 마치 압도당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또한 선진국에게 밀리고 중국과 같은 나라에 쫓기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있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였다. 상해 임시 청사는 비좁은 골목에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얼핏 스쳐 지나쳐도 모를 만큼 퇴색한 3층짜리 건물이었다. 1926년부터 1932년 직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청사로 사용했던 곳이다. 구조는 1층이 회의실이고, 2층엔 김구선생님의 집무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고, 3층이 요인숙소와 전시관으로 되어 있었다. 찾아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며 전시관에는 임시정부 당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의 눈을 끈 것은 태극기였다. 조국을 위해 한 목숨 바친 윤봉길 의사도 여기서 저 태극기를 보면서 다짐을 했을 것이고 많은 순국선열들이 태극기를 향해 애국심을 불태웠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선열들의 넋을 마음속으로 기렸다.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교육에 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먼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다. 양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으니 창의성 교육과 같은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인재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획일화된 교육에서 개별화·다양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전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교사가 될 것을 다짐한다.

한국과 교총 소감문



중국 북경(北京), 상해(上海) 기행(紀行)

한국과교총 사무총장 엄영주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중국과의 과학교육 교류행사로 북경과 상해의 학교들과 주요 문화유산을 둘러보았다. 주중한국대사관의 신준호(申浚浩) 교육과학관의 도움으로 중국의 과학 발전과 교육의 내면을 볼 수 있었다. 또 나름대로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었다.

북경은 원(元)나라 이후 오랜 기간 중국의 수도로 몇 번의 이전은 있었지만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도시이다. 중국은 행정적으로 22개성, 5개 자치구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13억 인구를 가진 한반도의 44배나 되는 나라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고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북경이 과거의 중국, 현재의 중국을 대변하는 도시라고 생각하며 발길을 옮긴다.

북경 시내에 오래된 도시답지 않게 왕복 10차선 도로들이 잘 뻗어있다. 아시안 게임과 북경 올림픽때 업그레이드 된 도로들인데 벌써 정체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지난 10여년간 중국 경제의 호황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굴러가는 차량들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룬다. 행인들의 옷차림과 자전거는 우리의 80년대 수준으로 보이는데 자동차들은 아우디, 볼보, 혼다, 폭스바겐 같은 브랜드 가치가 큰 차들이 대부분이다.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에 부자들이 많아진 탓이다. 개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 수준이지만 워낙 대국이다 보니 부자들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다는 말이 실감난다. 개혁, 개방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빈부 격차는 언젠가 폭발할지 모르는 혼란을 잉태하고 있을지 모른다.

북경 시내 가로수들은 회화나무가 대부분이다.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반가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양하선생의 수필에 나오는 말대로 나무는 덕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회화나무는 중국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퇴직하여 낙향할 때 기념으로 주던 상서로운 나무이다. 우리가 흔히 인생무상을 말하는 남가일몽(南柯一夢)도 이 나무 아래서 일어난 얘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무를 심으면 훌륭한 학자가 나온다고 하여

서원에 심던 나무이다. 창덕궁, 창경궁에 있는 회화나무 거목들은 이런 뜻에서 심었을 것이다. 서양에서도 이 나무를 학자수(Scholar tree)라 하니 이 나무에 대한 동서양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흥미롭다.

중국의 학교들을 보고 싶고 알고 싶다. 중국의 학제는 소학교 6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이고 중학교 6년 중 후반 3년은 고급과정으로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되어 큰 틀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학기는 9월에 시작된다. 우리는 3월 학기로 미국이나 유럽과 달라 유학이나 귀국학생의 입학 시 학기가 일치하지 않아 학기 변경을 고려 할 때이다.

북경 제4중학교를 찾았다. 이건화(李健華) 부교장이 안내를 한다. 30대 후반의 젊은 부교장 선생은 수학박사이며 당 소속으로 엘리트로 보인다. 학교 일과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3시 40분경에 끝나며 방과 후에는 2시간의 클럽활동, 보충수업이 있다고 한다. 9시30분에는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 기공체조를 30분 동안 하는 것이 이채롭다. 학생들은 여러 지역에서 선발된 학생들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열심히 한다.

중국은 1979년 이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부르짖고 있다. 이 학교 역시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발전에 과학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학을 인간과 접목시키는 노력으로 저명 과학자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으며 우리 서울과학고와도 교류가 있다고 한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 “과학을 공부하고(學科學), 과학을 사랑하고(愛科學), 과학을 숭상하고(崇尚科學)”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중국이 과학올림픽아드에서 우승을 자주 하는 것도 이 같은 과학중시 교육과정 때문일 것이다. 주당 수업 시수를 보면 수학, 물리, 화학이 4-5시간, 생물이 3-4시간이라고 한다. 화학 실험실이 3개나 보인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과학이 어렵다 하여 시수를 줄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심화 선택으로 과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 과학교육과정을 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또 중국 관리들의 절반 이상이 이공계 출신이라니 부럽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우주과학 기술에서 일본을 앞질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주(神舟) 우주선 발사(1호 1999년)에 이어 달 탐사위성 상아(嫦娥) 1호 발사('07.10.24)에 성공하였다. 상아 1호는 16개월의 달 탐사로 달 표면 전체 3D 디지털 지형도를 완성 하였다고 한다. 유인 우주선 신주(神舟) 7호('08.9.25)는 우주 유영에도 성공하였다.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우주 공간 출

장 기술을 보유한 3번째 국가가 된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 근처에 위치한 중국과학기술관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새롭게 볼 수 있다. 과학기술면에서도 이제 중국은 G2 국가로 불릴 만큼 부상하고 있다.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가는 길이다.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북경 서북쪽 교외에 있는 명13능(明十三陵, 밍스싼링)으로 가는 길을 지난다. 북송아 밭, 사과 밭이 넓게 펼쳐지는 가운데 나폴레옹 기마상 같은 커다란 동상이 우뚝 서 있다. 안내자에게 물으니 70년대 초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둥)이 세운 이자성(李自成)의 동상이라 한다. 말머리는 자금성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 이자성이 누구일까? 나는 명나라는 만주족 누루하치에 의해 패망하고 청(淸)라가 세워졌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에 앞서 명나라는 농민반란군 지도자 이자성에 의해 자금성을 빼앗기고 국운이 다한 상태에서 청나라를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농민에 바탕을 둔 공산 혁명 지도자 모택동의 관점에서 이자성은 실패하였지만 그 뜻을 자신이 실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중국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같다.

만리 장성(長城, 창청)은 인류가 이룩한 최대의 토목공사로 지칭되는 만리장성은 그 길이가 6400Km에 달하며 성벽 두께는 승용차 통행이 가능할 정도이다. 한 때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는 설이 있었으나 사실은 아니다. 기원전 300년 전후 춘추전국시대부터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하여 명나라 때 완성되었다고 한다. 춘추전국 시대를 평정하여 중국을 천하 통일한(기원전 221) 진시황제도 축성사업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진(秦)나라도 천하통일 후 14년 만에 멸망하니 만리장성은 대국의 흥망성쇠를 바라만 본 것인가. 더구나 진나라 이후 한(漢), 위(魏).....수(隋), 당(唐), 송(宋), 원(元), 명(明), 청(淸)나라 어느 왕조도 300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왕조들이 500년을 넘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성을 쌓던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죽으면 그 자리에 묻혔기 때문이다. 평범한 가장으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다 성을 쌓으러 떠난 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만리장성에 누워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만리장성은 말해주고 있다.

자금성(紫京城, 쯔진청)은 명(明),청(淸) 두 왕조의 황궁이다. 22만평의 넓이에 건물은 9천여 칸이다. 자금성 후문에 이르는 도로변 나무들에서 새소리가 요란하다. 노인들이 산책하면서 애완동물로 기르던 새를 데리고 나와

새집을 나무에 걸어놓고 바람을 쏘여주는 것이다. 노인은 어느 나라나 외롭고 친구가 필요하다. 자금성의 내정에는 기묘한 자연석과 향나무들이 있으나 외조의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에는 나무들이 일체 심어져 있지 않다. 건물 앞에 큰 방화수 통이 늘어서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를 예방하고, 있을지도 모를 자재를 막기 위한 조치 같다. 건물 외곽에 세워져 있는 돌기둥들은 여러 문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조각했는지 알 수 없다. 유럽에서는 조각가를 예술가로 칭송하고 대접했다. 중국의 조각가들은 한갓 권력의 부속물로 하찮은 존재로 여긴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각 건물의 현판에는 한자와 병기한 문자가 있는데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문자라고 하나 지금은 말과 글이 한족에 동화되어 없다고 한다. 말과 글이 민족의 정체성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배운 것이 떠오른다.

천안문(天安門, 텐안먼)광장은 자금성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10만평에 이르는 세계 최대 도시 중심 광장이다. TV에서 자주 보던 모택동 초상이 걸려있고 군사 퍼레이드 때 당간부들이 도열하는 단상이 있다. 주변의 정결한 석조 건물들은 모주석 기념당, 혁명 박물관, 인민대회당으로 오늘날의 중국 통치 권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 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 호요방(胡耀邦, 후야오방)을 추모하는 모임이 발단이다. 호요방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다 1987년 당에서 축출당한 후 1989년 사망하였다. 개혁, 개방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몰려든 북경대학교 학생들의 외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시위대 진압 탱크 앞에 홀로 서서 진입을 막던 젊은이의 꿈은 이루어졌는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천안문의 역사는 이 사람을 기록할 것이다.

여행의 진수는 열차여행이라는 말이 있다. 기대감을 갖고 상하이행 열차에 오른다. 열차에 오르기 전 가졌던 중국에 대한 편견이 확 바뀌었다. 열차에 휴지가 없을지 모르니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깨끗하게 꾸며진 상하이행 야간 고속열차는 나무랄데가 없었다. 우리는 중국하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과거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올림픽, 엑스포를 통하여 그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킨 모습이다. 고속 열차는 시속 200km로 달려 1900km 떨어진 상하이 푸둥역에 아침에 내려 놓았다. 베이징, 상하이 고속열차가 금년 하반기에 다시 시속 400km로 더욱 빨

라진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조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가진 중국의 저력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다.

상하이는 베이징보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엑스포를 치른 지 얼마 안되어서인지 도로 정비가 잘되어 있다. 도시는 온통 꽃으로 치장되어 있다. 베이징이 정치 중심지라면 상하이는 오늘의 중국을 지탱하는 금융 허브로 경제 중심지라는 인상을 준다.

상하이 야경을 보기위해 황포강 유람선을 탔다. 황포강은 말 그대로 황색을 띤 물로 깨끗하지 않게 보이는데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은 유람선에서 보는 야경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건물마다 빛의 삼원색을 배합하여 치장하였는데 아름답게 보인다. 조명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것 같다. 서울의 한강 조명도 다시 생각해 볼 때라는 생각이 든다. 황포강의 뒤편에는 상하이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건물들이다. 150여년전 중국이 어려운 개방 시기에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에게 내준 조계지에 그들의 영사관과 은행 건물들을 지었는데 각기 건축 양식을 달리한 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각국의 특색있는 건축 양식을 지금까지 보여준다. 한편 황포강의 맞은편 푸둥은 상하이의 발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세계 건축가들의 경연장 같은 고층 건물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동방명주(東方明珠), 영화 미션 임퍼서블 촬영지라는 중국은행, NEC, 진마오 빌딩 등이 돋보이며 우리나라 미래에셋 빌딩도 눈길을 끈다.

상해 옛거리와 예원(豫園)을 찾았다. 상해 옛거리는 서울의 인사동 같은 곳이다. 청(淸)나라 때 건축양식으로 붉은 단청으로 치장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골동품점, 기념품점, 찻집 등이 있어 쇼핑과 중국의 옛 정취를 엿볼 수 있는 곳이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은 편이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미국 문물도 함께 자리해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와 달리 좌판을 늘어놓은 곳이 없어 정리된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다.

예원은 명나라 후기 상하이 출신의 고관을 지낸 반윤단(潘允端)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노년을 위해 20년에 걸쳐 지은 전형적인 중국 남방식 정원이라고 한다. 효심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 후 몇차례 영국, 프랑스 등으로 주인이 바뀌고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중국 공산당 정부가 다시 중건하여 1961년에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한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꾸부려 지었다는 구곡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로 붐빈다. 그 앞의 찻집 호심정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다녀간 곳이라고 한

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있어 따라가 보니 조그만 만두 가게이다.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만두의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상하이에는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는 동안 우리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펼치던 유적이 있는 애환서린 곳이다. 우리에게 홍구 공원이라고 더 알려진 루쉰 공원을 찾았다. 공원은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윤봉길 의사는 이곳 홍구 공원에서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에 주둔한 일본군이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식장에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린다. 이 사건으로 일본군 사령관 사카가와를 비롯한 많은 일본 고위층들이 살상당하고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침략 앞에 노출되었던 우리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풀어준 사건이다. 매정이라는 작지만 아담한 정자에 윤봉길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폭탄을 투격한 장소에는 돌로 새겨진 기념비가 당시의 상황을 일깨워준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12월 19일 일본 가네자와에서 총살형으로 산화한다. 최근 밝혀진 언론보도는 일본 가네자와는 윤의사에게 살상당한 일본군 사령관의 고향이라니 일부러 그 곳까지 끌고간 일본군의 잔학상을 읽을 수 있다. 모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우리 일행을 보니 애국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는 것 같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마당로(馬當路)는 주변에 비해 허름한 편이다. 그래서인지 상하이 시가 재개발지구 지구 추진을 1990년대 초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에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차기 중국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당시 상하이 당서기 시진핑이 임시정부청사를 유적지로 보존해주었다고 한다. 크게 될 사람은 뭔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 고맙게 느껴진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1919년에 출발하여 몇차례 이동을 하다 현 청사에서 1926년부터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 까지 있었다고 한다. 덧버선을 신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당시 김구 선생 집무실과 박은식, 이동령 임시정부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다. 전시관 크기는 협소하고 보잘것없는 벽돌집이지만 곳곳에 당시 임정 요인들의 사진, 서류, 사무실 집기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허름한 건물이지만 일제 강점기의 나라 없는 설움을 달래야 했던 당시 임정 요인들의 독립의지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새겨진 곳이어서 누구나 한번 방문하면 뭉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곳이다.

신천지(新天地) 거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지금은

중국 속의 서양으로 파리의 카페 거리에 뒤지지 않는 풍경이다. 처음에는 프랑스의 조계지로 금융가였다고 한다. 거리 곳곳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조형물, 고급 카페, 뷰티크 숍들이 어우러져 여행의 낭만과 나그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중국에서 개방 정책으로 발전한 자본주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대표적 거리가 신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은 그동안 내게는 먼 나라였다. 북경과 상해는 서울에서 여객기로 1시간 40분 비행거리지만 내 마음 속의 거리는 가깝지 않았다. 무찌르자 오랑캐로 경원시 하던 나라, 6.25동란 시 인해 전술을 편 중공군으로 나쁜 기억을 가진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동북공정의 꺾그러움이 있지만 모처럼 이룩한 이웃관계가 조화로운 관계로 발전되길 희망하며 푸둥 공항을 떠나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세계를 선도할 날이 머지 않았다

서울 관악고등학교 교장 이연우

2010년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3시 평소 같으면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인데, 웬지 모르게 눈이 떠졌다. 그리고는 잠이 오지 않아 떠나 채비를 차렸다. 4시 30분에 사당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를 기다렸는데, 의외로 버스가 일찍 와서 인천공항에는 5시 30분에 도착하였다. 원래 모임시간은 7시 10분인데 너무 일찍와서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는데, 나와 비슷한 옷을 입는 여선생님과 학생 2명이 역시 배회하고 있어, 직감적으로 우리 일행이겠구나 생각하고 말을 걸려다가, 괜히 모르는 사람이 낯선 곳에서 말을 걸면 두려움을 가지고 대할 것 같아서 말았다. 이 일행은 나중에 알았지만 죽도초등학교에서 온 일행들이었다.

발대식을 하고, 짐을 부치고, 출석상황을 점검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낸 후, 출국수속과 탑승이 완료되고, 우리가 탄 아시아나 항공기는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솟아올랐다.

어느덧 북경에 도착하여 짐을 찾고 각 차별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올해는 모든 식사를 현지식으로 하기로 하여 중국음식을 먹게 되었다. 중국 음식은 기름기가 많아 거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도 입맛에 맞는 메뉴도 있어 그냥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둘러 보았다. 자금성은 올림픽 경기 때문에 새로 단장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다. 자금성을 본 후 인력거를 타고 북경시내의 서민들이 사는 동네를 둘러 보았다. 북경시내의 서민들은 우리나라 빈민촌과 거의 같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었다. 조그만 한 곳에 20여 가구가 모여 살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북경시내의 땅값이 비싸고, 북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린다고 했다. 그리고 북경시내 주택가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좁은 공간에 나무를 심을 여력도 없어 보였다. 집의 형태는 입 구(口)자 형태였는데, 좀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정원에 대부분 나무를 심지는 않지만, 심을 때에는 반드시 2그루 이상을 심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한 그루만 심을 경우 입 구(口)자 안에 나무 목(木)자 들어간 형태가 되므로 그것은 빈곤할 곤(困)가 되어 집안이 넉넉하

지 못하게 된다는 속설때문이라고 했다.

북경의 공기는 작년과는 완전히 딴 판이었다. 작년의 경우에는 올림픽 때문에 통제를 하여서 그런지 공기 중에 유황냄새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예년과 같이 공기 중에 유황냄새가 진동하였다. 이것은 여전히 북경시내의 일반서민들은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북경주재 신준호 교육과학기술관의 특강을 들었다. 특강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들었는데, 특히 로켓부문과 우주개발 부문에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둘째 날은 인민대부속중학교와 인민대부속소학교의 방문이었다. 이번의 학교방문은 작년보다 훨씬 더 규모나 시설 더 좋았고, 학생들의 수준도 훨씬 좋았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는 선입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경험이었다.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부문에서는 각종 국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과학기술관과 왕부정거리의 관람이 있었다. 과학기술관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차량으로 방문하여 과학관 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나라가 과학교육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 실감하였다. 과학관의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 국립과천과학관보다는 좀 작은 듯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우리나라에 못지 않게 충실도가 있었다. 그리고 4D 영상관을 관람했는데, 미국의 올렌도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영상관을 본뜻 것 같았는데, 입체영상면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셋째 날은 북경제4중학교 방문과 항공박물관, 그리고 만리장성의 관람이었다.

북경제4중학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학생들과의 교류는 없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예년에 없던 학교역사관을 만들었으며, 그곳에 학교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것이 좋았다. 항공박물관은 원래 비행기 격납고와 정비창이었던 같아 보였다. 하지만 북경시와 가까이 있어 군사시설로 그냥 놔두기가 어려워 박물관으로 꾸며 놓은 것 같았다. 규모는 상당히 넓은 광장에 다양한 비행기와 비행기의 역사, 항공 전략사 등을 볼 수 있었다. 특히 6.25동란 때 중국 공군의 활약상을 자세히 그려 놓은 것을 중

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고 최초로 해외 파병하여 전과를 세운 것이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 생각하였다. 만리장성은 바람이 많이 불어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이용하지 못하고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저녁을 먹고 상하이로 이동하기 위하여 북경남역으로 이동하였다. 상하이로 이동하는 야간열차는 중국의 고속전철이었는데, 이 고속열차의 속도는 느린곳은 대략 시속 160km, 빠른 곳에서는 시속 250km의 속력으로 달렸다.

상하이에 아침 7시경에 도착한 넷째 날은 노신공원과 상하이 과학기술관, 청왕묘 옛거리를 보았다.

노신공원에는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있었다.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처럼 국권을 지키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는 윤봉길 의사와 같은 의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상하이과학기술관은 규모면에서는 북경과학관보다 더 큰 것 같았고, 주로 체험위주의 전시물이 많아 학생들이 더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 그리고 특히 유아를 위한 과학전시물이 다양하게 많이 있었고, 이것도 역시 체험위주로 되어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상하이서커스를 보았는데, 북경서커스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굳이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기술면에서는 북경이 한 수 위인 것 같고, 연기력이나 조명같은 화려한 면은 상하이 쪽이 좀 나은 것 같았다.

다섯째 날은 동방명주타워와 임시정부청사, 상하이박물관, 황포강의 크루즈 야경관람이 있었다.

동방명주타워는 우리나라 남산타워와 비슷하게 꾸며졌으며, 다만 높이가 남산타워보다 훨씬 높다는 것 외에는 비슷한 구조였다. 상해임시정부청사에서는 구 한말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하이박물관은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대단히 알차게 꾸며져 있었다. 특히 화폐류, 토기류, 무기류와 같이 테마별로 주제를 가지고 전시공간을 꾸며 놓은 것이 좋았다. 황포강의 크루즈 관람은 고대와 현대의 건물을 강을 사이에 두고 대비되는 것이 미묘한 느낌을 주었다.

여섯째 날은 아침에 호텔에서 바로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호텔에서 공항까지는 짧은 거리였으므로 아침에 다소 여유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다. 출국수속을 하고 12시 10분 상하이공항을 이륙하여 인천공항으로 향하였다.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국제교류단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추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보기도 하였다. 이번 국제교류단의 일정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상하이의 윤봉길의사 기념관과 상해임시정부청사의 관람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근대사를 단순히 교과서에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긴 하지만 그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어려운 역경을 헤쳐 나왔는지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과교총 정책위원회 위원장)

북경 탐방 소감

창동중학교 교감 김경기

중국 북경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국제교류 차 다녀갔던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북경의 건물과 거리는 깨끗해졌고, 차량들은 한층 고급스러워졌다. 차량들이 뒤엉켜 복잡하게 돌아갔던 교통체계도 순조롭게 바뀌었으며, 끼어들기에 경보음을 울려대던 운전자의 모습도 많이 사라졌다. 또한 거리를 걷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쳐 보였다.

우리는 한 때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비유했다. 무한한 잠재력에 비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중국인들이 수궁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랬다. 20세기 초 일본에게 난징 대학살을 겪는 등 수모를 당했으며, 이후 공산주의 경제체제 하에 있었던 반세기 동안 초라하고 가난에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 중국을 잠자는 사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눈에 띄는 발전을 거듭하여 중국이 기침을 하면 세계 경제는 몸살로 나타나게 된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 뒤에는 덩샤오핑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뛰어난 과학기술 인력이 있었다.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흑묘백묘론을 외치며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선진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나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공부를 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 중국을 이끌고 있다.

한국과교총에서는 지난 수년간 학생과학국제교류 차 일본을 다녀왔다. 그러나 최근 6년간 교류대상국을 중국으로 바꿔 다녀오고 있다. 세계를 호령하고자 뻗어가는 중국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짧은 학생과학국제교류 동안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도약하는 중국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니 우리 꿈나무들이 중국의 힘의 원천을 봐주기를 원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세웠다고 믿기 어려운 만리장성과 얼마나 많은 나무가 소요되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자금성을 봤다. 그리고 무섭게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보고 돌아왔다. 무한한 저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탐방하는 마음은 이래서 늘 우울하기만 하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비행기에 희망을 가득 싣고 오게 된다. 그들의 문화재를 들여다보면 웅장하긴 하지만 우리 보다 예술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쳐나는 인력으로 만리장성을 세울 수는 있었겠지만 최고의 안목을 지닌 장인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석굴암, 금동 반가사유상 등을 만들 수는 없었다. 석굴암에는 세계가 극찬하는 아니 그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우아한 조형미와 과학적 균형미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제 세계 각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와 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 않고는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가 13억이 넘는 인구에서 선발한 중국의 축구를 늘 이기듯이 우리에게 최고의 11명이 있으면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꿈나무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11명으로 성장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과교총 정책위원회 상임위원)

덜 삭힌 피로감

한국과교총 과장 이희란

가끔은 아니 자주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반성이라도 좋다. 그러면 자신의 진솔한 모습에 자신도 놀라지 않을까?

이제야 조금은 선명하게 중국을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을 보는 느낌이다. 같은 듯 다르게 제 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는 중국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래서일까 더 무거워지는 몸과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길어진 일정과 10여 시간의 기차여행에서 오는 단순한 피곤함 때문은 아니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객체를 알아가면서 오는 흥분과 설렘을 넘어 현실감이 입혀진 피로감 때문이다. 제대로 알기도 전에 너무 일찍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알아가는 과정의 한 고비일까?

사람 사이의 관계도 흥분과 설렘 보다는 피로감을 느낄 나이인가보다.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설렘보다는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속단한 중국과 그 속에 역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미숙한 판단 때문이리라. 나뿐만 아니라 크게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그런 피로감을 너무 일찍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탐방 기간 중 들려온 비보와 그에 대한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면서 이른 내 피로감에 ‘탁’ ‘탁탁’ ‘탁’ 죽비(竹篋)를 내리쳤다.

“정신 차려라. 대한의 아이들아!”

북경과 상해의 거리, 1318km....

한국과교총 대리 박현정

2009 학생과학국제교류를 신종플루로 인해 올해 1월에 다녀왔으니 정확히 10개월만에 중국을 다시 찾았다. 올 1월 처음으로 방문했던 중국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 때문인지 10개월 동안 중국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대감에 부풀었다.

북경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변한 모습에 당황스러움과 실망감이 동시에 내 가슴을 쳤다. 10개월 전의 파란 하늘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노랗게 변해버린 하늘만이 날 반기고 있었다. 평소에도 파란 하늘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져 헬렐레 하고 다니던 나였기 때문인지 기운이 쭉 빠진 채 '노랗게 변해버린 하늘 이외에는 변한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북경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기대를 한 탓인데 괜히 중국을 탓하며 기운을 쭉 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국제교류와는 다르게 이번 국제교류에는 상해 일정이 포함되었다. 야간열차를 타고 10시간여를 달려 상해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역시나 '넓다'였다. 지난해 북경에 처음 방문했을 때와 과 마찬가지로 넓다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았지만 뭐랄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었다. 조금 더 다듬어진 듯한...

상해는 중국 최대의 상공업 도시이다.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무역지인 홍콩에 와있는 것 같은 착각도 들었다. 황포강을 중심으로 높고 높은 빌딩숲을 이루고 있고, 그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 역시 화이트 칼라의 반듯한 정장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참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임에도 서울과 그 외의 지역 특색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경과 상해의 거리, 1318km.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 다시 부산으로 가는 거리보다도 훨씬 멀고, 서울에서 상해까지의 거리보다도 먼 거리이니 어쩌면 서로 다른 나라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리.

이렇게 북경과 상해의 차이를 느끼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 기 획

위원장 이규석(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위 원 김재영(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엄영주(전 등촌고등학교 교장)
최돈희(서울우암초등학교 교장)
이연우(관악고등학교 교장)

□ 편 집

위 원 김정숙(서울이문초등학교 교장)
김경기(창동중학교 교감)
박묘선(중원중학교 교사)
전영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2010년도

중국,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종합보고서 <권 6> (비매품)

발 행 일 : 2011년 2월

발 행 인 :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 이규석

발 행 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19번지
(사단법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전 화 : (02) 745-4464~5 FAX : (02) 745-4466

홈페이지 : <http://www.kofses.or.kr>

인 쇄 처 : 신일인쇄사 전화 : (02) 2266-5555
